

## 韓·中·日 古代 木簡의 名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 일시 : 2022.9.23.(금) 13:00~18:00

❖ 장소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310관 903호



# 일정

---

13:20~13:30	개회사	이성시(한국목간학회)
13:30~14:00	20세기 이래 서북 漢代 관문서 간독 형태에 관한 연구 및 분석	李迎春(西北師範大學)
14:00~14:30	한반도 발견 목간의 형태 용어 검토	이재환(중앙대학교)
14:30~15:00	일본 고대 목간의 형식분류와 기능적 분류	三上喜孝(國立歷史民俗博物館)
15:00~15:15	휴식	
15:15~17:50	종합토론	좌장 : 김병준(서울대학교) 토론 : 오준석(경북대학교) 윤선태(동국대학교) 市大樹(大阪大學)
17:50~17:55	폐회	



## 개회사

제 16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일 고대목간의 명칭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 개최를 기해 한 마디 인사말씀 올립니다.

오늘 한국목간학회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됨에 따라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 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회장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참가할 수 있게끔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2년 반만에 학술회의에 직접 대면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코로나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중국 서북사범대학의 이영춘 선생님,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미카미 요시타카 선생님 그리고 오사카 대학의 이치 히로키 선생님께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를 이해하시고 발표와 토론을 흔쾌히 받아들여주신 것에 대해 다시금 감사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목간학회에서는 2007년 창립당초부터 이미 다수의 출토점수가 있는 중국의 간독, 죽간, 일본의 목간 등의 연구를 배우면서 한반도 출토 목간을 동아시아 속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며 학계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1996년 12월에 일본의 목간학회에서 처음으로 한국목간에 대해 발표했을 때, 회장의 참석자로부터 ‘한국에 목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출토사례를 보는 한 일본 목간과의 관계를 거의 인정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반응이 있었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간독·죽간과 일본의 목간이 전혀 이질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학문분야라고 생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국과 일본의 목간을 비교하는 것을 전제할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각각이 독립된 세계에서 자기완결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전후해서 한국 각지에서 목간이 차례차례 발견되었고 신라목간, 백제목간의 출토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 열도의 출토보다 연대가 1세기 앞선 6세기 중반에 사용된 목간의 출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토점수도 1000점에 가깝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출토목간은 수십만 점의 출토를 자랑하는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에는 아직 도달하기에는 멀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목간 연구의 진전에 따라 한 때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각각의 지역별로 분단되어 이루어졌던 목간 연구가 동아시아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서 검토한다고 하는, 전혀 새로운 인식이 공유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구의 조류 속에서 현재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학계에서 각각 다수의 출토점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목간의 형태분류나 그 명칭 등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후로 동아시아 규모로 목간연구가 진전된다면 여태까지 각국에서 이루어져왔던 형태분류나 명칭에 대해서도 이후 학술교류를 원활히 진전시키기 위해 공통의 분류법이나 명칭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목간학회에서는 올 3월에 개최된 학술발표회에서 국민대학교의 김재홍 선생님께서 「한  
국고대목간의 분류방안」을 발표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국제학술회의에서 이루어지  
는 발표와 토론 및 참가자 여러분의 논의에 의해 오늘의 주제가 심화되고 이후 연구의 마일스  
톤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개최에 진력해주신 중앙대학교 및 이재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9. 23.  
한국목간학회장 이성시

## 挨拶文

第16回国際学術大会、韓・中・日古代木簡の名称に対する総合的検討の開催に際して、一言ご挨拶申し上げます。

本日は、韓国木簡学会が漢江を一望できる中央大学で開催され、会員の皆さんとお会いできることを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この会場から、オンラインとの併用で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す。私もこうして2年半ぶりに学術会議の開催場所に直接、参加できたことから、コロナ後が間近であることを感じております。

まず最初に、中国の西北師範大学の李迎春先生、日本の国立歴史民俗博物館の三上喜孝先生、そして大阪大学の市大樹先生には、このたびの国際学術会議の主題をご理解の上、発表、討論をお引き受けて下さったことに、改めてお礼申し上げます。お忙しい中、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韓国木簡学会では、2007年の創立当初より、すでに多数の出土点数のある中国の簡牘、竹簡、日本の木簡などの研究に学びながら、改めて韓半島出土の木簡を東アジアの中で位置づけることを重要な課題として学界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私は1996年12月に日本の木簡学会において、初めて韓国木簡について発表した際に、会場の出席者から、「韓国に木簡があることを初めて知った」、「出土例を見る限り日本の木簡とはほとんど関係は認められ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反応があったことを今でも生々しく記憶しています。

そのような時代までは、中国の簡牘・竹簡と、日本の木簡とは、全く異質な世界の学問分野と考えられていたところがありました。当時においては、中国と日本の木簡の比較を前提にした検証は、ほとんど行われず各々が独立した世界で自己完結的に研究が進めてこられたと言っても過言でないと状況でした。

ところが、2000年前後を境に、韓国の各地で木簡の発見が相次ぎ、新羅木簡、百濟木簡の出土例も年々増加しています。日本列島の出土よりは1世紀ほどさかのぼり6世紀半ばに使用された木簡の出土が確認されております。出土点数も1000点近くに到達しようとしています。

韓国出土木簡は、数十万の出土を誇る中国や日本の事例にはいまだ遠く及びませんが、重要なことは、韓国木簡研究の進展に伴って、かつては中国と日本といった各々の地域ごとに分断して行われていた木簡研究が、東アジアという広い地域で検討するという全く新たな認識が共有されつつあることです。

そのような研究の潮流の中で、現在、抱えている問題は、中国や日本の学界において、各々多数の出土点数に基づいてなされている木簡の形態分類や、その名称等の共有化についてです。今後、東アジア規模で木簡研究が進展していけば、これまで各国で行われてきた形態分類や名称についても、今後の学術交流を円滑に進展させていくためには、共通の分類法や、名称が必要にな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痛感しているところです。

韓国木簡学会では、本年3月の学術発表会において、国民大学の金在弘先生が「韓国古代木簡の分類方案」と題する発表を行い、問題提起をしたところです。本日の国際学術会議における発表と討論および参加者の皆さんの議論によって、本日の主題が深められ、今後の研究のマイルストーン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最後に、このたびの国際学術会議の開催に多大なご尽力を下された中央大学および李在院教授にお礼申し上げます。

2022. 9. 23.

韓国木簡学会長 李成市

# 목차

---

20세기 이래 서북 漢代 관문서 간독 형태에 관한 연구 및 분석	3
李迎春(西北師範大學)	
한반도 발견 목간의 형태 용어 검토	55
이재환(중앙대학교)	
일본 고대 목간의 형식분류와 기능적 분류	73
三上喜孝(國立歷史民俗博物館)	
종합토론	95



# 20세기 이래 서북 漢代 관문서 간독 형태에 관한 연구 및 분석

---

李迎春(西北師範大學)



# 20세기 이래의 서북 漢代 관문서 간독 형태에 관한 연구 및 분석

李迎春(西北師範大學簡牘研究院)

---

## 〈목차〉

- I. 관문서 간독의 주요 형태
  - II. 20세기 이래의 簡牘 문서 형태에 관한 주요 연구성과
  - III. 서북 문서 簡牘 형태의 연구에 남아있는 주요 문제
- 

문서행정은 秦漢 시기의 국가 통치와 일상 관리의 기본 형식이다. 간독을 주요 매체로 하는 관문서는 국가행정을 유지하고 政令을 원활하게 하는 연결체였다. 행정기능의 차이로 인해 서로 성격이 다른 관문서 간독의 형태와 사용방식은 제각기 다르다. 20세기 이래, 서북 漢簡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는데 관문서 간독의 형태는 다양하여 길이·너비·두께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형태도 대량으로 존재한다. 서북 관문서 간독의 다양한 성격, 기능, 제작, 사용 상황을 연구하는 것은 한나라의 국가 통치와 행정 운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변방의 통치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간독의 형태에는 규격이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형태의 간독은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다. 『說文解字』, 『周禮』, 『論衡』, 『事記』, 『漢書』 등 문헌자료에는 簡·牘·札·牒·檢·署·楬 등 형태에 따른 명칭이 보이고 해석도 있다. 20세기에 간독 출토가 이어지면서 王國維, 勞榘, 陳夢家 등 학자들이 전세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간독에 대해 명명하기 시작하였고, 간독의 명명 문제는 점차 간독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간독의 출토 사례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출토 간독 자체에도 어떤 형태에 관한 명칭이 보이고, 심지어는 자칭(예: 符, 過所)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어떤 것은 전세 문헌과 부합하고, 또 어떤 것은 전세 문헌의 설을 보충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전세 문헌의 기록과 어긋난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간독의 형태나 명명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주로 최근 몇 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간독 형태의 명명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 관문서 간독의 주요 형태

### (1) 簡과 牘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簡과 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간독은 평면이 비교적 정연하고 직사각형으로 된 대나무·나무 조각이다. 이와 같이 특별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비교적 잘 다듬어진 대나무나 나무 조각이 간독의 일반적인 형태로 일반적으로 簡 또는 牘이라 부른다. 따라서 서사매체로 사용된 나무나 대나무를 "簡牘"이라 한다. 簡과 牘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재질로서 구분하는 견해, 즉 簡을 대나무로, 牘을 나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청나라의 학자 段玉裁는 “簡, 竹為之; 牘, 木為之”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견해도 있다. 즉 형태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길고 가느다란 것에 한두 줄의 글자를 쓸 수 있는 것을 簡이라고 하고, 폭이 넓어 여러 줄의 글자를 쓸 수 있는 것을 牘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관점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통일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나무와 나무는 재질이 다름에 따라 간독으로 만드는 방식도 다르다. 속이 비어 있는 대나무는 서사재료로 만들 때 “截竹為簡, 破以為牘”, 즉 대나무를 잘라서 簡을 만들고, 簡을 다시 잘라서 牘(가늘고 긴 형태)을 만들어야 한다. 대나무 통은 둥글고 곡도가 있다. 하지만 글씨를 쓸 때는 평면에 쓰는 것이 좋기에 넓이가 넓지 않아야 함은 물론, 좁을수록 서사면이 평평하여 쓰기 편하다. 한편, 속이 딱딱한 나무는 서사재료로 제작할 때 “斷木為契, 析之為板”, 즉 목재를 길이와 두께가 규격에 맞는 판자로 자른 후, 일정한 너비의 나무 조각을 만든다. 이 과정에 있어서 길이, 너비, 두께를 모두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으며 재료에 의한 제약이 없다. 편의상 글자를 많이 쓸 수 있으며 재단 공정이 적은 나무 조각, 즉 너비가 약간 넓은 나무 조각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재질 면에서 보았을 때, 簡은 초기에 주로 좁은 대나무 편을 가리켰으며 글자수가 많은 책을 엮는데 쓰였으나, 牘은 넓은 나무 조각을 가리켰고 각종 행정 문서의 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대·秦漢 시기에 이르러서는 서사할 내용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각 지역이 실정에 맞게 서사재료를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簡과 牘의 구별은 너비를 치중하게 되었으며 『說文解字·竹部』의 “簡, 牘也”와 같이 부수가 “片”인 “牘”자로 부수가 “竹”인 “簡”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簡과 牘의 차이에는 소재의 차이에서 폭의 차이로 변화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이 변화는 진한 시기의 사람들이 일반 간독의 규격을 너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전세 자료인 典籍과 출토 문헌을 보면 전국·진·한 시대의 간독은 너비에 따라 簡, 札, 牘, 兩行, 牘, 方, 冊 등으로 불렸다. 그중 하나는 한 줄만 쓸 수 있는 좁은 간독으로, 보통 簡, 札, 牘이라고 한다. 孔穎達는 “單執一札謂之簡”이라고 하고, 顏師古는 “小簡曰牘”이라고 한다. 출토 실물을 보면 보통 너비 0.3~1.5cm이다. 湖北 지역에서 출토된 죽간은 대략 0.5cm이고, 서북 지역에서 출토된 목간은 대략 1cm이다. 두 줄을 나란히 쓸 수 있는 간독은 漢簡에서 “兩行”으로 불리며 주로 통행문서를 서사하는 데 사용된다. 兩行과 함께 札도 한대 서북지역에서 흔히 쓰이는 서사매체로 출토된 실물로 보았을 때 폭은 2.5cm 내외다. 두 줄 이상의 글자를 쓸 수 있는 간독을 牘이라고 하는데 『論衡·效力』에는 “書五行之牘”라고 기재되어 있다. 牘은 서북 한간에 흔히 牘으로 쓰여 있으며 版(板)이라고도 한다. 『說文·片部』를 보면 “牘, 書版也.”라고 적혀 있고 孔穎達은 “牘乃方版, 版寬於簡, 可以并容數行.”이라고 한다. 너비가 方形에 가까운 版牘을 또한 方이라고 한다. 方에 대해 『儀禮·既夕禮』에는 “書贈於方, 若九, 若七, 若五”라고 기재되어 있다. 鄭玄의 注에는 “方, 板也. 每板若九行, 若七行, 若五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方에는 다섯 줄 이상 내지 아홉 줄의 문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司空」에는 “毋方者乃用版”이란 규정이 보여 당시에는 方과 版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출토된 간독을 보면 牘은 글자가 서사된 행수에 따라 너비에도 차이가 있다. 약 3cm 되는 것도 있고 10cm 되는 것도 있다. 札이나 牘에 비해 여러 줄의

글자를 쓸 수 있는牘은 분명 서사된 글자 수가 많으나牘은 일반적으로 편련되지 않기 때문에 편련하여 冊으로 쓰는 簡牘에 비해 오히려 용납하는 글자 수가 적게 된다. 『儀禮·聘禮』에는 “百名以上書於策，不及百名書於方”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策은 冊의 通假字이기에 簡을 편철 했다는 뜻으로 된다.

이와 같이 漢代에 흔히 사용된 簡牘은 너비에 따라 簡(札, 牒), 兩行, 牘(版)의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중에 簡, 兩行은 冊으로 편련할 수 있으며 牘은 보통 편련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된다. 그중에 行數가 특히 많은 것을 方이라고도 한다.

## (2) 檢

檢은 封檢으로도 불린다. 『釋名·釋書契』에 “檢，禁也，禁閉諸物使不得開露也.”，『急就篇』에 “簡札檢署槩牘家”，顏師古의 注에 “檢之言禁也，削木施於物上，所以禁閉之，使不得輒開露也。署謂題署其檢上也.”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檢의 주요 기능은 封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封緘한 후에는 그 위에 글을 적어야 하는데 이러한 나무판을 첨부한 檢을 檢署라고도 한다. 『說文解字』에는 “檢，書署也.”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주로 글을 쓴다는 뜻을 나타내는 署의 시점에서 檢을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徐鍇의 『說文解字係傳』에는 “書函之蓋，玉(三)刻其上，繩緘之，然後填以泥，題書其上而印之也.”와 같이 더욱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근대에 들어서서는 王國維가 『簡牘檢署考』에서 檢에 대해 주목하고 감독의 封緘 방법에 대해 “牘 위에 板을 추가하고 끈으로 맨다……그것은 板을 봉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檢이라고 한다. 즉 檢을 하고 끈으로 매고 거기에 흙(泥)을 넣은 후 印을 찍고 수신자를 적으면 이 일은 완료된다.”라고 지적하였다. 그후에 王獻唐이 『臨淄封泥文字敘目』에서 관문서의 封緘 방식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牘面複加一板如蓋，以繩約之，板謂之檢，大小與牘同度，用護字文，檢刻繩道三行，藉通組內，於中複鑿方槽，內貫繩道，方槽謂之印齒，又名印窠，用時以檢覆牘，繩從道內周匝束結於槽中，繩上加丸泥，鈐以印文，泥與繩檢遂封結一體，再於檢上題識事由或收受之人，謂之曰署，而全功已畢，他人欲窺牘文，必先啟繩檢，啟印則泥變動，所以明信守防奸仇也。

檢은 본디 물품을 봉하는 데 사용되는 封泥 函(封泥槽)을 가리켰다. 封緘 후의 물품은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신자 등 관련 정보를 적어야 하므로 封泥 函을 일반적으로 비교적 넓고 큰 판자에 새기게 된다. 그것은 封泥 函 위에 글자를 쓰기 위해서다. 이러한 封泥 函이 있고 글자를 비교적 많이 적을 수 있는 檢의 나무 판자가 근대 이래 많이 출토되고 있다. 『說文』에 기재된 檢은 주로 후자를 가리키며 『急就篇』의 檢署와 같다. 『漢書·武帝紀』에는 “夏四月癸卯，上還，登封泰山。孟康注曰：‘王者功成治定，告成功於天。封，崇也，助天之高也。刻石紀號，有金策石函金泥玉檢之封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漢書·王莽傳』에는 “梓潼人哀章，學問長安，素無行，好為大言。見莽居攝，即作銅匱，為兩檢，署其一曰“天帝行璽金匱圖”，其一署曰“赤帝行璽某傳予黃帝金策書”。某者，高皇帝名也.”라고 적혀 있다. 『後漢書·公孫瓚傳』에는 “逼迫韓馥，竊奪其州，矯刻金玉，以為印璽，每有所下，輒自囊施檢，文稱詔書.”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세 기록에는 모두 한나라 시기의 檢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모두 檢署일 것이며 檢板에 해당한다. 근세의 간독자료를 보면 封緘에 관련된 자료가 대량으로 존재

하며 封泥 흠의 檢 또는 檢板도 많이 출토되었다.

檢板은 주로 나무 판자(너비가 약간 넓은, 약 3cm)에 封泥 흠(나무판 위에 튀어나오게 만든 것 또는 흠을 파서 만든 것)을 파고 흠 윗부분의 檢板에 각종 정보를 기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문서 封緘일 경우, 수신 기관, 전달 방식, 출발 시간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실물 封緘은 봉인한 물품의 이름이나 수량 등이 주를 이뤘다.

檢署는 덮개를 덮고, 글을 쓰고, 封印을 해야 하기 때문에 檢은 보통 목재를 사용하며 약간 넓고 封泥 흠이 있다. 사용 시, 檢을 주머니에 넣거나 책자 모양으로 감아 놓은 간독 문서에 첩부한 후, 끈으로 이를 묶고 흠 위에 매듭을 짓는다. 발신자는 전달 도중에 봉인이 뜯겨 기재된 내용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檢의 흠에 진흙을 넣고 도장을 찍어 封泥를 만들었다. 張家山 漢簡의 二年律令을 보면 “諸行書而毀封者, 皆罰金一兩”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달 과정에 '封毀'되었을 경우, 전달 기구는 현지의 縣令이나 縣丞의 印으로 '更封'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거연 한간의 문서 전송기록에는 흔히 '封破'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전송 과정에 封泥가 훼손된 것을 말한다. 이때 규정에 따라 기존 封泥 옆에 封泥를 하나 더 추가하고 날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다시 봉인하는 封泥를 간독에서는 '旁封'이라 한다.

출토 실물을 보면 매우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즉 세 줄을 새겼다는 뜻을 나타내는 “三刻其上”의 封檢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長沙 五一廣場의 東漢簡 중에 “臨湘令殷君門下”라고 적혀 있는 封檢이 이에 속한다. 또한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 예를 들어 나무판 위에 封泥 흠만 판 것도 있다. 封泥 흠은 나무판 위에 튀어나오게 만든 것도 있거니와 흠을 움푹 파서 만든 것도 있다. 어떠한 형태든 封泥 흠이 있는 封檢은 모두 일정한 두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檢의 목재는 간독보다 큰 사례도 있으며 檄材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居延 新簡에 “檢材五, 當檄十”라고 기록된 사례가 있어 檄 두 개를 만드는 재료로 檢을 하나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檢署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해서는 謝雅妍의 「從長沙出土東漢簡牘看“封檢”類文書的形製與轉變」<sup>1)</sup>이 참고로 된다. 나무 판자와 封泥 흠의 형태로부터 檢의 분류를 시도한 것이다. 斗字形 檢(측면이 斗자형으로 된 檢. 封泥를 넣는 흠이 牘 표면 위에 튀어나온 형태. 수신자 등 정보는 긴 牘 위에 기재), ㄱ자형 檢(한쪽은 얇고 다른 한 쪽은 두터운, 측면으로 보면 ㄱ자 형태로 된 檢. 하지만 정면으로 보면 상하의 너비가 같으며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부채형 檢(측면은 ㄱ자형과 같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이지만 정면으로 보면 위가 좁고 아래가 넓다), 화산형 檢(측면은 양쪽이 얇고 중간이 두터우며 중간 부분에 封泥 흠이 있다) 외에 一字形, 三字形, 工字形, 王字形 흠 등이 있다.



圖 1-1-1 斗字形 檢 (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選釋, CWJ1③:133)

(斗자형 檢, 『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選釋』, CWJ1③ : 133)

1) 謝雅妍, 「從長沙出土東漢簡牘看“封檢”類文書的形製與轉變」, 黎明釗·馬增榮·唐俊峰編, 『東漢的法律·行政與社會: 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探索』,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2019年.



(쐚기형 檢, 『居延漢簡』, 3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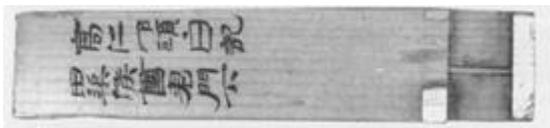
(부채형 檢, 『居延漢簡』, 1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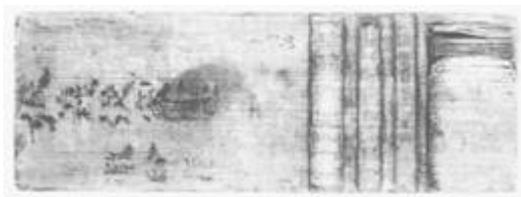
(화산형 檢, 『居延漢簡』, 8.4)



(一字形 檢, 『里耶秦簡(貳)』, 9-3422)



(工字形 檢, 『居延新簡』, EPT40:7)



(三字形 檢, 『東牌樓簡』26)



封泥(王字形 홈, 『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選釋』, CWJ1③ : 133)

封泥의 홈만 있고 檢板이 없는 檢을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封泥匣(短檢으로 칭하는 학자도 있음)이라고 부른다.<sup>2)</sup>

이외에 封緘, 문서 전송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문서 檢板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서사하는 내용도 유사하나 封泥 홈이 달린 나무판이 없다. 이것을 何雙全은 緘이라고 하고 李均明은 函封이라고 하고 孫慰祖는 平檢이라고 하고 青木俊介는 平檢 또는 平板檢이라고 하고 富谷至는 封泥匣이 없는 檢이라고 한다. 필자는 封緘이 檢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며 封泥 홈이 없는 나무판은 단독으로 封緘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에 檢으로 부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의 여러 학자의 의견 중 李均明의 函封 설이 비교적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函封의 사용 방식에 관해서도 여러 학자의 의견이 다르다. 封泥匣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럴 경우 函封에 글을 씌으로써 문서 전송의 방향이나 방식을 지시하고 封泥匣으로 封한다고 본다. 이 양자를 함께 사용하게 된 목적은 아마도 제작이 어렵고 판재를 소모하는 封泥 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또한 封檢을 별개로 만들면 封泥를 직접 나무판에 부착할 수 있게 되고 封泥匣으로 다시 고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일부 학자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函封은 원래 封泥 홈이 있었으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檢은 문서를 봉하는 기능 외에 물품을 봉하는 기능도 있다. 물품을 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封檢을 實物檢이라고 한다. 實物檢에는 종종 물품명, 수량 등이 적혀 있으며 소유자의 이름을 적은 사례도 있다. 주로 수납, 보존, 도난 방지 등에 사용된다. 거연 한간의 實物檢은 옷 주머니에 첨부한 衣囊檢이 제일 많으며 각종 의류의 수량을 상세하게 적은 것도 있다. 또한 衣囊檢에는 다른 필체로 체크했다는 뜻을 나타내는 鉤校 부호가 쓰인 사례도 있어 서로 다른 시기의 옷 주머니 소유자가 봉을 한 의류에 대해 대조 및 검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實物檢에는 또한 병기, 돈, 소고기 등 물품을 봉한 것도 있다. 심지어 敦煌 馬圈灣에서는 '驢'라고 적힌 實物檢도 출토된 바가 있다. 이 檢은 아마도 바뀌치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맞은 길이의 끈을 당나귀의 목에 매달아 묶은 후 봉을 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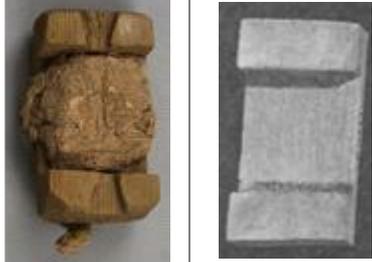
이와 같이 封檢은 간독을 사용한 시기에 있어서 封緘 역할을 한 나무판이며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거니와 형태나 사용 방식도 다양했다. 다만 封檢에 관해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牛頭檢', '偃檢'이 기재된 간독의 구체적인 형태나 사용 방법 등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

2) 일부 封泥匣은 번두리에 글자가 쓰여 있다. 예를 들어 里耶秦簡 중에는 수신자 등 상세한 정보를 적었으나 檢板이 없는 封泥 홈 사례가 있어 당시에는 封泥 홈만으로 봉하는 특수한 문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函封 형태에 관한 자료표

형	식	수량	출토지점	크기(cm)	도판
A	I	51	里耶古城遺址 一號井	길이 : 8.0-23 너비 : 0.7-2.8	
A	II	403	額濟納河流域 破城子, 額濟納河流域 肩水金關遺址, 額濟納河流域 地灣遺址 및 기타 漢代烽燧遺址, 長沙 五一廣場	길이 : 13.3-23.1 너비 : 1.6-3.8 두께 : 0.2-1.4	

<표2> 封泥 흠 형태에 관한 자료표

형	식	수량	출토지점	크기(cm)	도판
B	I	14	里耶古城遺址 一號井	길이 : 8.0-23 너비 : 0.7-2.8	
B	II	186	里耶古城 一號井 ; 河西 疏勒河流域 漢塞烽燧遺址 ; 額濟納河 漢代烽燧遺址	길이 : 13.3-23.1 너비 : 1.6-3.8 두께 : 0.2-1.4	

<표3> 封檢 형태에 관한 자료

형	식	수량	출토지점	크기(cm)	도판	
C	I	4	A8破城子 肩水金關	길이 : 9.4-15.15 너비 : 2.4-3.4		
C	II	24	A33地灣, A8破城子, P9 肩水金關 敦煌 額濟納旗卅井候官 次東隧	길이 : 11.8-25.5 너비 : 1.4-3.8		
D	I	8	甲渠第四隧 A8破城子 肩水金關	길이 : 12.3-31.2 너비 : 1.6-5.4		
D	II	3	A8破城子 肩水金關	길이 : 11.1-22.6 너비 : 1.4-3.0		
D	III	32	A8·A7破城子 ; P 9 ; A32金關 ; 肩水 金關 ; 長沙 五一廣 場 一號井	길이 : 5.7-16.1 너비 : 1.8-3.5		

D	IV	2	長沙 東牌樓 七號 井			
E		17	A33地灣, 破城子, 長沙 五一廣場 一 號井, 長沙 東牌樓 七號井	길이 : 6.9-14.1 너비 : 3-3.7		

### (3) 觚

觚는 多面體의 목질 서사재료이다. 『說文』에는 그 재질에 의해 '栝'로 기록하고 있으며 "棱也"로 해석하고 있다. 『急就篇』의 첫 구절에는 "急就奇觚與眾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顏師古의 注를 보면 "觚者, 學書之牘, 或以記事, 削木為之, 蓋簡之屬也……其形或六面, 或八面, 皆可書. 觚者, 棱也, 以有棱角, 故謂之觚."라고 적혀 있다. 출토 자료로 보았을 때 觚는 원주형이며 능각이 있는 多面體의 서사재료이다. 서사면은 6면, 8면과 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8면, 적게는 3면, 5-7면도 자주 사용된다. 觚는 습자나 글자 연습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면이 많은 것은 글자를 많이 서사하기 위해서이며 일반적으로 정식적인 서사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출토된 觚를 보면 『倉頡篇』, 『急就篇』의 문자가 서사된 사례가 적지 않다. 觚에 서사된 글자 중에는 아주 중요한 사료로 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1977년에 玉門 花海에서 출토된 7면의 서사면을 가진 觚에는 후한 前期의 어느 한 황제의 遺詔가 쓰여 있어 크게 주목을 받았다. 觚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고 80cm, 50cm, 20cm 등 다양하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글자를 많이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간독보다 길이가 긴 편이며 조잡하게 만들어 진 것도 많다.

### (4) 楬

楬은 표식 기능이 있는 간독으로 오늘날의 꼬리표 또는 라벨에 해당한다. 段玉裁의 『說文解字注』를 보면 "楬, 書其數量以著其物. 今時之書, 有所表識, 謂之楬檠."라고 기록되어 있다. 『周禮·秋官·蠟氏』에는 "有死於道路者, 則令埋而置楬焉, 書其日月焉.", 『周禮·秋官·職金』에는 "辨其物之微惡與其數量楬而璽之.", 『周禮·泉府』에는 "物楬而書之."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司農의 注를 보면 "楬著其物也."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楬는 물품의 명칭이나 수량을 적은 꼬리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王國維는 『流沙墜簡·屯戍叢殘·器物類』에서 간독 꼬리표에 대해 주목하고 兵器 장부의 꼬리표(楬)를 소개하고 이것은 "병기 장부의 第一簡이며 그 목록을 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1930년대에 출토한 居延 漢簡 중에는 이러한 꼬리표가 많았다. 그 후에 연구자들은 이를 전세

문헌자료에 보이는 楊과 비교함으로써 楊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에 長沙 馬王堆 一號 漢墓 및 三號 漢墓, 長沙國 漁陽王后墓, 江蘇 胡場漢墓, 平山養殖場漢墓 등 묘장에서도 성격이 유사한 간독이 출토되었다. 里耶秦簡의 정리 담당자 및 연구자는 이러한 간독을 '筭牌' 또는 '簽牌'라고 하고 있으며 海昏侯墓簡牘 정리 담당자도 '簽牌'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簽牌, 筭牌와 居延 漢簡의 楊은 기본적으로 같다.

출토 자료 중의 楊은 표시하는 내용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實物楊이다. 이 楊은 물품의 명칭과 수량이 적고 물품에 매달거나 물품 위에 놓아둔 꼬리표이다. 묘장에서 출토된 楊은 주로 부장품의 내용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長沙 馬王堆 1號漢墓, 漁陽墓에서 부장품 명칭이나 수량을 적은 楊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楊은 물품 또는 물품을 담은 상자나 바구니에 끈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衣筭”, “繪筭”, “牛脯筭”, “金二千一筭” 등이 쓰여 있는 것이 있으며 漁陽墓에서 출토된 楊에는 글자가 9줄 쓰여 있는데 이에 는 부장품 명칭이나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적에서 출토된 楊에는 저축 물자가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居延·敦煌 한간에는 弩矢·蘭冠·繩가 기록된 楊이 흔히 보인다. 둘째는 文書楊이다. 이 楊은 종류별로 나누어진 문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다. 위에는 문서의 명칭이 쓰여있어 검색하는 데 편리하다. 이 楊은 문서나 문서를 넣은 상자나 바구니에 끈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里耶·居延·敦煌에서 출토된 楊의 대부분은 이 두 번째 분류에 속한다. 예를 들어 居延新簡의 일련번호 EPF22:36호 간독에는 “建武三年十二月侯粟君所責寇恩事”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楊에 속하며 1-35호 간독의 내용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1-35호 간독에는 侯粟君責寇恩 사건에 대한 3건의 원서와 관서 간의 왕래 문서가 기록되어 있다. 文書楊은 대부분이 검색이 편리하게끔 양면에 같은 글자가 쓰여 있거나 한면에는 문서의 전체 명칭 즉 全稱, 한면에는 약칭이 쓰여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楊의 제작 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주로 상단 또는 하단 양쪽에 홈을 파는 契口型和 구멍을 뚫는 鑽孔型이 있으며 일부 楊에는 홈과 구멍 모두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敦煌漢簡 1393호 간독이 이에 속한다. 또한 鑽孔型은 구멍이 하나인지 아니면 두 개인지 하는 구분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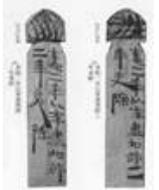
출토된 楊의 상단의 형태는 대부분이 반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삼각형 또는 제형으로 된 것도 있다. 그리고 상단부의 문식은 격자무늬, 먹칠한 것, 공백 즉 문양이 없는 것으로 나뉜다. 楊의 크기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길이 약 10cm인 것도 있거니와 7cm인 것도 있다. 馬鞍山 東吳朱然墓에서 출토된 것과 같이 길이 24.8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敦煌漢簡1393

정리를 해본 결과, 홈이 파여있는 楊은 기본적으로 모두 實物楊에 속하며 홈이 있는 곳에 끈을 묶어서 물품에 첨부함으로써 꼬리표(標簽)의 기능을 하게끔 한다. 하지만 구멍을 뚫은 鑽孔楊의 경우는 약간 복잡하다. 里耶 秦簡 중의 상단에 먹칠하고 구멍을 뚫은 楊은 문서 꼬리표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馬王堆 漢簡이나 서북 漢簡의 상단에 먹칠하고 구멍을 뚫은 楊은 물

품 꼬리표로 많이 사용되었다. 격자무늬에 구멍이 뚫린 楊은 서북 간독에만 보이는데 이런 특수한 문식의 楊은 문서 꼬리표로서도 물품 꼬리표로서도 사용되어 변경의 물품을 표기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먹칠	격자무늬	공백	칸 나눔	비고
契口型	원형					
	다변형					倒置됨: 
	삼각형					
鑽孔型	원형	 1472				
	다변형	 2224			 148	
	삼각형	 1475				

## (5) 檄

檄에 관해서는 『漢書·高帝紀』 顏師古 注에 "檄者, 以木簡為書, 長尺二寸. 謂之檄, 用徵召也. 其有急事, 則加鳥羽插之, 示速疾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정세가 긴박할 때에 사용되는 徵召·曉諭 기능을 가진 긴급문서로 보여지고 있다. 그전에는 일종의 문체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간독의 출토 사례가 증가되면서 진한 시기의 檄은 흔히 札이나 兩行과 같이 사용된다는 것이 알려져 일종의 문서 형태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漢簡에는 板檄, 合檄, 楊檄 등 檄에 관한 여러 명칭이 보인다. 檄의 구체적인 형태나 板檄, 合檄과의 구분에 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크다.

檄의 형태에 관해서는 沙畹이 「紙未發明前的中國書」에서 최초로 언급하였다. 그는 『說文』 段玉裁 注에 의해 檄은 "尺二書"라고 했다.<sup>3)</sup> 王國維도 『簡牘檢署考』에서 檄의 형태에 대해 논술했는데 그는 『說文』 段玉裁 注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檄은 "二尺書"라고 하였다.<sup>4)</sup> 樓祖詒는 「漢簡郵驛資料釋例」에서 合檄은 편폭이 비교적 길거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친 것(合攏來)으로 보고 있다.<sup>5)</sup> 魯惟一 「漢代的一些軍事文書」에서 板檄은 1매의 木牘으로 된 檄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合檄은 함께 사용한 문서를 가리키며 2매의 목간에는 모두 글자가 쓰여 있다. 형태는 썩기형의 장부 또는 이와 비슷한 형태로 된 목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전송 과정에 흩어지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한다. 長檄은 막대 형태의 긴 것을 말하며 證書로 사용되었다.<sup>6)</sup> 連邵名은 「西域木簡中的記與檄」에서 板檄나 合檄은 모두 덮개를 덮어 封을 하고 날인해야 하며 다른 檄도 封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木牘에 서사한 檄의 사례도 있으며 檄은 徵召나 司法, 軍事에 사용되었다고 하였다.<sup>7)</sup> 於豪亮은 板檄은 일반적인 檄이고 나무판에 서사된 문서를 가리키며 위에는 나무판으로 덮지 않는데 이는 널리 열람할 수 있게끔 한 것이라고 하였다. 合檄은 비밀 문서이고 두 개의 나무판을 합쳐서 사용했으며 끈으로 묶은 다음 封泥를 하고 목간 위에 수신자 이름과 주소를 적어 封檢 역할을 했다. 檄은 적에 대한 선포, 군대 징집에 사용되고 군대 내의 긴급상황을 나타내거나 상급에서 하급에 지시를 할 때, 관리를 임명할 때에 사용되며 증명문서로도 사용되었다.<sup>8)</sup> 汪桂海는 「漢代官文書制度」에서 檄을 1.적을 토벌하는 檄; 2.發兵 詔書 및 천하 사람들에게 胡虜 투항을 알리는 詔書; 3.大將이 皇帝에게 군대 정세를 보고하는 章奏文書; 4.符傳으로 사용한 檄; 5. 郡縣 등이 급하게 發兵을 보고하는 檄; 6.官員 徵召·敕責·命令 下達 등에 사용한 檄의 6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李均明의 「秦漢簡牘文書分類集解」에서는 檄은 일종의 급한 사유가 있고 권고나 훈계, 경계 등 역할을 하는 비교적 과장된 문서 형식에 속하며 觚檄·合檄·板檄·羽檄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角谷常子は 「中國古代下達文書の書式」에서 檄에는 군사 정보 전송의 긴박감과 간편성의 두가지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檄은 그 형태가 觚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외에 兩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런 檄은 다

3) 沙畹, 「紙未發明前的中國書」, 『圖書館學季刊』, 1923年第5卷第1期, pp.47.

4) 王國維·胡平生·馬月華校注, 『簡牘檢署考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99年, pp.5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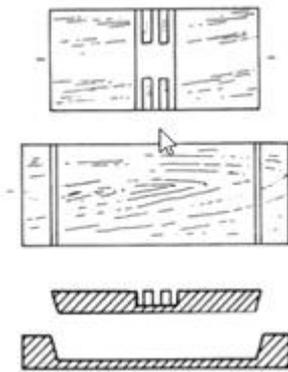
5) 樓祖詒, 「漢簡郵驛資料釋例」, 『文史』, 1963年第3輯, pp.138.

6) 邁克·魯惟一, 「漢代的一些軍事文書」,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戰國秦漢史研究室編, 『簡牘研究譯叢』,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年, pp.255-256.

7) 連邵名, 「西域木簡中的記與檄」, 『文物春秋』, 1989年第1期, pp.24-29.

8) 於豪亮, 「居延漢簡釋叢」,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戰國秦漢史研究室編, 『於豪亮學術文存』, 中華書局, 1985年, pp.180-181.

큰 글자가 없는 간독과 함께 끈으로 묶고 그 위에 주소를 적을 수 있다.<sup>9)</sup> 鄔文玲은 습檄의 형태가 長沙 東牌樓에서 출토된 한간 중 B型 封檢, C型 封檢에 유사하다고 보고 이런 계합되는 封檢이 습檄의 형태 또는 양식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sup>10)</sup> 何佳·黃樸華는 습檄을 일종의 비밀문서로 보고 'ㄱ'형 木牘과 썬기형 封檢이 서로 들어맞게끔 조합하고 이것을 끈으로 묶어서 고장한 후 封泥를 넣으면 하나의 완전한 습檄으로 된다고 하며 이것은 발송이나 전송 과정에 누군가가 뜯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1)</sup> 鷹取祐司는 『漢簡所見文書考』에서 檄은 문서 명칭이 아니고 일종의 서사재료이며 檄書는 檄 위에 문자를 서사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富谷至는 『檄書考』에서 檄은 서사재료와 문서 양쪽의 뜻을 갖고 있으며 觚의 형태로 된 경우가 많고 封泥匣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檄은 공개적인 것이며 눈으로 볼 수 있다. 기능은 주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행정문서를 확고히 하고 권위자의 의도를 각지의 관서에 알리고 명령을 전달하는 기능, 2. 비밀성이 있는 문서가 있는데 이러한 문서는 발송 과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각 관서에서 조종하고 제어하게 하는 기능, 3. 관서에서 공개한 檄은 민중에게 위협이 되므로 監督 효과, 시각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藤田勝久는 檄은 일반적으로 觚의 형태로 되어 있고 군사용일 뿐만 아니라 긴급한 정보전달과 軍書 전달에 한정되지 않으며 下行·平行·上行 문서에도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2)</sup>



(何佳·黃樸華가 습檄이라고 하는 것)

필자는 檄에 관한 인식은 출토 간독을 출발 시점으로 해야 하며 '檄'이 쓰여 있는 간독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북 한간을 보면 檄은 일반적으로 상급 기관에서 그 하급기관으로 되는 烽燧 조직에게 보내는 서사재료로서 사용되었으며 札이나 兩行과 함께 사용된다. 이로부터 檄은 札, 兩行과 형태가 다른 서사재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檄'이 쓰여 있는 간독은 흔히 다면체, 즉 觚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觚形 多面體가 檄의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간독은 종종 길이가 길고('二尺'에 부합) 각주형이며 여러 면에 서사할 수 있고 중간에 封泥 홈이 새겨져 있다. 한간의 사례를 보면 檄은 전송 과정에 회람을 하거나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되며 封泥는 주로 문서의 권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전송 도중의 기관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9) 角谷常子, 「中國古代下達文書の書式」, 『簡帛研究』, 2007年第1期, pp.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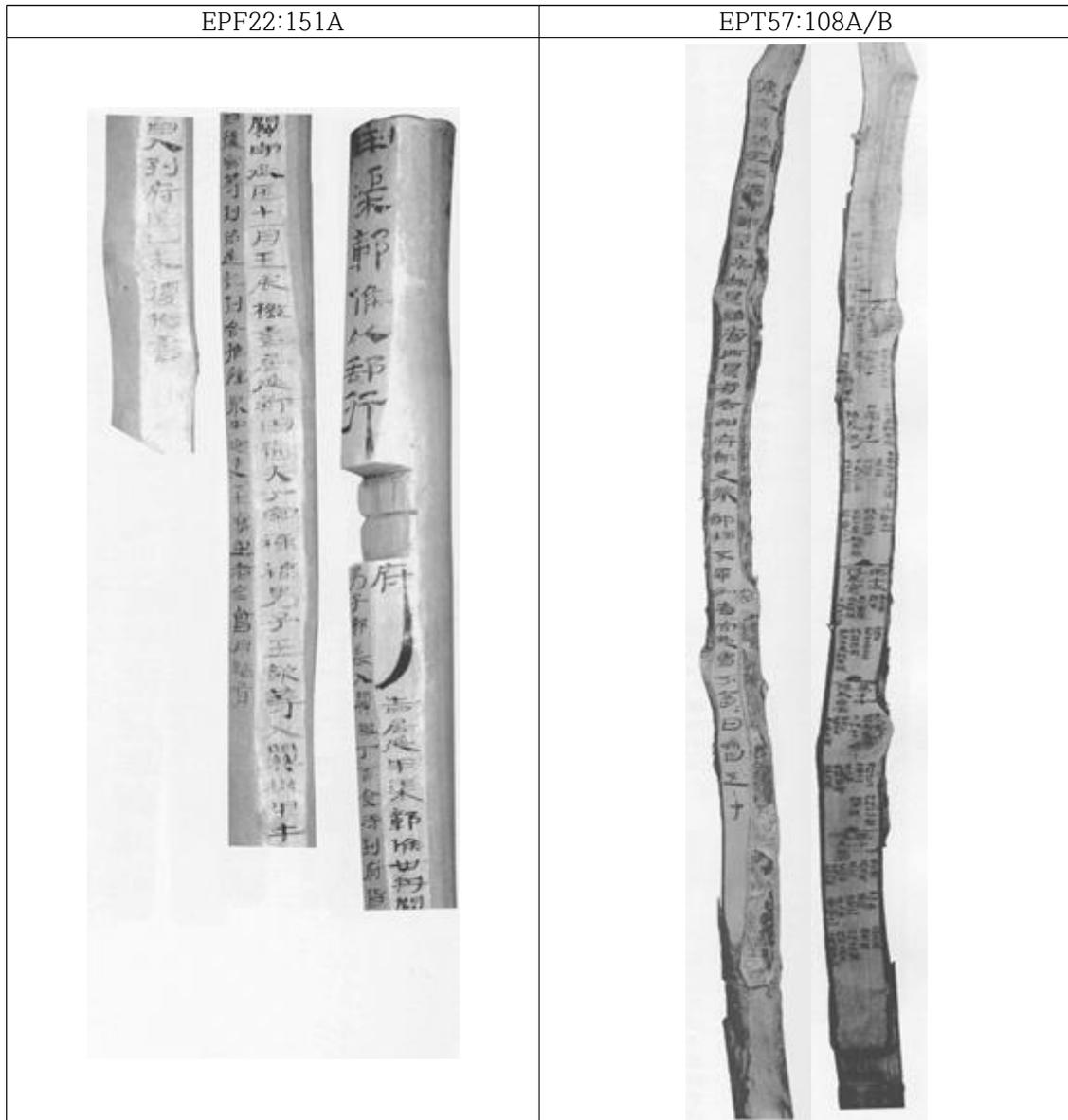
10) 鄔文玲, 「“合檄”試探」, 『簡帛研究』, 2008年第1期, pp.172頁.

11) 何佳·黃樸華, 「東漢簡“合檄”封緘方式試探」, 『齊魯學刊』(人文社會科學學報), 2013年第4期, pp.47.

12) 위의 일본 측 관점은 모두 藤田勝久, 「漢代檄의傳遞方法及其功能」, 張德芳編, 『甘肅省第二屆簡牘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上海古籍出版社, 2012年, pp.45-65에 의한 것이다.

하기에 이른바 ‘포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檄은 또한 내용에 따라 군대 정세를 전하는 驚檄, 通關 정보를 전하는 通關檄, 공개 비판의 의미를 갖는 行罰檄 등으로 나뉜다. 출토 자료 중의 檄은 주로 어떤 형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나 문자 자료 중의 檄은 내용이나 긴급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며 널리 알리는 공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구별은 당시 사람들의 檄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板檄과 습檄의 구체적인 형태 또는 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서북 한간의 습檄, 板檄이 郵書에 관한 기록에 보이나 ‘습檄’, ‘板檄’이라고 쓰여 있는 간독 실물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간의 습檄은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문서

로 보이거나 鄔文玲, 何佳가 지직한 바와 같이 꼭 ‘ㄹ’ 木牘과 썬기형 封檢이 결합하는 형태로 봐야 하는 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居延·敦煌 한간의 郵書 記錄에 ‘슴檄’이 흔히 보이거나 출토 실물을 보면 鄔文玲, 何佳가 지직한 그런 형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서북 한간의 郵書 記錄에 등장하는 ‘슴檄’, ‘板檄’의 빈도로부터 보았을 때 아주 드문 형태는 아닌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출토된 사례 중에 적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따름일 것이다. 또한 板檄, 슴檄의 檄는 그 형식적인 의미를 잃고 공문에 대한 개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6) 符

符는 신용 증빙서류로서 戰國 시기에 이미 흔히 사용되었다. 『墨子·號令』에 城을 지킬 때에 符를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吏卒 간의 信符도 있거니와 階門吏, 諸城門若亭이 출입시에 검사하는 符傳도 있다. 信陵君이 符를 훔쳐 趙나라를 구한 이야기를 통해 이미 부합하는 兵符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시대 秦나라의 杜虎符, 新鄴虎符와 성격이 일치하다.

형태와 내용으로부터 보았을 때 戰國, 秦漢 시기의 符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관공서 간에 신용관계를 나타내는 증빙 자료로 사용하는데 그 관공서는 동급 관계일 수도 있고 상하급 관계일 수도 있다. 두 번째, 符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두 곳에 나누어 두고 결합하는 것이다. 『說文』에 “符, 信也. 漢製以竹, 長六寸, 分而相合”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徐樂堯은 “슴하는 것을 信으로 하는 것은 符의 기본 특징이며 符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문헌자료에 符와 관련 있는 내용은 剖符, 슴符, 符會, 符合, 左券, 右券 등이 있고 슴, 會은 符가 증빙자료로서 사용되는 특징적인 방식이며 符節을 전송하는 璽印과 크게 다르다(후한시기, 魏晉 시기 이후에 契書와 封印에 같은 ‘信用’ 역할이 생겨 양자를 혼용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 재질이 나무인지 대나무인지 銅인지, 길이는 六寸인지, 刻齒가 있는지 절개를 하는지 등과 같은 점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기에 符의 정의를 할 때는 잠시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다.

서북 한간 중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符는 주로 관문을 드나드는 데 쓰이는 符로 刻齒가 있다. 肩水金關 漢簡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橐佗野馬隴吏妻子與金關關門為出入符 73EJT21:136

이 기록 내용을 보면 분명히 “出入符”라고 적혀 있다. 때로는 “出入關符”(예: 73EJT37:344호 간독) 또는 “入出符”(예: 73EJT37:1149호 간독)라고도 한다. 만약에 이 符가 出關할 때만 사용된다고 하면 ‘出關符’라고 해야한다. 예를 들어 甲渠候官에서 출토된 EPT59:796호 간독에는 “三月十日從居延還出關符”라고 쓰여 있다. 또한 출입하는 關塞의 명칭에 의해 某關符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73EJT37:1057B호 간독에는 “金關符”라고 쓰여 있다.

李均明은 符가 사용하는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의하여 關을 출입할 때의 符를 出入符와 吏及家屬符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出入符에는 文號만 적고 인명을 적지 않는데 이것은 한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사용하게끔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발급했으며 쓰고 나서는 반납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吏及家屬

符는 변경에 있는 관리의 가족이 關門을 출입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내용과 형태가 서로 다른 符를 序號符, 家屬符라고 칭하는 견해도 있다. 각종 吏家屬符는 肩水金關 지역에서 제일 많이 출토되는 符이며 이런 변경에 주둔하는 관리의 가족, 하인, 고용인 등이 金關을 통하는 符는 구체적인 명칭은 다르지만 符을 맞춤으로써 관리의 가족이 關을 출입하게끔 하는 성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吏家屬符의 형태나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李均明·大庭脩·黃艷萍 등 학자에 의해 논술된 바가 있다.<sup>13)</sup> 특히 郭偉濤는 서식에 의해 金關에서 출토된 吏家屬符를 다섯 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큰 성과를 얻었다.<sup>14)</sup> 하지만 郭偉濤의 분류와 분석은 주로 家屬符 간의 동시대의 비교가 이루어졌지만 肩水金關에서 출토한 吏家屬符에는 대부분이 연대가 명확하여 형태의 차이는 제작기관의 관습에 의한 차이뿐만 아니라 사용된 시기와의 관련이 있다고 본다.

유형	A	B	C1	C2	C3	C4	D	E
시대	昭帝時期	宣帝 早 中期	宣帝 後期(五 鳳四年)	元帝 初期 (初元 四年)	元帝~成 帝 前期 (初元四 年·永光 四年·建 始四年)	成帝 中後 期(陽朔三 年·永始 四年)	哀帝 時 期(建平 元年·二 年·三 年·四 年)	미상(宣 帝 時期 에 사용 했을 가 능성 있 음)
제작 시간	서사 하지 않음	서사 하지 않음	임시로 제작	正月預 作	正月預作	正月預作	正月預作	서사하 지 않음
유효 기	미상	미상	출입 정지	一年	一年	一年	一年	미상
通關 者에 관한 정보	서사 하지 않음	身份· 縣裏(일 부 간독 에는 차 나 말, 소에 관 한 기록 이 있음)	身份· 縣裏· 年色	身份· 縣裏· 年色	身份· 縣裏· 年色	身份· 縣裏· 年色	身份· 縣裏· 年色· 차나 말, 소에 관한 기록	身份· 縣裏· 年色(일 부 간독 에는 차 나 말, 소에 관 한 기록 이 있음)
符主 (吏) 에 관한 정보	서사 하지 않음	職名+姓 名	職名 (姓名은 아래칸 에 기재)	職名 (姓名은 아래칸에 기재)	職名+姓 名	職名+姓名 +“家族”	職名+姓 名+“家 族”	机构名 (職名은 아래칸 에 기재)

13) 李均明, 『漢簡所見出入符·傳與出入名籍』, pp.27-31; 大庭脩, 『漢簡研究』, pp.134-149; 黃艷萍, 『漢代邊境的家屬出入符研究——以西北漢簡爲例』, pp.74-78.

14) 郭偉濤, 『漢代的出入關符與肩水金關』, pp.96-125.

대 표 적 인 간 독								
	73EJT 24:19	73EJT2 6:27	73EJT 9:87	73EJT 30:62	29.1	73EJT37: 1007	73EJT3 7:758	73EJT3 7:759

### (7) 傳(過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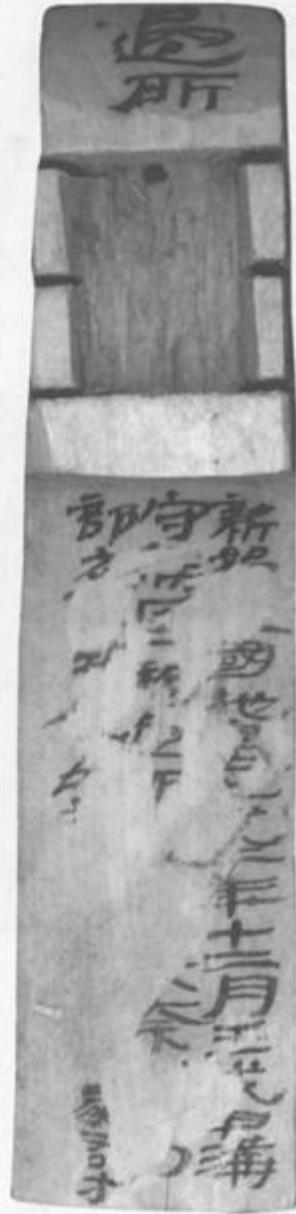
關을 출입할 때에 사용한 出入關符나 吏家屬符 이외에 漢나라 시기의 사람들은 외출할 때 신분증 또는 통행증 역할을 하는 傳(또는 過所라고 함)도 휴대해야 했다.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傳에 대해서는 王國維가 전세 문헌자료의 기록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又其次則為五寸，門關之傳是也。『漢書·孝文帝紀』：“除關無用傳。案傳信有二種。一為乘驛者之傳，上所雲“尺五寸”者是也。一為出入關門之傳，鄭氏『周禮』『注』所謂“若今過所文書”是也，其製則崔豹『古今注』雲：“凡傳皆以木為之，長五寸，書符信於上。又以一板封之，皆封以御史印章。此最短之牘也。此二者一為乘傳之信，一為通行之信；一長尺五寸，一長五寸；一封以御史大夫印章，一封以御史印章。（王國維著(胡平生·馬月華校注)，『簡牘檢署考校注』，上海古籍出版社，2004年，PP.57-58)

王國維가 말하는 “關門之傳”이 바로 傳 文書이다. 이러한 傳 文書의 抄本은 肩水金關유적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나 封泥 흠을 가진 封緘 원본은 아주 드물다.

傳 원본의 형태가 어떠한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破城子 A8유적 출토 간독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過所

新始建國地皇上戊二年十二月壬戌甲溝

守候長移過所……奈□□

部卒……

捺尋

(檢)

EPT59:677



元始元年九月丙辰朔乙丑甲渠守候政移過

所遣萬歲隊長王遷為隊載惡門亭

塢辟市里毋苛留止如律令

一捺

EPT50: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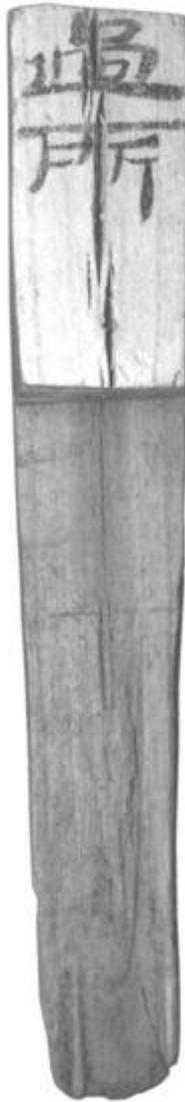
過所 便休十五日門亭毋河留如律令(檢) EPF22:69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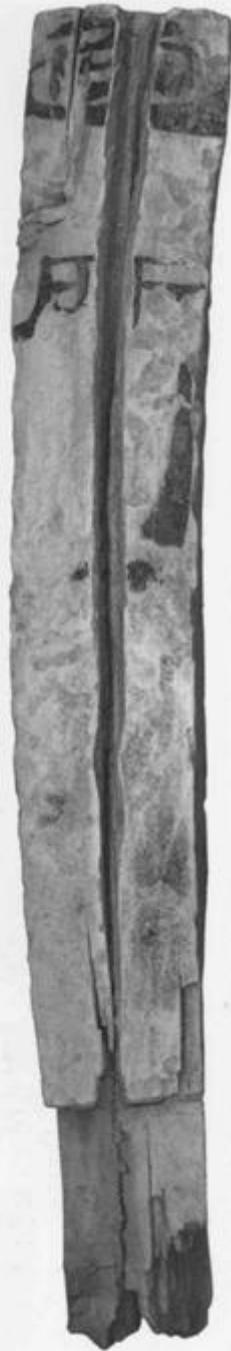
建武八年十月庚子甲渠守候良遣臨木候長刑博(檢) EPF22:698A



175.20A 過所



267.29 過所 □



이상 5매의 간독은 첫 번째 간독이 상단에 무엇도 적혀 있지 않은 외에 나머지 4매의 간독에는 모두 “過所”라는 두 글자가 머리 부분에 쓰여 있다. 『漢書·文帝紀』의 張晏 注에 보이는 “傳, 信也, 若今過所也”라는 기록을 참고로 하면 過所는 곧 傳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5매의 간독을 보면 첫 번째 간독에는 “過所”가 보이지 않고 글자는 모두 비교적 큰 홈 안에 쓰여 있는 듯 하다. 崔豹의 『古今注』 기록에 보이는 “凡傳皆以木為之……書符信於上. 又以一板封之, 皆封以御史印章.”과 같이 사용했다면 홈을 나무판으로 봉해야 할 것이다. 다른 4매의 간독은 머리 부분에 모두 “過所” 두 글자가 보이는데 이 글자가 밖에 노출되어 있기에 封泥 홈 안에 封泥를 두고 날인함으로써 封印했을 가능성이 크다.

### (8) 券·劵

券이나 (傳)劵은 符와 마찬가지로 검사 및 계합을 통해서 신용 관계를 증빙하는 간독의 한 형태이며 채무나 납세 등의 증명 자료로 사용된다. 『說文』에는 “券, 契也. ……券別之書, 以刀判契其旁, 故曰契券.”이라고 적혀 있고 『周禮·天官·小宰』에는 “職稱責以傳別.”이라고 적혀 있으며 鄭注에는 “傳別, 謂大手書於一札, 中字別之.”라고 적혀 있고 『釋名·釋書契』에는 “劵, 別也, 大書中央, 中破劵之也.”라고 적혀 있다. 李均明은 『簡牘文書學』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簡牘에 보이는 단지 ‘券’이라고 하는 것은 측면에 刻齒가 있다는 점에서 符와 같으나 길이가 꼭 六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 범위가 符보다 넓다. 買賣나 借貸, 授受 등에 사용된다.” “符券類는 계약문서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같은 것을 동시에 여러개 작성한다(적어도 두건). 이와 같이 동시에 제작된 같은 내용의 문서는 契刻 부호를 추가하거나 선 또는 글자를 부합의 표지로 보고 신용 관계를 증명한다. 契刻 부호를 사용하는 것을 흔히 契券이라고 하고 선이나 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흔히 傳別(또는 劵)이라고 한다. 漢簡의 경우 券의 제작 방식은 符와 유사하며 간독 양면에 같은 내용의 글자를 서사하고 측면에 刻齒(형태가 다름에 따라 다른 수량을 나타낸다)를 새긴다. 그리고 세로로 두 개로 나누어 左券, 右券으로 칭하며 채무, 채권자가 각자 소유하게 된다. 채권자가 채무를 받을 때, 쌍방이 券을 대조하고 齒를 맞춘다. 이런 刻齒가 있는 채권은 서북 한간, 특히는 居延·敦煌 漢簡에 많다. 한편 傳別(劵)은 1매의 비교적 넓은 木牘을 좌우로 대칭되게끔 같은 내용(출입 물품, 借貸 물품 또는 납세에 관한 내용)을 서사하고 중간에 크게 “同”자를 적는다. 그리고 “同”자 가운데를 지나가게끔 간독을 자르고 출입 쌍방이 하나씩 가지게 된다. 채무를 종료할 때에 “同”자의 필체, 필획 또는 자른 면이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증빙 자료로 한다. 新疆 樓蘭 尼雅에서 출토한 문서에는 이러한 “同”자가 적힌 傳劵이 많으며 三國시기 走馬樓吳簡 嘉禾吏民田家劵도 이에 해당한다.

### (9) 柿

柿는 削衣라고도 한다. 簡牘 내용을 수정하거나 간독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표면을 깎을 때 생기는 문자가 있는 얇은 조각(薄片)을 가리킨다. 『說文·木部』를 보면 “柿, 削木札樸也”, “樸, 木皮也”라고 기록되어 있어 柿는 나무의 표면을 깎아낸 얇은 조각(薄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簡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깎아낸 것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작고 문자도 적다. 한편, 서사재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간독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깎아낸 것은 문자가 비교적 많고 자료

가치가 크다. 서북 변경 지역은 서사재료가 비교적 귀중하기에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출토되는 削衣도 비교적 많다. 예를 들어 1977년에 玉門 花海에서 출토된 90여매의 간독 중 削衣는 61매이며 판독이 가능한 문자는 적어도 1자, 많아서는 8자가 된다.

## Ⅱ. 20세기 이래의 簡牘 문서 형태에 관한 주요 연구성과

20세기 이래, 약 60000매의 서북 관문서 간독이 출토되었다. 그 내용은 漢代의 敦煌郡, 居延·肩水 都尉府 등 변경 지경의 행정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한대의 국가 통치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간독의 형태는 출토 초기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王國維가 1912년과 1914년에 쓴 『簡牘檢畧考』과 『流沙墜簡·屯戍叢殘考釋』에는 檢·檄 등 형태에 대해 논술되어 있는데 그 영향은 아주 크다. 그후에 居延, 懸泉 漢簡 등 자료가 출토됨에 따라 서북 관문서 간독 형태 또는 그 명칭에 대한 연구는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관문서 간독 형태 또는 그 명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래의 다섯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첫 번째, 간독 제작, 형태, 編聯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간독은 유물의 속성도 갖고 있기에 그 형태와 제작 방식도 주목받게 된다. 勞榦은 저서 『居延漢簡·考證之部』에서 “簡牘之製”, “公文形式與一般制度”라는 제목을 설치하고 封檢 형식, 檢畧와 포고문, 版書, 符券, 계약증서(契據), 간독 편련 제도, 詔書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연구하였다. 1959년에 출토한 武威 磨嘴子漢簡에 관해서는 陳夢家的 『由實物所見漢代簡冊制度』에 재료, 길이, 편련 등 시점에서 간독 제도를 정리하였다. 그후, 馬先醒의 『簡牘通考·質材形製考』, 『簡牘形製』, 駢宇騫의 『簡帛文獻概述』, 程鵬萬의 『簡牘帛書格式研究』 등 논저도 간독 형태에 관해 체계적인 분류를 하였다. 최근에는 侯旭東의 『西北所出漢代장부冊書簡의排列與複原』, 馬智全의 『從簡冊編繩看漢簡冊書編聯制度』 등 글이 새롭게 발견된 편철 간독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하였다. 장부 등 관문서의 편철 순서, 방법, 원칙을 검토하고 간독 편련에 관한 일부 난제를 해결했다. 馬怡의 『扁書試探』에서는 간독 편련 방식을 분석하고 공고 역할을 한 扁書와 보통 편련 간독의 차이점에 대해 논술했다.

두 번째, 간독 길이의 규격에 관한 검토. 王國維에 의해 “倍數·分數說”이 제기된 이후로 간독의 길이에 규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독 형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화제로 되었다. 傅振倫·陳夢家是 居延·武威 漢簡으로서 王國維의 설을 계승했다. 馬先醒, 劉洪石 등 학자는 王國維의 설에 대해 의문시하기 시작했으며 간독의 길이에 규격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되었다. 李學勤은 발전적인 관점에서 간독의 길이를 논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한나라 시기 초기에는 체계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 胡平生은 『簡牘制度新考』에서 100년 이래의 간독 길이 규격에 관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간독을 종류별로 나누고 성격, 시대에 따라 분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策의 크기를 書의 尊卑로 한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연구를 크게 추진시켰다.

세 번째, 檢·檄·符·券 등 특수 간독의 형태에 관한 주목. 勞榦·陳直·何智霖·薛英群·高榮·楊振紅·黃艷萍·袁延勝·郭偉濤·藤田勝久 등 학자는 符·傳의 고찰을 통해 漢代의 通關 제도에 관한 연구를 추진시켰다. 특히 鷹取祐司의 『秦漢官文書の基礎的研究·漢代官文書の種別と書式』은 符를 분해하는 符와 분해하지 않는 符로 나누고 傳은 도중에 개봉하지 않는 傳과 반복적으로 개봉하는 傳으로 분류하여 符·傳의 형태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李均

명의 『封檢題署考略』는 문서 封檢 연구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簡牘缺口與印信』에서는 “以印為信” 간독의 특수한 형태에 주목하여 그전에 학계에서 주의하지 못했던 “缺口” 간독을 찾아냈다. 邢義田·胡平生·昝山明 등 학자는 出入券 刻齒의 구체적인 형태 및 그 의의를 분석함으로써 漢代의 물자 관리 연구를 심화시켰다. 張俊民의 『敦煌懸泉漢簡刻齒文書概說』은 懸泉漢簡에 보이는 물품 출입, 田畝, 馬匹, 계약과 관련있는 각종 刻齒를 전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過書刺” 刻齒를 발견하게 되어 관련 분야의 연구를 깊이있게 하였다. 大庭脩는 漢簡의 문서 형태로부터 편철간을 복원하였고 檄書와 檢, 符와 致의 형태 특징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陳直·樓祖怡·連劭名, 영국 학자 魯惟一, 일본 학자 角谷常子·鷹取祐司는 모두 檄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藤田勝久의 『漢代檄的傳達方法及其功能』, 富谷至의 『檄書考』는 檄에 서사재료와 문서 양측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포고문(露布)으로서의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於豪亮·鄒文玲·何佳·黃樸華는 合檄에 관한 연구를 추진시켰다.

네 번째, 간독 형태와 관문서의 분류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서 분류는 문서 제도의 기본 내용으로 된다. 勞榦의 『居延漢簡·釋文之部』는 文書를 書檄·封檢·符券·刑訟으로 분류하고 간독 형태로서 문서를 분류하는 방법을 개척했다. 何雙全의 『居延漢簡研究』는 관문서의 분류에 “簡牘形式”類를 넣어 7000여매에 달하는 甲渠候官에서 출토된 居延新簡을 四類七種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簡·牘·觚·檢·緘·簽·籌 등 형태가 지닌 의미와 길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로 자료성이 강하다. 李均明·劉軍의 『簡牘文書學』, 李均明의 『秦漢簡牘文書分類輯解』, 汪桂海의 『漢代官文書制度』는 모두 간독 관문서의 분류를 중요시하고 내용을 주요 분류 기준으로 하는 동시에 檢, 檄, 符, 券, 檄, 傳 등 특수 형태가 지니고 있는 文書學적 의의를 논했다. 李天虹의 『居延漢簡장부分類研究』는 주로 장부簡을 분류했지만 出入券齒, 檄, 符, 傳, 致 등 通關 문서의 형태에 대해서도 논술했다.

다섯 번째, 간독 형태에 주목하여 漢代의 행정 운용을 검토하는 것은 간독 형태에 관한 연구가 발전해 나갈 연구 방향이다. 간독 형태는 관문서의 기능과 사용 연구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 간독의 사용 방식으로부터 기층의 행정 운영 규율을 탐색하는 좋은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다. 張德芳의 『懸泉漢簡中的傳信簡考述』은 懸泉漢簡 중 公務에 사용된 傳의 형태, 분류, 사용에 관하여 전면적인 연구를 했다. 侯旭東의 『西北漢簡所見“傳信”與“傳”』은 公務에 사용된 傳의 정리를 통하여 황제가 국가 통치를 함에 있어서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간독 관문서를 이용한 일상 통치사 연구의 모범적인 논저라고 할 수 있다. 孫寧의 『從金關漢簡私傳申請程序簡化看西漢後期縣尉職能的弱化』는 通關 절차에 관한 검토로부터 기층 행정 기구의 기능에 대한 조정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角谷常子の 『論簡牘形狀的意義』, 邢義田의 『漢代簡跡公文書的正本·副本·草稿和簽署問題』에서는 간독 형태와 문서 성격의 대응 관계에 대해 논해 간독 형태 연구의 영역을 넓혔다. 昝山明, 佐藤信이 엮은 『文獻と遺物の境界』에서는 관문서 간독의 제작, 폐기, 재활용 및 행정 운영의 관계에 대해 검토했다. 그중 青木俊介의 「封檢の形態發展」, 山中章의 「匣付木簡の製作技法と機能に関する一考察」은 封檢, 封泥匣 등 형태의 제작, 형태 변화와 행정 관리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 Ⅲ. 서북 문서 簡牘 형태의 연구에 남아있는 주요 문제

100여 년의 연구 축적에 의해 간독 형태와 문서 행정, 국가 통치의 관계는 점차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도 있다.

첫 번째, 서북 관문서 간독의 길이, 너비의 규격에 관한 연구가 불충분하다. 간독의 길이 규격에 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書籍簡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公文·장부 등 文書 목간의 길이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전면적인 통계나 심도 있는 분석은 아직 결핍한 상황이다. 간독의 너비, 行數와 서사된 문서 내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관문서, 또는 종류가 같으나 텍스트 형식이 다른 부류, 같은 기구의 관문서인데 너비, 行數, 서식이 다른 부류에 대해 연구가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두 번째, 檢·檄·券·符·傳 등 특수 형태의 간독 연구가 비록 비교적 많은 성과를 이루긴 했으나 일부 형태의 기능,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檢과 檄의 차이, 檢과 檄의 관계, 合檄의 특징, 산가지(算籌), 記의 종류와 구체적인 형태, “以印為信” 缺口簡의 사용 방식 등 문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많다.



(EPT52:88호 간독)

세 번째, 구체적인 간독 형태의 명칭에 대해서도 전세 문헌자료와 출토 문자자료 중 간독에 기록된 명칭의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여지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檄은 전세 문헌자료에는 일종의 문체, 문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居延·敦煌 漢簡에서는 주로 札, 兩行과 관련된 간독 형태의 하나를 가리킨다. 이러한 차이점은 특수한 형태의 간독 명칭을 정하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네 번째, 현재의 연구는 흩어져 있는 상황이며 지역과 시기를 불문하고 거시적인 시점에서 비교 연구한 연구가 비교적 적다. 서북 관문서 간독에 있어서도 형태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문서 간독 전체의 형태나 변경 지역의 행정 운영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부족하다. 행정 운영은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이며 다양한 종류의 관문서의 종합적 사용에 의해 실현된다. 어느 한 형태의 관문서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관문서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문서 제도나 행정 관리 제도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섯 번째, 현상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규율이나 이론 탐색이 부족하다. 간독 형태로서 기능이나 사용 방식을 논하는데 만족하고 국가 통치 방식이나 행정 운영 방식의 이론 탐색이 부족한 것이다. 侯旭東은 傳信簡에 관한 연구를 한나라 君臣의 일상적 업무 분업과 詔書 律令의 역할을 논한 연구로 심화시키고 그 속에서 일상 통치사 등에 관한 이론적 패러다임을 추려냈는데 이러한 연구는 아직 너무 적다.

이상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문서 행정과 국가 통치의 시각에서 서북 漢代 관문서 간독의 형태, 기능, 사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국가, 특히 변방의 통치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연구내용은 간독 길이·너비·편철 규제와 관문서의 성격·유형과의 대응 관계, 檢·檄·楮·符·傳·券 등 특수한 형태의 간독 문서와 행정 기능, 사용 방식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간독 형태로 접근한 관문서 제도·通關 제도·물자관리 제도와 변경의 행정 운영 연구를 중요시해야 한다. 그럼 檢·楮·檄·符·傳·券 등 특수한 형태의 간독이 사용된 방식과 이 사용 방법이 기층에서의 행정 운영, 변경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낼 수 있게 된다. 또한 간독 형태로부터 서북 변경 지역의 정보 전달, 정무 考課, 물자 관리, 통관 제도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20 世纪以来西北汉代官文书简牍形制研究述论

李迎春

(西北师范大学简牍研究院, 中国兰州 730070)

文书行政是秦汉国家治理和日常管理的基本形式。以简牍为主要载体的官文书是维系国家行政运作, 保证政令畅通的纽带。由于行政功能差异, 不同性质官文书简牍的形制和使用方式也各具特点。20 世纪以来, 西北汉简大量出土, 官文书简牍形制多样, 不仅存在长、宽、厚度差异, 更有许多特殊形制。探索西北不同形制简牍官文书的性质、功能、制作、使用情况, 有助于汉代国家治理、行政运作, 尤其是边疆治理研究, 具有重要价值。

简牍形制即简牍的形状规范。每种不同形制的简牍有不同的名称。《说文解字》《周礼》《论衡》和《史记》《汉书》等传世文献中就有简、牍、札、牒、检署、楬不同关于简牍形制的称谓, 并有所解释。20 世纪, 随着简牍的出土, 王国维、劳榘、陈梦家等学者开始利用传世文献对不同形制的出土简牍实物予以命名, 简牍的命名问题逐渐成为简牍学的重要课题。随着出土简牍实物的日益丰富, 人们发现出土简牍本身也有对某种形制简牍的称谓, 甚至个别特殊形制的简牍还存在自称(如符、过所), 而这些信息有的能够与传世文献印合, 有的则可以补充传世文献的说法, 有的则与传世文献中的某些说法存在抵牾, 但无论如何, 都在某种程度上推动了对简牍形制与命名问题的深入。本文首先拟结合近年来的研究成果, 大体谈一下关于某些简牍形制命名的基本问题。

## 一、 官文书简牍的主要形制

### (一) 简和牍

与后文要提到的各种有特殊用途的特殊形制简牍不一样, 我们首先来看一看作为一般书写载体的简和牍。最常见的简牍是相对规整的平面呈长方形的竹、木薄片、薄条, 这种未经过特殊加工的规整薄竹、木条(片), 作为简牍的一般形态, 一般被称作简或牍。作为竹木书写载体泛称的“简牍”一词即源于此。关于“简”和“牍”的区别, 学界有不同看法。有人认为是材质不同, 简“竹”字头, 为竹质; 牍以“判木”之“片”为偏旁, 为木质。清代学者段玉裁即称“简, 竹为之; 牍, 木为之”。但也有学者认为应以形态区分: 呈细长条形, 可书写一两

行字者为简；幅面较宽，可书写多行字的为牍。笔者认为，两种观点看似有别，其实是统一的。竹、木由于材质不同，制作成为简牍的方式也不一样。对于空心的“竹”，制作时需要“截竹为简，破以为牒”，将竹子截为竹筒，再剖为简条。由于竹筒有弧度，而书写需要平面，故简条显然不宜过宽，越窄书写面越平，越便于书写。对于实心的“木”，制作方法是“断木为椴，析之为板”，将木头锯成长度和厚度符合规格的木板，然后裁成一定宽度的木片（条），在此过程中，长宽厚皆可随心设计，并无材料约束，为方便计，可做成容字较多、裁割工序较少的稍宽的木片（条）。因此，从材质出发，简早期可能主要指较窄的竹条，用于编联书写字数较多的书籍，而牍则主要指较宽的木片，用于各种实用文书的书写。到了战国秦汉之后，书写内容越来越多，各个地区因地制宜选择书写材料，简、牍之别，更侧重于宽窄，因此才会出现《说文·竹部》“简，牒也”的说法，用“片”旁的“牒”字解释“竹”旁的“简”字。

“简”“牍”之别，存在着一个由材质之别向宽度之别变化的过程。这个变化，在一定程度上体现了秦汉人从宽度角度对一般形制简牍的规范。从传世典籍和出土文献来看，战国秦汉时期的简牍由于宽窄不同，大概有简、札、牒、两行、牍、方、册等称谓。一种是只能容一行字的较窄简牍，一般被称作简、札、牒。孔颖达说：“单执一札谓之简”，颜师古称：“小简曰牒”。从出土实物来看，一般宽0.3-1.5厘米间，湖北地区出土的竹简大概0.5厘米左右，西北地区出土的木简大概1厘米左右。可并排书写两行字的简牍，在汉简中被称作“两行”，主要用于抄写通行公文，与“札”一样是汉代西北地区最常用的书写载体，从出土实物看，宽度在2.5厘米左右。可书写超过两行字的简牍，即为“牍”，《论衡·效力》称：“书五行之牍”。牍，西北汉简常写作“椶”，也称作“版（板）”。

《说文·片部》：“牍，书版也。”孔颖达称：“牍乃方版，版宽于简，可以并容数行。”宽度接近方形之版牍，又称“方”。《仪礼·既夕礼》：“书赠于方，若九，若七，若五”，郑玄注：“方，板也。每板若九行，若七行，若五行。”可书写五行以上乃至九行文字。睡虎地秦简《秦律十八种·司空》中有“毋方者乃用版”的规定，可见时人使用时对“方”和“版”还是有一定区分的。出土简牍实物中的牍，由于书写行数不同，宽度差异也较大。既有3厘米左右者，也有10厘米左右者。与单札、牒相比，可写数行字的牍显然容字较多，但牍一般不编

联，因此与编联成册使用的简牒相比，其容字反而为少。《仪礼·聘礼》称：“百名以上书于策，不及百名书于方”，其中的“策”为“册”字通假，是编连诸简之意。

总体来说，汉代一般形制的简牍，可根据宽度分为简（札、牒），两行、牍（版）三种。其中简、两行可编连成册使用。牍一般不编连，单独使用，其书写行数尤多者，又称为“方”。

## （二）检

检，又称“封检”。《释名·释书契》：“检，禁也，禁闭诸物使不得开露也。”《急就篇》载：“简札检署槩牍家”，颜师古注：“检之言禁也，削木施于物上，所以禁闭之，使不得辄开露也。署谓题署其检上也。”由此可知，检的主要功能是“封缄”。由于封缄之后往往需要在其上题署，故那种可以题署较多文字、带有木板的“检”又称“检署”。《说文解字》载“检，书署也。”其实就主要从“署”的角度解释检。徐锴《说文解字系传》中进一步注解为：“书函之盖，玉（三）刻其上，绳缄之，然后填以泥，题书其上而印之也。”近代以来，王国维《简牍检署考》最早注意到“检”，指出书牍之封缄法，则于牍上复加一板，封缄方式大概曰如，封物之上，“于牍上复加一版，以绳缚之……其所用以封之板，谓之检。既施以检，而复以绳约之，以泥填之，以印按之，而后题所予之人，其事始毕。”此后，王献唐在《临淄封泥文字叙目》一文中较为详尽的阐述了官文书的封缄方式，谓“牍面复加一板如盖，以绳约之，板谓之检，大小与牍同度，用护字文，检刻绳道三行，藉通组内，于中复凿方槽，内贯绳道，方槽谓之印齿，又名印窠，用时以检覆读，绳从道内周匝束结于槽中，绳上加丸泥，钤以印文，泥与绳检遂封结一体，再于检上题识事由或收受之人，谓之曰署，而全功已毕，他人欲窥牍文，必先启绳检，启印则泥变动，所以明信守防奸仇也。”

“检”本意指可以用来封禁物品的封泥槽。由于封缄后的物品为了传递或提示的原因，一般需要题署，故人们往往将封泥槽制作在较宽大的木板上以便在封泥槽之外题署文字。这种带有封泥槽且可以题署较多文字的检板近代以来出土较多。《说文》中的“检”主要即指后者，同于《急就篇》中的“检署”。《汉书·武帝纪》载：“夏四月癸卯，上还，登封泰山。孟康注曰：‘王者功成治定，告成功于天。封，崇也，助天之高也。刻石纪号，有金策石函金泥玉检之封焉。’”《汉

书·王莽传》载：“梓潼人哀章，学问长安，素无行，好为大言。见莽居摄，即作铜匱，为两检，署其一曰“天帝行玺金匱图”，其一署曰“赤帝行玺某传予黄帝金策书”。某者，高皇帝名也。”《后汉书·公孙瓒传》记载：“逼迫韩馥，窃夺其州，矫刻金玉，以为印玺，每有所下，辄皂囊施检，文称诏书。”这三条史料中分别涉及到了汉代封禅所用玉检、哀章为王莽即位所做的铜匱之检以及正常用于公文下发的诏书检，实质上应该都是“检署”，也就是我们说的“检板”。近世简牍材料中，有大量与封缄相关的材料，仅有封泥槽的检和检板都有出土。

“检板”的形制主要是在一平板木简（较宽，一般在3厘米左右）上施加封泥槽（或凸出，或凹槽），在槽外检板上题署各种信息。如果是文书封检，往往题署收信机构、传递方式、起送时间。实物封检则主要是题署封缄物品名字数量等。

由于检署需要覆盖、题署、封印，故检一般木质、稍宽、有封泥槽。使用时，将检覆盖在或装于书囊中或仅是卷成册状的简牍文书上，然后用绳索将收纳好的文书简牍与检捆扎为一体，打绳结于槽中。为防止传递途中被拆封泄密，寄信人在检的槽中要塞上湿泥，然后拓印章于湿泥上形成“封泥”。张家山汉简《二年律令》规定：“诸行书而毁封者，皆罚金一两”，并规定传递过程中出现“封毁”的情况时，传递机构需要申请当地县令或县丞的印“更封”。居延汉简文书传递记录中常有关于“封破”的记录，指的就是传递过程中封泥被损坏的情况。这时往往需要按照规定在原有封泥旁重加封泥并盖印，这种再次封印的封泥在简中被称作“旁封”。

从出土实物看，有的封检制作精美，“三刻其上”，如长沙五一广场东汉简郎中隋宣致“临湘令殷君门下”封检。也有制作较为粗糙，只是在木板上削出一个封泥槽者。封泥槽有凸出木板者，也有在较厚的木板中挖出凹槽者。不管怎么制作，有封泥槽的封检都需要以较厚的木板为原材料，故检材往往大于普通简牍甚至檄材，居延新简载“检材五，当檄十”，两件制作檄的原材才能制作一个封检。关于检署的具体形状，谢雅妍在《从长沙出土东汉简牍看“封检”类文书的形制与转变》一文根据木板与封泥槽的形态对检进行了分类<sup>①</sup>，计有斗形检（侧面呈斗状的检，封泥匣突出于牍身，行书资料写在长牍上）、楔形检（只有一个坡面，

<sup>①</sup> 谢雅妍：《从长沙出土东汉简牍看「封检」类文书的形制与转变》，黎明钊、马增荣、唐俊峰编：《东汉的法律、行政与社会：长沙五一广场东汉简牍探索》，三联书店（香港）有限公司，2019年。

剖面如楔形的检，侧面来看明显一端较厚，一端较薄。另一特征是其正面上下宽度同，呈方正状）、扇形检（剖面与楔形检相似，只有一边坡面，唯其正面则上窄下宽）、火山形检（两端呈坡状，正中间为封泥匣）和“一字形”“三字形”“工字形”“王字形”槽等。



（斗形检，《长沙五一广场东汉简牍选释》CWJ1③：133）



（楔形检，《居延汉简》3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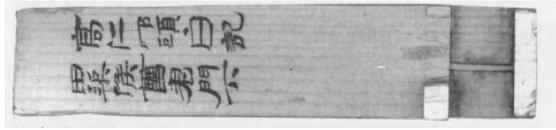
（扇形检，《居延汉简》1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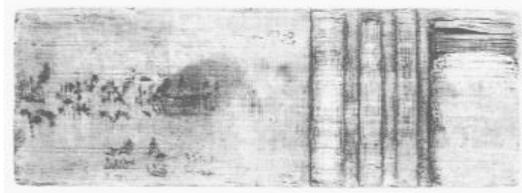
（火山形检，《居延汉简》8.4）



（一字形槽，《里耶秦简（贰）》9-3422）



（工字形槽，《居延新簡》EPT40:7）



（三字形槽，《东牌楼简》26）



（王字形槽，《长沙五一广场东汉简牍选释》CWJI③：133）

仅有可以容纳封泥的槽而没有多余检板的“检”，学界大多称其为封泥匣（也有学者将其称为短检）。<sup>①</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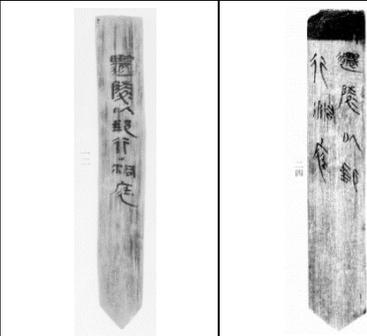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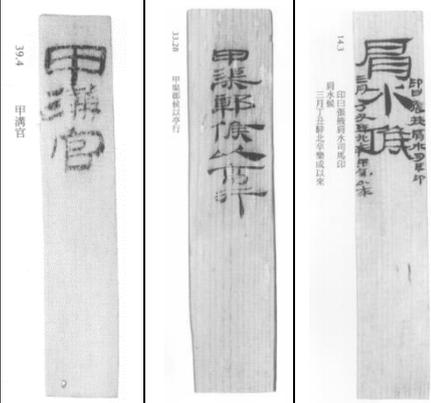
此外，还有一种与以封缄、传递文书为主要功能的文书检板形制、题署内容相似，但没有封泥槽的木板，何双全将其称为“缄”，李均明将其称为“函封”，孙慰祖将其称为“平检”，青木俊介将其称为“平检”或“平板检”，富谷至称之为无封泥匣的检。笔者认为，封缄是“检”的最核心特征，这种没有封泥槽的木板，由于单独不具备封缄功能，是不应该被称作“检”的，上述诸说中似以李均明“函封”说较为科学。而关于这些函封的使用方式，大家的看法也不一致。有认为是与封泥匣配合使用的，以函封题署，指示文书传递的方向、方式，以封泥匣封禁。两者配合使用的目的可能是为了便于难以制作、耗费板材的封泥槽的循环利用。也有认为当时存在个别制作粗糙的封检，封泥可直接附着于木板上，不用以封泥匣再加固定，这种函封就是可以直接附着封泥的木板。也有个别学者认为，今天见到的函封本身是带有封泥槽的，只是因为某种原因，封泥槽被锯掉而成为了今天的样子。

<sup>①</sup> 个别封泥匣的边框上也有题署文字，如里耶秦简中就有一些题署信息比较完善的不附着于检板的单独封泥槽上，说明当时可能也存在只用封泥槽来封缄某些特殊文书的情况。

检除了可以封禁文书外，还可以封禁其他物资，以封禁其他物资为目的的封检被称作“实物检”。“实物检”上往往题署所封禁物资的名字、数量，有的还会题写所有人姓名，主要用于收藏、存储，避免物资被盗窃、掉包。居延汉简实物检以封禁衣囊的“衣囊检”最多，有的衣囊检上会详细写下封缄的衣囊中收藏的各种衣物的数量，并书以不同笔迹的钩校符号，反映了不同时段衣囊所有人对所封缄衣物钩校核查的情况。除了衣囊检外，实物检还有封缄兵器、钱、牛肉等各种物品者。甚至敦煌马圈湾出土有封缄“驴”的实物检，其使用方法应该是以长度恰到好处的绳索不松不紧地套在驴的颈部，然后打结、封印于检中，避免驴被掉包。

总之，封检就是简牍时代起封缄作用的简版，其用途多样，形制丰富，使用方式也各具特色。围绕封检，至今仍有一些未完全解决的课题，如简牍记载中的“牛头检”“偃检”的具体形制、使用方式，目前还没有定论。

附：表 1 函封形制资料表

型	式	数量	出土地点	长宽厚 (cm)	图版		
A	I	51	里耶古城遗址一号井	长：8.0-23 宽：0.7-2.8			
A	II	403	额济纳河流域破城子、额济纳河流域肩水金关遗址、额济纳河流域地湾遗址及其	长：13.3-23.1 宽：1.6-3.8 厚：0.2-1.4			

			他汉代烽燧 遗址、长沙 五一广场长 沙五一广场				
--	--	--	----------------------------------	--	--	--	--

表 2 封泥匣形制资料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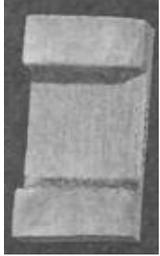
型	式	数 量	出土地点	长宽厚 (cm)	图版	
B	I	14	里耶古城遗 址一号井	长: 4-5 宽: 2-3 厚: 1-3		
B	II	186	里耶古城一 号井; 河西 疏勒河流域 汉塞烽燧遗 址; 额济纳 河汉代烽燧 遗址	长: 2.6-5.6 宽: 1.2-4.5 厚: 0.8-3.3		

表 3 封检形制资料表

型	式	数 量	出土地点	长宽 (cm)	图版
---	---	--------	------	---------	----

C	I	4	A8 破城子 肩水金关	长：9.4-15.15 宽：2.4-3.4		
C	II	24	A33 地湾、 A8 破城子、 P9 肩水金关 敦煌 额济纳旗卅 井候官次东 隧	长：11.8-25.5 宽：1.4-3.8		
D	I	8	甲渠第四隧 A8 破城子 肩水金关	长：12.3-31.2 宽：1.6-5.4		
D	II	3	A8 破城子 肩水金关	长：11.1-22.6 宽：1.4-3.0		
D	III	32	A8、A7 破城 子；P9；A32 金关；肩水 金关；长沙 五一广场一 号井	长：5.7-16.1 宽：1.8-3.5		

D	IV	2	长沙东牌楼七号井			
E		17	A33 地湾、破城子、长沙五一广场一号井 长沙东牌楼七号井	长：6.9-14.1 宽：3-3.7		

### （三）觚

觚是多面体的木质书写材料，《说文》根据其材质直接写作木字旁的“觚”，释“棱也”。《急就篇》首句“急就奇觚与众异”，颜师古注：“觚者，学书之牍，或以记事，削木为之，盖简之属也……其形或六面，或八面，皆可书。觚者，棱也，以有棱角，故谓之觚。”从出土实物来看，觚就是柱形有棱的多面体书写材料，其面并不拘泥于“六”或“八”。多者八面，少者三面，五、六、七面者也很常见。觚多为习字、练字用，多面是为了多写字，一般不作为特别正规的书写材料。出土的不少觚上抄写有《仓颉篇》《急就篇》的文字，也说明其主要是作为习字简使用。由于习字材料多元，故有些觚上的文字可作为重要史料使用，如1977年玉门花海出土的七面棱形觚，就因为其上抄录有西汉前期某位皇帝的遗诏而引起学界热议。觚的长度不定，有80多厘米者，也有50多厘米，乃至20多厘米者，但总体说来，为容字多便于练字计，大部分较正常简牍为长，制作也相对粗糙。

### （四）楬

楬，是起标识作用的简牍，相当于我们今天用的标签。段玉裁《说文解字注》称：“楬，书其数量以著其物。今时之书，有所表识，谓之楬槩。”《周礼·秋官·蜡氏》：“有死于道路者，则令埋而置楬焉，书其日月焉。”《周礼·秋官·职金》：“辨其物之微恶与其数量楬而玺之。”《周礼·泉府》：“物楬而书之。”司农注：

“楬著其物也。”可见，楬是书写有物品名称、数量，并系于物品上的标签。

王国维《流沙坠简·屯戍丛残·器物类》就关注过简牍中的签牌，曾举两枚兵器簿籍签牌（楬），认为这是“兵器簿录之第一简而标其目者也”。1930年代居延汉简中更是出土了不少签牌，后来的研究者往往将其与传世文献中的“楬”，称其为“楬”。此后在长沙马王堆一号汉墓及三号汉墓、长沙国渔阳王后墓、江苏胡场汉墓、平山养殖场汉墓等墓葬中也出土了性质类似的简牍。里耶秦简的整理者及研究者将此类简牍称“笥牌”或“签牌”，海昏侯墓简牍的整理者也称为“签牌”。这些所谓的“签牌”“笥牌”和居延汉简中的“楬”本质上是一致的。

出土实物中的楬，根据其标识的内容大概可分两类：第一，实物楬，书写具体物品的名称、数量，并系于或搁放于该物品上的标签。墓葬出土实物楬主要用于标识随葬品，长沙马王堆1号汉墓、渔阳墓中都出土有大量书写随葬品名称、数量的楬，并系于所记物品或装物品的匣、笥之上，如楬书“衣笥”“缯笥”“牛脯笥”“金二千一笥”等，渔阳墓中还有写有9行文字，记录了具体随葬品名称、数量的楬。遗址出土实物楬则多用来标识某些储备物资，如居延、敦煌汉简中就常见有标识弩矢、兰冠、绳的楬。第二，文书楬，用于标识已归类的文书档案，其上书写该类文书档案的名称，以备查检，往往系于所标识的文书档案或收纳该档案的笥、匣之上，里耶、居延、敦煌出土的楬大部分属于此类，如居延新简EPF22:36号简“建武三年十二月候粟君所责寇恩事”，就是一枚楬，是对1-35号简有关候粟君责寇恩一案包括三份爰书和相关官府往来文书记录在内的档案的标识。很多实用文书楬为了查找方便，往往两面书写相同的文字。或者一面书写文书档案名称的全称，一面书写简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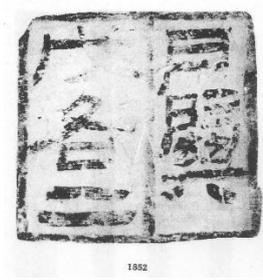
迄今发现的楬，从制作方式上看，主要有契口型和钻孔型，也有极个别的楬



两侧契口与钻孔同时出现(如敦煌汉简1393 )，钻孔型还有一孔和两孔之分。从首部形状上看，出土所见的楬多为顶部削为半圆形的木牌。也有顶部削成三角形或是梯形者。关于首部纹饰则有网格纹、涂黑以及首部留空白的区别。楬的大小并没有统一尺寸，有长10厘米左右，甚至7厘米者，也有像马鞍山吴朱然

墓出土的长至 24.8 厘米者。

经过整理，发现具有契口的楬基本都是实物楬，在楬的契口处捆绑麻绳直接附在所标记物上，实现其“标签”的目的。但钻孔楬的情况较为复杂，在里耶秦简中首部涂黑钻孔的楬多用来标记文书，而在马王堆汉墓和西北边塞汉简中首部涂黑钻孔的楬却多用于标记实物。网格纹首钻孔楬仅在西北边塞简中见到，这种特殊纹饰的楬不仅用于标记文书，也用于标记实物，似乎是固定用于边塞物品标记的。

		涂黑	网格纹	空白	分栏	备注
契口首	圆形					
	多边形					 有倒置： 1.90X0.70X0.25cm
	三角形					
钻孔首	圆形					
	多边形					
	三角形					

(五) 檄

檄，《汉书·高帝纪》颜师古注称：“檄者，以木简为书，长尺二寸。谓之檄，

用征召也。其有急事，则加鸟羽插之，示速疾也”。一般认为是在战争或局势紧迫之际使用的有征召、晓谕的作用的加急文书。此前多被认为是一种文体。但随着简牍的出土，可以发现在秦汉时期，檄经常与札、两行并称，也是一种文书形制。且在汉简中可以发现，檄的名目众多，有“板檄”“合檄”“杨檄”等等多种称谓。关于檄这种文书的具体形制以及“板檄”“合檄”的区分，学界有较大争议。

沙畹最早在《纸未发明前的中国书》中讨论过檄的形制，他根据《说文》段玉裁注认为檄为“尺二书”。<sup>①</sup>王国维也在《简牍检署考》中讨论了檄的形制，但他认为《说文》段注有误，檄应为“二尺书”。<sup>②</sup>楼祖诒《汉简邮驿资料释例》称合檄可能是为篇幅较长或为保密而“合拢来”。<sup>③</sup>鲁惟一《汉代的一些军事文书》认为板檄或许是只有一片木牍的檄。合檄即配合在一起的文书，包括两片木简，每一片上都写有字，其形制是能用楔形榫或其它类似设计结合在一起，以使传递过程不会散落。长檄是长形杆状体的一部分，被作为证书使用。<sup>④</sup>连邵名《西域木简中的记与檄》认为板檄、合檄都加盖封章，而有些檄书也要加封。部分檄是书写在木牍上的。檄用于征召、司法和军事。<sup>⑤</sup>于豪亮认为板檄就是一般的檄，是写在木板上的文书，上面不用木板封盖，便于广泛传阅。合檄是秘密文书，用两板相合，缠上绳子，印上封泥，上面的木简写上收件人的姓名和地址，起到封检作用。檄可以用于对敌人的宣告，用来征集军队，表示军情紧急，用于传达上级对下级的指示，用于官吏任命，也可以是证明文书。<sup>⑥</sup>汪桂海《汉代官文书制度》认为檄可分为（一）讨伐敌人的檄；（二）发兵诏书，及向天下宣告胡虏投降的诏书；（三）大将向皇帝报告军情的章奏文书；（四）用作符传的檄；（五）郡县等告急发兵的檄；（六）用于征召官员、敕责、下达命令等方面的檄。李均明《秦汉简牍文书分类集解》认为檄是一种行事急切，具有较强的劝说、训诫与警示作用的比较夸张的文书形式。可以分为觚檄、合檄、板檄、羽檄。角谷常子《中国古代下达文书的书式》认为檄具有军事情报传递紧迫感和简便两种特性。

<sup>①</sup> 沙畹：《纸未发明前的中国书》，《图书馆学季刊》1923年第5卷第1期，第47页。

<sup>②</sup> 王国维，胡平生、马月华校注：《简牍检署考校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9年，第52-53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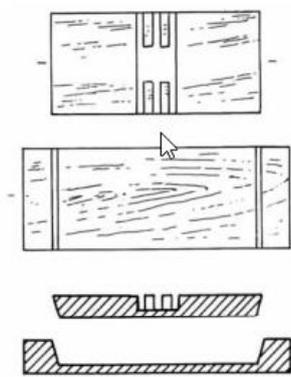
<sup>③</sup> 楼祖诒：《汉简邮驿资料释例》，《文史》1963年第3辑，第138页。

<sup>④</sup> 迈克·鲁惟一：《汉代的一些军事文书》，中国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战国秦汉史研究室编：《简牍研究译丛》，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3年，第255-256页。

<sup>⑤</sup> 连邵名：《西域木简中的记与檄》，《文物春秋》1989年第1期，第24-29页。

<sup>⑥</sup> 于豪亮：《居延汉简释丛》，中国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战国秦汉史研究室编：《于豪亮学术文存》，北京：中华书局，1985年，第180-181页。

檄除觚形外，还存在两行的形制，这种檄可与某些无字简相合，绑在一起，写上地址。<sup>①</sup> 郭文玲《“合檄”试探》以其所改释的简文为依据，认为合檄的形制与长沙东牌楼出土汉简的B型封检和C型封检类似，这种契合式的封检形式应该是合檄的形制和样式之一。<sup>②</sup> 何佳、黄朴华《东汉简“合檄”封缄方式试探》认为“合檄”应为当时一种保密文书，即用“┌”型木牍和楔型封检相互契合，再用绳子缠绕固定后，压上封泥，形成一套完整的“合檄”，防止发送或邮递过程中被拆阅。<sup>③</sup> 鹰取祐司在《汉简所见文书考》中认为檄不是文书名称，而是一种书写材料，檄书是在檄上面书写文书的意思。富谷至《檄书考》认为檄具有书写材料和文书两方面的意思，其在很多场合下都具有觚的形状并附有封泥匣。檄是公开的，能使人看到的木简，其功能有三：一是表示行政文书的确定性，将权威者的意图周告各地官署，公开传达命令，具有行政效果的实感；二是有些文书的传递含有隐秘的部分，送达形式多变，可以让各个官署操纵和控制；三是这种官方公开的檄，对于民众具有威慑作用，能产生监督的效果，强调“视觉简牍”的作用。藤田胜久《汉代檄的传递方法及其功能》认为檄通常是觚形，不仅用于军事事务，也不限于紧急的情报传递和军书的传递，包含有下行、平行和上行文书。<sup>④</sup>



（何佳、黄朴华所认为的合檄）

笔者认为，对“檄”的认知应该从出土简牍出发，应关注其中自称为“檄”的文书。西北汉简中，檄经常作为上级机构分发给基层烽燧组织的书写材料，和札、两行并称。由此可知，檄首先是一种与“札”“两行”形制不同的书写材料。联系到简文中自称为“檄”的简牍多呈棱柱体（即所谓觚形）。我们可以认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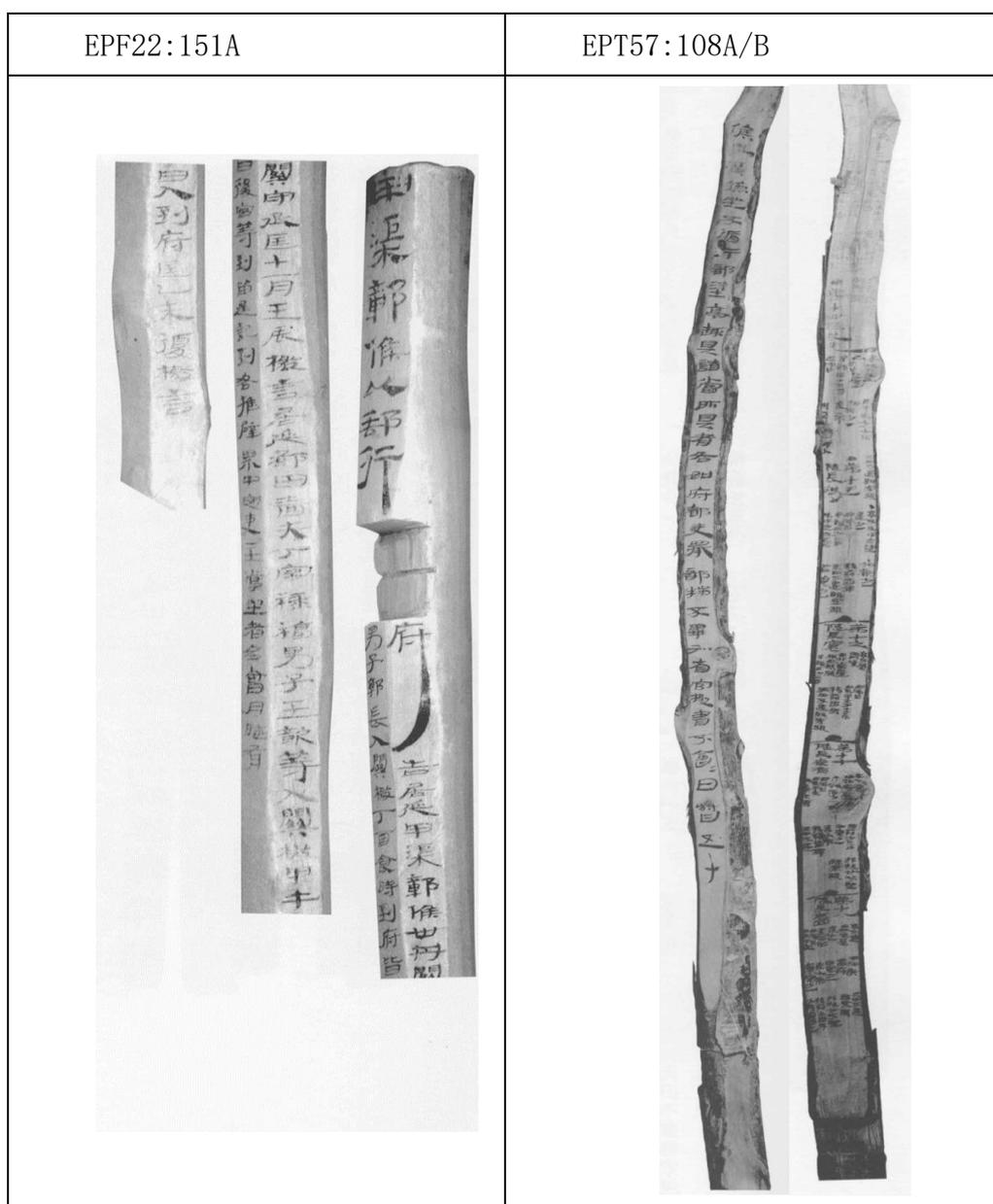
① 角谷常子：《中国古代下达文书的书式》，《简帛研究》2007年第1期，第185页。

② 郭文玲：《“合檄”试探》，《简帛研究》2008年第1期，第172页。

③ 何佳、黄朴华：《东汉简“合檄”封缄方式试探》，《齐鲁学刊》（人文社会科学学报）2013年第4期，第47页。

④ 上述日方观点均引自藤田胜久：《汉代檄的传递方法及其功能》，张德芳编：《甘肃省第二届简牍学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年，第45-65页。

觚形多面体应为“檄”的基本形制特点之一。这些文书往往筒体较长（有符合“二尺”者），呈棱柱体，多面书写，中间刻有封泥槽。从汉简来看，檄其多用于沿途传阅、广而告之，其封泥槽中拓印了印章文字的封泥主要起标识文书权威性的作用。从汉简来看，檄主要是需要广而告之、使沿途机构都能看到的公文，即所谓“露布”。根据内容的不同，可以分为传递军情的惊檄、传递通关信息的通关檄和具有公开批评意味的行罚檄等。与出土文献中“檄”主要是对某种形制的强调不同。传世文献中的“檄”，则多强调的是其内容，其紧急或广而告之的公文性质。这个区别，可能反映了时人对“檄”认知的变化。这种变化可能从汉代就已开始。



关于板檄和合檄的具体形制,以及其与檄的关系,笔者认为今天还不能确知,这主要是因为西北汉简中的合檄、板檄多见于邮书记录中,而基本未发现自称为“合檄”“板檄”的简牍实物。汉简中的“合檄”,可能是需保密的文书,但其形制是不是一定是邬文玲、何佳学者所认为的那样是“‘┌’型木牍和楔型封检相互契合”,则还不易断定,毕竟居延、敦煌汉简邮书记录中常见“合檄”称谓,但实物中却极少见邬文玲、何佳所认为的那种形制。笔者认为,从西北汉简邮书记录中“板檄”“合檄”出现的频率来看,其不会是特别少见的形制,其实物在已出土的西北汉简中应有不少,只不过我们还未能完全辨识。甚至不排除,板檄、合檄中的“檄”,已失去其形制含义,而只是一种对公文的概称的可能。

#### (五) 符

符,作为信用凭证,在战国已较常见。《墨子·号令》讲到城守时,多次提到“符”,既有吏卒之间的“信符”,也有“阶门吏”“诸城门若亭”用来查验出入的“符传”。至于信陵君窃符救赵之“符”,则已明确是能够“分而相合”的兵符,与传世秦之“杜虎符”“新郢虎符”性质一致。

结合形制与内容,笔者认为战国秦汉时期“符”最本质的特点有二:第一、官方机构间使用的表示信用关系的凭证,其中官方机构可以是平级,也可以是上下级。第二、“符”最根本的形制特点是分置两处、可以相合,《说文》:“符,信也。汉制以竹,长六寸,分而相合”,徐乐尧称:“故合以为信,乃符的基本特征,也是符的必备条件。”文献中与“符”有关的内容大都是“剖符”“合符”“符会”“符合”“左券”“右券”等,“合”“会”是“符”实现凭信功能的特定方式,是其与玺印传致节信的最大区别(但东汉魏晋之后,由于契合和封印同样具有的“信用”作用,导致二者开始出现混称的现象)。至于其材质是竹、是木、是铜,长度是否一定为六寸,刻齿还是剖荆,由于使用环境的不同,在界定“符”的内涵时倒可暂置不论。

西北汉简中最常见的符主要是用来出入关的符,有刻齿。肩水金关汉简载,

橐佗野马隧吏妻子与金关关门为出入符 73EJT21:136

明确称这种符为“出入符”。有时也可称为“出入关符”(如73EJT37:344号简)和入出符(如73EJT37:1149号简)。如果该符仅为出关使用,则可称“出关符”,如甲渠候官出土EPT59:796号简“三月十日从居延还出关符”。有时根据所出入

关塞名字，可径称某关符，如 73EJT37:1057B 号简的“金关符”。

李均明曾根据该类型符使用群体的不同，将用于出入关的符进一步分为“出入符”和“吏及家属符”，认为：“出入符只署文号不署人名，表明它不仅供一人长期使用，而是需要时发放给某人，用完归还，可反复使用”，“吏及家属符乃边吏家属出入关门时使用的出入凭证”。也有学者将这两种内容、形制有一定差异的符分别称为“序号符”和“家属符”。各种吏家属符是肩水金关地区出土最多的符。这些供屯戍机构官吏的家属、从者、葆庸通过金关的符，虽具体名称有别，但合符供吏员家属出入关的性质则应具有一致性。

关于吏家属符的形制及使用，李均明、大庭修、黄艳萍等学者曾有讨论。<sup>①</sup>尤其是郭伟涛根据书式将金关出土吏家属符分为五个类型，并在此基础上对其使用情况进行了分析，所获尤大。<sup>②</sup>但郭伟涛的分类、分析，更多是对家属符的横向对比。而笔者认为肩水金关出土吏家属符大部分具有较明确年代信息，其形制方面的差别，除了有不同制作机构间习惯的差异外，主要应与使用时代有关。

吏家属符类型表

类型	A	B	C1	C2	C3	C4	D	E
时代	昭帝时期	宣帝早期 中期	宣帝后期（五凤四年）	元帝初期（初元四年）	元帝至成帝前期（初元四年、永光四年、建始四年）	成帝中后期（阳朔三年、永始四年）	哀帝时期（建平元年、二年、三年、四年）	不确定（宣帝时期可能有使用）
制作时间	未书写	未书写	临事而制	正月预作	正月预作	正月预作	正月预作	未书写
有效期	不确定	不确定	入出止	一年	一年	一年	一年	不确定
通关者信息	未书写	身份、县里（部分简有车马牛信息）	身份、县里、年色	身份、县里、年色	身份、县里、年色	身份、县里、年色	身份、县里、年色、车马牛信息	身份、县里、年色（部分简有车马牛信息）
符主（吏）	未书写	职名+姓名	职名（姓名）	职名（姓名）	职名+姓名	职名+姓名+“家”	职名+姓名+“家”	机构名（职名）

① 李均明：《漢簡所見出入符、傳與出入名籍》，27-31 頁；[日]大庭修：《漢簡研究》，134-149 頁；黃艷萍：《漢代邊境的家屬出入符研究——以西北漢簡爲例》，74-78 頁。

② 郭偉濤：《漢代的出入關符與肩水金關》，96-125 頁

信息			在下 栏)	在下 栏)		属”	属”	姓名在 下栏)
代表性 简牍								
	73EJT2 4:19	73EJT26 :27	73EJT9 :87	73EJT3 0:62	29.1	73EJT37: 1007	73EJT37 :758	73EJT37 :759

#### (六) 传 (过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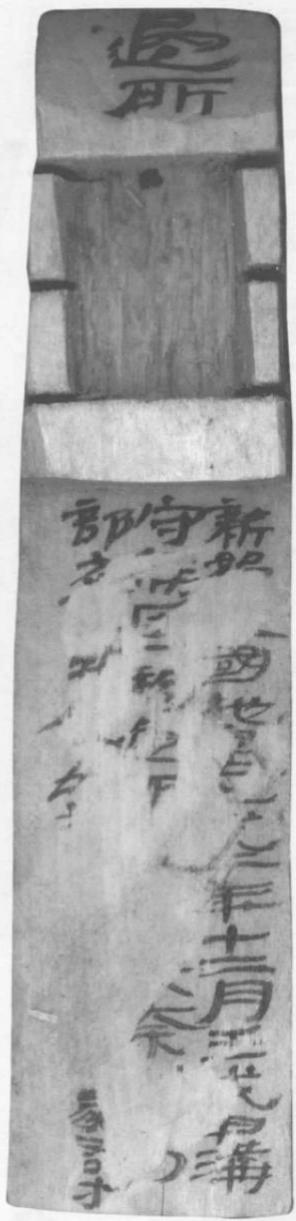
除了出入关使用的出入关符和吏家属符外，汉人出行还需携带有兼具身份证明和通行证作用的传（又称过所）

关于出行时所用的传，王国维曾就传世文献所载内容展开过论述：

又其次则为五寸，门关之传是也。《汉书·孝文帝纪》：“除关无用传。”案传信有二种。一为乘驿者之传，上所云“尺五寸”者是也。一为出入关门之传，郑氏《周礼》《注》所谓“若今过所文书”是也，其制则崔豹《古今注》云：“凡传皆以木为之，长五寸，书符信于上。又以一板封之，皆封以御史印章。”此最短之牍也。此二者一为乘传之信，一为通行之信；一长尺五寸，一长五寸；一封以御史大夫印章，一封以御史印章。（见王国维著，胡平生、马月华校注《简牍检署考校注》，上海古籍出版社，2004年，第57-58页）

王国维所谓的“关门之传”，即传文书。这种传文书的抄件，我们在肩水金关遗址见到很多。但带有封泥槽可供封缄的原件，则所见较少。

传原件的形制究竟如何，目前还难以确知。但破城子 A8 遗址出土的个别简似乎能为我们提供一些思路。



過所

新始建國地皇上戊二年十二月壬戌甲溝

守候長移過所……奈□□

部卒……

掾尋

(檢)

EPT59: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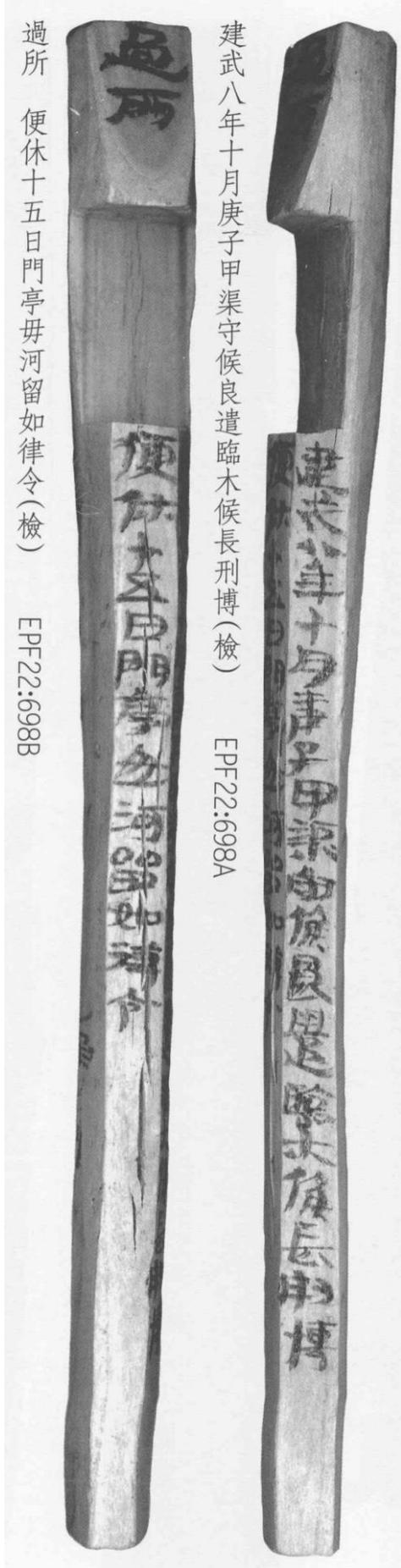
元始元年九月丙辰朔乙丑甲渠守候政移過

所遣萬歲隊長王遷為隊載摠門亭

塢辟市里毋苛留止如律令

一掾

EPT50:171



過所 便於十五日門亭毋河留如律令(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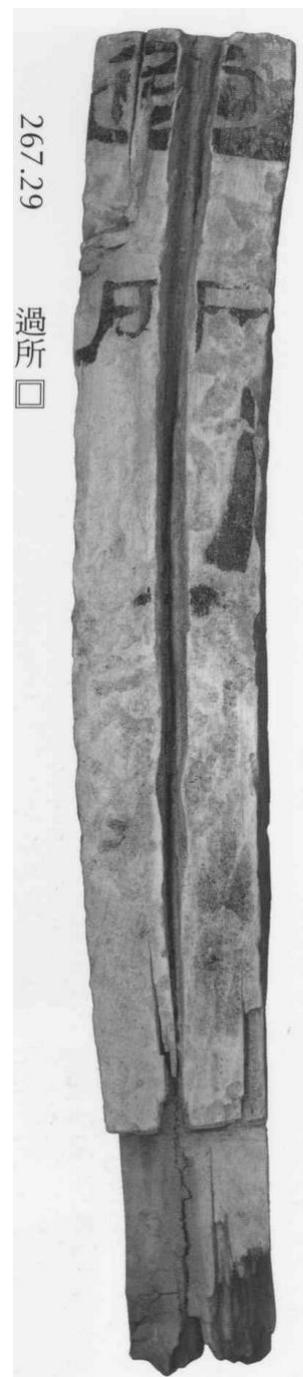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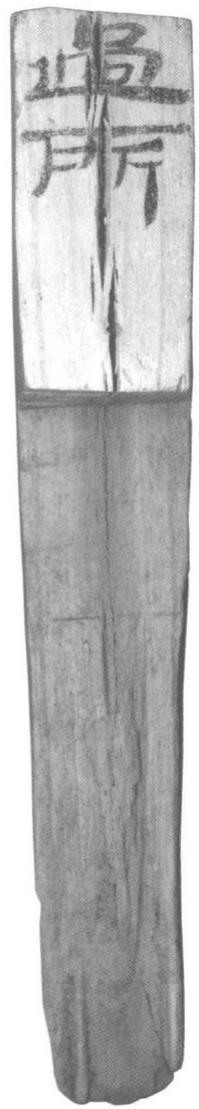
EPF22:698B

建武八年十月庚子甲渠守候良遣臨木候長刑博(檢)

EPF22:698A

175.20A

過所



267.29

過所 □

以上五简，除第一简简头无内容外，其余四枚简均是在简头书写“过所”二字。

《汉书·文帝纪》张晏注曰：“传，信也，若今过所也”，过所即传。上面所举的五枚文书，第一枚上部未见“过所”字样，整简的字似乎是书写在一个较大的凹槽内，会不会如同崔豹《古今注》所云：“凡传皆以木为之……书符信于上。又以一板封之，皆封以御史印章。”可能需要在凹槽上用一板封之。而另外四枚简头的带有“过所”字样的文书，因为其上的文字直接显露于外，很可能只需要在封泥槽内放入封泥，加盖印章，就能起到相应地效力。

### （七）券、莢

与“符”相似，券和（傅）莢也是通过合验以产生信用的简牍形制，多作为债务或缴税证明使用。《说文》：“券，契也。……券别之书，以刀判契其旁，故曰契券。”《周礼·天官·小宰》：“职称责以傅别。”郑注：“傅别，谓大手书于一札，中字别之。”《释名·释书契》：“莢，别也，大书中央，中破莢之也。”李均明《简牍文书学》称：“简牍所见单称‘券’者，旁有刻齿这一点同符，但长度不限于六寸，应用范围较符广，买卖借贷、取予授受皆用之”“符券类属契约合同文书，通常为多联，即一式多份（至少两份），同式各份之间或以契刻，或以笔划线条为相合标志，示其信用。以契刻为合符方式者，通常称之为‘契券’。以笔划线条为合符方式者，通常称为‘傅别’（或称‘莢’）。”从汉简来看，券的制作方式与符相似，在简牍两面书写内容相同的文字，侧面刻齿（所刻之齿的形状可代表具体债务数量），然后纵剖为二，分别被称为“左券”“右券”，由债务、债权人分别持有。债权人收取债务时，双方合券验齿。这种带有刻齿的债权，在西北汉简尤其是居延、敦煌汉简中较为常见。傅别（莢），则是在一片较宽的木牍左右各书写内容相对应的出入物品、借贷物资或缴纳赋税的文书，中间书写一个较大的“同”字，然后将简牍从“同”字中间剖开，出、入双方各持一面，待核验或完成债务时，通过核对“同”字的笔迹、笔画和剖面的契合度来完成凭信的作用。新疆楼兰尼雅出土的文书中多见这种合“同”傅莢，三国走马楼吴简嘉禾吏民田家莢也是如此。

### （八）柿

柿，又称削衣，是为了更正简牍内容或再次使用简牍而削改简牍时削下来的书有文字的竹木薄片。《说文·木部》：“柿，削木札朴也”，“朴，木皮也”，可见

柿是削下的木的表面薄片。为更正简牍内容而削下的薄片一般较小、文字较少，而为了节约书写材料、便于二次书写而削下的削衣，往往文字较多，价值较高。西北边塞遗址由于书写材料珍贵，二次书写现象较为普遍，故出土削衣较多，如1977年玉门花海出土90余枚简牍中，削衣即有61枚，上存可以识别的文字，少者1字，多者八字。

## 二、20世纪以来简牍文书形制研究的主要成果

20世纪以来，近60000枚西北官文书简牍出土，其内容主要与汉代敦煌郡和居延、肩水都尉府等边塞地区行政运作有关，是研究汉代国家治理的重要资料。出土伊始，简牍形制就受到学界关注。1912和1914年，王国维撰《简牍检署考》和《流沙坠简·屯戍丛残考释》，研究检、檄等形制，影响深远。此后，随着居延和悬泉汉简等资料的出土，西北官文书简牍形制和命名研究取得了显著成果。

具体到官文书简牍形制与命名的研究，主要体现在以下五个方面：

第一、有关简牍制作、形态、编联的综合研究。简牍具有文物属性，其形态和制作方式是关注的焦点。劳榘《居延汉简·考证之部》设“简牍之制”和“公文形式与一般制度”专题，对封检形式、检署与露布、版书、符券、契据、编简之制、诏书进行全面研究。1959年，武威磨嘴子汉简出土，陈梦家撰《由实物所见汉代简册制度》，从材料、长度、刮治、编联等角度梳理简牍制度，创获尤多。此后，马先醒《简牍通考·质材形制考》《简牍形制》，骈宇騫《简帛文献概述》，程鹏万《简牍帛书格式研究》等论著也都对简牍形制进行过系统分类。近年来，侯旭东《西北所出汉代簿籍册书简的排列与复原》、马智全《从简册编绳看汉简册书编联制度》等文则据近出编册简牍实物，深入探讨簿籍等官文书的编册顺序、方法、原则，厘清了简册编联中的部分疑难问题。马怡《扁书试探》通过对简册编联方式的辨析，讨论了作为公告的扁书与普通简册的区别与联系。

第二、对简牍长度规范的探索。自王国维提出“倍数、分数说”，简牍长度是否有规范，就成为简牍形制研究绕不开的话题。傅振伦、陈梦家曾据居延、武威汉简，继承并发挥王国维之说。马先醒、刘洪石等学者则质疑王说，并对简牍长度规范之有无产生怀疑。李学勤提出要以发展的眼光看简牍长度之制，认为至少在汉初似并无系统定制。胡平生《简牍制度新考》总结百年来简牍长度规范研究成果，指出须按照不同简牍的种类、性质、时代分类探索，提出“以策之大小

为书之尊卑”的观点，推进了此项研究。

第三、对检、檄、符、券等特殊简牍形制的关注。劳榦、陈直、何智霖、薛英群、高荣、杨振红、黄艳萍、袁延胜、郭伟涛、藤田胜久等学者通过对符、传的考察推进了汉代通关制度研究。尤其是鹰取祐司《秦漢官文書の基礎的研究・漢代官文書の種別と書式》，将符分为可剖之符与不剖之符、传分为途中不开封之传与反复开封之传，拓宽了符、传形制研究的思路。李均明《封检题署考略》等文是文书封检研究的集大成者，《简牍缺口与印信》注意到“以印为信”简的特殊形制，勾稽出一种学界此前未曾注意到的“缺口”简牍。邢义田、胡平生、泚山明通过分析出入券刻齿的具体形态及含义，深化了汉代物资管理研究。张俊民《敦煌悬泉汉简刻齿文书概说》对悬泉汉简中与物品出入、田亩、马匹、契约有关的各类刻齿简牍全面分析，注意到此前未见的“过书刺”刻齿，拓宽了相关研究的广度和深度。大庭脩以汉简文书形态入手复原简册，并探讨了檄书、检和符、致的形制特征。陈直、楼祖怡、连劭名、英国学者鲁惟一、日本学者角谷常子、鹰取祐司都专门探讨过檄，尤其是藤田胜久《汉代檄的传达方法及其功能》和富谷至《檄书考》等文注意到“檄”兼具书写材料和文书两方面的含义，指出其作为“露布”的特征，创获较大。于豪亮、邬文玲、何佳、黄朴华则推动了“合檄”研究。

第四、简牍形制与官文书分类研究为学界关注。文书分类是文书制度的基本内容。劳榦《居延汉简·释文之部》将“文书”分为书檄、封检、符券、刑讼，开创了结合简牍形制的文书分类方法。何双全《居延汉简研究》官文书分类中列“简牍形式”类，将7000余枚甲渠候官出土居延新简分为四类七种，对简、牍、觚、检、緘、签、筹等形制的具体内涵和长短式样专门研究，资料性较强。李均明、刘军《简牍文书学》、李均明《秦汉简牍文书分类辑解》和汪桂海《汉代官文书制度》都重视简牍官文书分类，在以内容为主要分类标准的同时，也都注意到了检檄符券檄传等特殊形制的文书学意义。李天虹《居延汉简簿籍分类研究》虽主要按事类对簿籍简分类，但也有关于出入券齿、檄和符、传、致等通关文书形制的研究。

第五、结合简牍形制探讨汉代行政运作是简牍形制研究的发展方向。简牍形制服务于官文书的功能和使用。近年来有一些通过简牍使用方式探索基层行政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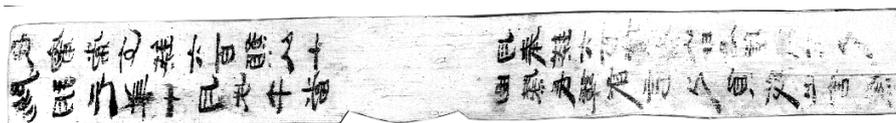
作规律的杰出成果。张德芳《悬泉汉简中的传信简考述》对悬泉汉简公务用传的形制、分类、使用进行了全面整理与研究。侯旭东《西北汉简所见“传信”与“传”》通过对公务用传的梳理分析了皇帝在国家治理中的作用，是利用简牍官文书从事日常统治史研究的典范之作。孙宁《从金关汉简私传申请程序简化看西汉后期县尉职能的弱化》则将对通关程序的探讨延展到了基层行政机构职能的调整。角谷常子《论简牍形状的意义》、邢义田《汉代简迹公文书的正本、副本、草稿和签署问题》不仅探讨了简牍形制和文书性质间的对应关系，还将形制与文书稿本形态研究结合起来，开拓了简牍形制研究的领域。初山明、佐藤信编《文献と遺物の境界》讨论了官文书简牍制作、废弃、再利用与行政运作的关系，其中青木俊介《封檢の形態発展》、山中章《匣付木簡の製作技法と機能に関する一考察》分别讨论了封检、封泥匣等形制的制作、形态变化与行政管理的关系。

### 三、西北文书简牍形制研究存在的主要问题

经过百余年学术积淀，简牍形制与文书行政、国家治理的关系日益为学界瞩目，相关研究取得了可喜成果。但客观来说，也存在以下问题：

第一、对西北官文书简牍长、宽规范的研究不充分。关于简牍长度规范有较多探讨，但多针对书籍简，缺乏对公文、簿籍等文书简长度的准确、全面统计和深入分析。有关简牍宽度、行数与所书写文书内容关系的探索也较欠缺。鲜有对不同种类官文书，或同一种类但不同稿本形态、不同机构官文书宽度、行数、书写格式差异的讨论，空白亟待填充。

第二、检、檄、券、符、传等特殊形制简牍研究虽已有较多成果，但部分形制的功能、使用方式仍未能准确、详尽复原。如“检”“檄”之别、“检”“檄”关系、“合檄”特点、算筹、“记”的种类与具体形制、“以印为信”缺口简牍的使用方式等都还有较大讨论空间。



(EPT52:88 号简)

第三、在具体简牍形制的命名问题上，存在着传世文献与出土文献中简牍自称如何对应的问题。如檄，传世文献中主要作为一种文体、文书内容出现，但在

居延、敦煌汉简中其却主要指一种不同于“札”“两行”的简牍形制。形制意义上的檄和问题意义上的檄，显然是有较大差别的。这种差别可能会对我们为特殊形制简牍定名和准确把握其内涵、外延带来困难。而这种差异产生的原因，也是值得我们下一步认真思考的课题。

第四、研究存在碎片化现象。宏观的跨区域、跨时期对比分析较少，即使是单纯的西北官文书简牍研究，也多立足个别具体形制展开，缺乏对官文书简牍形制和边地行政运作关系的系统考察。行政运作具有连贯、系统性，由不同种类官文书的搭配使用来实现。仅关注某一种官文书形制，不考虑与其它官文书的关系，不利于对文书制度和行政管理方式的整体把握。

第五、关于现象的研究多，规律提炼和理论探索不足。多满足于以简牍形制谈功能、使用，缺乏对国家治理方式和行政运作规律的理论探索。像侯旭东那样将“传信简”研究升华到“汉代君臣日常政务分工与诏书律令作用”层面，提炼出“日常统治史”等理论范式的成果太少。

针对这些问题，我们应该以文书行政和国家治理视角，全面考察西北汉代官文书简牍的形制、功能、使用方式，落脚于国家尤其是边地治理。研究内容既包括简牍长、宽、编册规制与所书写官文书性质、类别的对应关系，也包括检、檄、楬、符、传、券等特殊形制简牍的文书和行政功能、使用方式。尤其应重视以简牍形制切入的官文书制度、通关制度、物资管理制度和边塞行政运作研究，以期能对检、楬、檄、符、传、券等特殊形制简牍的使用方式和在基层行政运作、边疆管理中的作用有较清晰的认识。能够从简牍形制角度，解决西北汉塞信息传递、政务考课、物资管理、通关制度等问题。

# 한반도 발견 목간의 형태 용어 검토

---

이재환(중앙대학교)



# 韓半島 發見 木簡의 形態 用語 檢討

李在暉(中央大學校)

---

## 〈목차〉

- I. 머리말
  - II. 札과 牌
  - III. 簡과 牘, 그리고 觚
  - IV. 形態 用語의 ‘統一’ 問題
  - V. 맺음말
- 

### I. 머리말

木簡·簡牘에 對한 研究는 國家의 範圍를 넘어 緊密하게 交流되고 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用語·表現을 잘 파악하는 것은 서로를 理解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木簡 研究가 더 늦게 시작된 韓國의 경우 中國과 日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用語들을 認識하고 受容·變容하면서 나름의 體系를 만들어 갔다. 木簡의 形態別 呼稱 또한 中國의 用語들과 日本의 型式分類 方式이 중요하게 意識되었다.

韓國木簡學會에서도 創立 이듬해인 2008年 第3會 學術大會의 主題를 “東아시아 古代木簡의 形態”로 잡아 各國의 形態에 대한 論議를 한 데 모은 바 있다.<sup>1)</sup> 단 各國의 木簡 出土 樣相에는 差異가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되는 用語나 呼稱 또한 整理가 필요한 단계에 이른 듯하다. 이번 發表會는 韓·中·日 三國에서 同一한 形態의 木簡을 各各 어떻게 달리 부르고 있는지 現狀을 確認하고, 將來의 名稱 統一을 準備하고자 企劃되었다. 그 일환으로서 本 發表는 韓半島에서 發見된 木簡들에 대한 形態 呼稱이 어떻게 쓰여 왔는지 정리하고, 國內·國際的 統一 可能性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 II. 札과 牌

中國의 簡牘은 20世紀 初부터 發見되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體系的이고 科學的인 方法에 의한 發掘과 研究는 1949年 以後부터 이루어졌다고 한다.<sup>2)</sup> 日本의 경우 正倉院에 保存·傳來된 木簡들이 있었고, 1928年 三重縣 柚井遺跡 및 1930年 秋田縣 拂田柵 遺跡에서 木簡이 出土

---

1) 이 때의 論考들은 2009, 『木簡과 文字』 3號에 特輯으로 수록되었다.

2) 김경호(金慶浩), 2011,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목간 출토 및 연구 현황」,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동아시아문명총서 0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20

된 바 있으나 주목받지 못하다가 1961年 奈良 平城宮跡에서 40점의 木簡이 發見되면서부터 木簡 研究가 시작되었다.<sup>3)</sup>

韓半島에서 처음 ‘木簡’이 確認된 것은 1931年 朝鮮古蹟研究會에 의한 平安南道 大同郡 南川面 南井里 116號墳, 곧 ‘彩篋塚’의 發掘에서였으므로, 이후 中國이나 日本에서 本格的으로 使用될 簡牘·木簡 關聯 用語나 情報는 普及되지 않은 時點이었다. 發掘者는 該當 遺物의 形態的 特徵 및 內容에 基盤하여 直觀적으로 呼稱을 定했을 것인데, 이때 붙인 呼稱은 ‘木札’이었다.<sup>4)</sup> 그것은 柏材로 만든 幅 7.2cm의 ‘長方形 薄板’으로서, 3行의 墨書가 있어 中國 簡牘의 形態 呼稱에 따르면 ‘木牘’으로 부르는 것이 的當해 보이는 資料이나,<sup>5)</sup> 當時 木簡·簡牘이나 木牘과 같은 用語는 아직 使用될 수 없었던 것이다.<sup>6)</sup>

‘札’은 ‘兩行’·‘檄’ 등과 더불어 規格화된 書寫材料로 漢代의 簡牘 內容 中에 보이며,<sup>7)</sup> 『急就篇』이나 『釋名』 등 文獻에서도 확인되는데,<sup>8)</sup> 幅 1~2cm에 一行으로 書寫하는 簡을 가리켰다고 본다.<sup>9)</sup> 그러나 幅이 넓고 여러 行으로 書寫된 彩篋塚 出土品은 形態가 다르며, 그러한 用例 또한 認知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木札’은 日本語 ‘ふだ(札)’에 基盤한 命名으로 여겨진다. 日本 學界에서는 木簡 관련하여 ‘·札’이라는 表現이 많이 使用되며, 木簡을 定義할 때도 ‘木札 위에 文字가 쓰여진 것’과 같이 上位의 概念으로 ‘札’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sup>10)</sup>

하지만 ‘木札’이라는 表現은 韓國의 研究者들에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2000年代末부터 忠淸南道 泰安 馬島 隣近 海域의 高麗時代 沈沒船들에 대한 發掘에서 確認된 대나무 재질의 荷札들에 대해서 ‘竹札’이라는 呼稱이 使用되고 있다.<sup>11)</sup> 굳이 ‘竹簡’이 아닌 ‘竹札’

3) 日本木簡學會 엮음/橋本繁·이동주 옮김, 『목간에서 고대가 보인다』,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편, 주류성, pp.23~24.

4) 朝鮮古蹟研究會, 1934, 『樂浪彩篋塚(古蹟調査報告 第一)』, p.57, “(三) 木札及 木製用器類 ... 三九 墨書木札 長二三·七糎, 幅七·二糎, 厚〇·六糎 【圖版第七九】”. 참고로 p.iii의 영문 초록 중에는 ‘Wooden Tablet’으로 번역되었다.

5) 韓國 學界에서도 2000年代 以後 이 遺物을 ‘木牘’이라고 부르는 것이 一般的이다(尹善泰, 2004, 「한국고대목간의 출토현황과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p.360 ;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p.267 ; 윤재석 편저, 2022a, 『한국목간총람(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자료총서 01)』,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pp.36~37 등).

6) 이미 1912년에 日本에 居住하던 王國維의 著述 『簡牘檢畧考』이 京都文學會의 『藝文』 第4·5·6號에 連載되고(왕귀웨이(王國維) 원저/후핑성(胡平生)·마위화(馬月華) 교주/김경호 역주, 2017, 『간독이란 무엇인가?(簡牘檢畧考校注)』,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p.15~16), 1914年 京都 東山學舍를 통해 『流沙墜簡』이 發刊되었으나, 彩篋塚 發掘 當時 責任者 小泉顯夫 등은 認知하지 못하였던 듯하다.

7) 三月 錢四百

出 入兩行二百 居攝二年丁月壬戌省卒王書付門卒蔡愴

財用 檄廿三尺札百 (右上側有三個刻齒) (額濟納漢簡 99ES17SH1:2)

凌胡隧廣昌隧各請輸札兩行隧五十繩廿丈須寫下詔書 (敦煌漢簡釋文: 1944: 釋TH.1684A)

※ 김병준, 2009, 「중국 출토 자료의 해독 원리와 실제」, 문자의 문화사 강좌 2 강의자료에서 재인용.

8) 李解民, 2009, 「中國 日用類簡牘의 형태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木簡과 文字』 3號, pp.18~19. 『漢書』 郊祀志의 顏師古 注에서는 “札, 木簡之薄小者也.”라고 하였다(富谷至, 2003, 『木簡·竹簡의語る中国古代』, 岩波書店(임병덕 옮김, 2005, 『목간과 죽간으로 본 중국 고대 문화사』, 사계절, p.135)).

9) 富谷至, 2003, 앞의 책(임병덕 옮김, 2005, 앞의 책, p.97).

10) 富谷至, 2003, 앞의 책(임병덕 옮김, 2005, 앞의 책, p.85) ; 舘野和己, 2004, 「日本の木簡」, 『韓國의 古代木簡』,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p.398 등.

‘牘’을 설명할 때도 ‘쓰기 위한 札[ふだ]’, ‘쓰기 위해 가공한 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大庭脩 編著, 1998, 『木簡【古代からのメッセージ】』, 大修館書店, p.21).

11) 임경희·최연식, 2010, 「태안 마도 수중 출토 목간 판독과 내용」, 『木簡과 文字』 5號에서는 ‘대나무 화물표’로 지칭하였다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편, 2010, 『태안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에

이라는 用語를 採擇한 이유는 ‘竹簡’이라고 부를 경우 編綴된 形態를 聯想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2)</sup> ‘竹札’이라는 命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論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sup>13)</sup> 編綴을 前提로 아주 가늘게 만들었으며 殺靑 等の 工程을 거친 中國의 竹簡과의 形態的 差異가 考慮되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廣義의 ‘竹簡’ 範疇 속에서 具體的인 呼稱이 論議되어야 하겠다. 한편 樂浪郡 遺跡인 平壤 石巖里 194號墳에서 1924년에 出土된 ‘竹簡’에 대해서도 ‘竹札’의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다.<sup>14)</sup> 단, ‘木簡’에 대해서는 여전히 ‘木札’이라는 呼稱이 거의 使用되지 않고 있다.<sup>15)</sup>

簡牘·木簡의 用例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韓國人 研究者에게 直觀的으로 떠오른 用語는 ‘札’보다도 ‘牌’였던 듯하다.<sup>16)</sup> 1975年 全羅南道 新安郡 曾島 앞바다에서 1323年 寧波를 出發하여 日本으로 向하다가 難破된 沈沒船인 ‘新安船’이 發見되어 이후 9年間 調査·引揚이 이루어졌는데, 1982年~1983년에 荷物들에 붙어 있던 荷札들이 364點 出水되었다. 發掘者에 의해 이들은 ‘木牌’로 報告되었다.<sup>17)</sup> ‘木牌’라는 呼稱은 1988년의 綜合編 報告書에서 이들을 ‘木簡’으로 指稱한 日本의 論文을 參考文獻으로 引用하면서도 계속 사용되었고,<sup>18)</sup> 新安船 發掘 30周年을 紀念하여 發刊된 新安海底發掘 綜合報告書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sup>19)</sup>

‘자그마한 나무조각에 貿易商品에 대한 所有主들의 이름을 墨書한 것으로 말하자면 物標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소형의 木製名牌를 가르켜 이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sup>20)</sup> 形態뿐 아니라 ‘名牌’라는 用途를 勘案한 命名이었다고 여겨진다.<sup>21)</sup> 한편 이 때 ‘木牌’의 結縛

서부터 ‘竹札’이라는 呼稱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馬島2號船 및 3號船 出水产品에 대해서도 同一한 用語를 사용하였고(임경희, 2010, 「마도2호선 발굴 목간의 판독과 분류」, 『木簡과 文字』 6號 ; 임경희, 2011, 「마도3호선 목간의 현황과 판독」, 『木簡과 文字』 8號), 該當 遺物에 關한 研究들에 받아들여졌다(李鐘玟, 2011, 「泰安 馬島 해저출토품으로 본 고려 중기 청자의 편년문제」, 『이화사학연구』 제42집 ; 신은제, 2012, 「마도 1·2호선 出水 목간·죽찰에 기재된 곡물의 성격과 지대수취」, 『역사와 경계』 84 ; 윤용혁, 2013, 「고려의 백길과 섬, 최근의 연구 동향」, 『島嶼文化』 제42집 ; 윤용희·김응호·차미영, 2016, 「마도1호선에서 출수된 죽찰의 보존처리」, 『保存科學研究』 37 等).

12) 임경희, 2010, 「마도 1호선 목간의 분류와 주요 내용」, 『태안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607.

13) 앞서 言及한 中國의 ‘札’ 用例와 차이가 난다. ‘韓國 木簡’의 경우에서도 用途와 形態에 共通性이 있는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들이 ‘荷札’로 불리지만 이는 用途上의 分類이지 形態上의 呼稱이 아니며, ‘木札’로 指稱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14) 現在 文字는 確認되지 않지만 2~곳에 끈을 묶었던 흔적이 보여 編綴簡으로 把握한 데 대한 서울大 學校 金秉駿 教授의 討論 過程에서 언급되었다고 한다(안경숙, 2013, 「평양 석암리 194호 출토 竹簡 고찰」, 『木簡과 文字』 10, p.174 각주 30). 단, 여기서 ‘竹札’의 意味가 明確히 提示되지는 않았다.

15) ‘彩篋塚’ 出土 木牘에 대한 報告書 內容의 引用을 除外하면, 한정훈, 2015, 「동아시아 중세 목간의 연구현황과 형태 비교」, 『사학연구』 제119, p.264 【표 6】의 ‘태안선 목찰’·‘마도1호선 목찰’·‘마도2호선 목찰’·‘마도3호선 목찰’이 거의 唯一한 事例가 아닌가 한다. 단, 該當 論考 또한 【표 6】의 項目 部分을 빼면 일관되게 ‘木簡’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 표의 ‘木札’은 아마도 ‘竹札’ 表現에 起因한 것으로 推測된다.

16) 韓國 <國立國語院 標準國語大辭典>에서 ‘목찰(木札)’의 첫 번째 정의는 “나무를 깎거나 다듬을 때에 생기는 잔조각. =지저깨비.”, 두 번째 정의가 “나무로 만든 패. =목패.”이며, ‘목패(木牌)’는 “나무로 만든 패. =목찰.”로 정의되어 있다.

1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4, 『新安海底遺物 (資料編Ⅱ)』, pp.89~97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5, 『新安海底遺物 (資料編Ⅲ)』, pp.62~66.

18) 尹武炳, 1988, 「第3節 木牌」, 『新安海底遺物 (綜合編)』,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260에서 西谷正, 1985, 「新安海底發見の木簡について」, 『九州文化史研究紀要』 第30號를 參考文獻으로 들고 있다.

19) 文化재청·국립해양유물전시관·사단법인 바다문화회, 2006, 『新安船』.

20) 尹武炳, 1988, 앞의 글, p.253.

을 위한 加工方法 및 頭部와 下端部分의 形態에 따라 型式을 分類한 것이 주목된다. 단, 型式番號의 附與 外에 形態別 呼稱은 정하지 않았다.

### Ⅲ. 簡과 牘, 그리고 觚

彩篋塚 出土 ‘木札’이나 新安船 出水 ‘木牌’는, 韓半島 및 隣近 海域에서 發見되었지만 ‘中國’ 簡牘(혹은 日本 木簡)<sup>22)</sup> 觀點에서 다루어질 性格 또한 지닌다. ‘韓國 木簡 研究’의 始作은 1975年 慶州 雁鴨池(現 東宮과 月池)에 대한 發掘調査를 통해 發見된 木簡들에서 찾는 것이 一般의이다. 雁鴨池 發掘 現場에서 처음 ‘木簡’을 發見하였을 때 發掘 擔當者 역시 簡牘·木簡의 用語에 익숙하지 않았던 듯하다. 當時의 野帳에는 ‘木片에 글씨 有’, ‘木片 패’, ‘木片에 銘文 有 牌’, ‘木패’ 등의 記錄이 확인된다. 도중에 ‘木簡’의 呼稱이 認知된 듯 ‘木簡’이라는 呼稱이 混用되기 시작한다.<sup>23)</sup> 그리고 이것들이 ‘木簡類’로서 李基東에 의하여 發掘調査報告書에 整理되었다.<sup>24)</sup> 이후 ‘木簡’이라는 用語는 韓國 學界에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 때 中國과 日本의 木簡 發見 및 研究들을 概括하였는데,<sup>25)</sup> ‘簡牘’과 같은 用語는 言及 없이 ‘木簡’으로만 일관되게 표기하고 있어, 日本의 影響을 엿볼 수 있다. 단, 該當 論考에서는 墨書 面數를 除外하고는 木簡의 形態別 分類를 試圖하지 않았다. 대신 「IX. 保存科學的 處理」 부분에서 保存處理된 38點의 木簡을 平板型 30點, 隨圓筒型 8點, 位牌型 1點, 雜型 3點으로 區分하였다.<sup>26)</sup> 이것이 ‘韓國 木簡’에 附與된 最初의 形態別 呼稱이라 하겠다. 日本 平城宮址 出土品은 ‘短册形’이 大部分이라고 하여 日本의 形態 呼稱을 認識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平板型’이라고 命名하였음이 눈에 띈다.

- 21) ‘木牌’라는 表現은 뒤에 孫煥一, 2004, 「咸安 城山山城 출토 木簡의 書體에 대한 고찰」, 『韓國의 古代木簡』,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p.381에서 木簡을 典籍의 內容을 적은 文書木簡과 物品 꼬리표로 사용한 木牌木簡으로 區分할 때도 사용된 바 있다. 이 또한 形態뿐 아니라 用途에 基盤하고 있다. 단, 이 구분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2) 新安船 出水 ‘木牌’의 경우 日本 木簡의 範疇 속에서 다른 研究도 있었다(西谷正, 1985, 앞의 논문; 岡內三眞, 1987, 「新案沈船出土의 木簡」, 『東아시아의 考古と歷史(上)』, 岡崎敬先生退官記念事業會). 한정훈, 2015, 앞의 논문, p.255에서도 國籍에 대해서 決論을 내리지 않았다.
- 23) 發掘調査報告書 中 「Ⅲ. 發掘의 經過」의 發掘日誌에는 一括하여 ‘木簡’으로 記錄되었다(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8,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pp.13~49).
- 24) 李基東, 1978, 「Ⅵ. 出土遺物 6. 木簡類」,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 25) 관련 參考文獻으로 勞幹의 『居延漢簡 圖版之部·考釋之部』와 參鹿三, 1975 『東洋學研究 居延漢簡編』;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編, 1969, 『平城宮木簡 一 解說』 및 1978, 『藤原宮木簡 一 解說』; 坪井清足, 1972 「特輯·木簡 總說」, 『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 64; 1974 『九州考古學』 49·50合併號, 九州考古學會 등이 확인된다.
- 26) 金裕善, 1978, 「IX. 保存科學的 處理」,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452.

한편 pp.433~434의 第2表(A)에서는 平板과 筒形(‘筒形’은 ‘筒形’의 誤記로 推定됨)의 두 가지 區分만 보인다. 이를 池健吉에 의한 分類로 보기도 하지만(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p.34 및 이용현, 2007, 「목간 발굴 30년 -목간을 고고학한다는 것-」,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103), 金裕善의 글에서 ‘(文化財研究所 池健吉 學藝士 確認)’의 ‘確認된 文字를 옮겨 보았다고 한 것은 第2表(B)에 該當하고 第2表(A)는 ‘1975.9.25’의 날짜가 붙어있음을 볼 때 保存處理를 위해 引受한 以後 作成된 것이다. 出土位置나 名稱 등 情報가 發掘 擔當者로부터 引繼된 것임은 分明하나 ‘型’ 또한 그러한지는 確信할 수 없다.

이후 韓國 學界에서 木簡이 注目받고 研究가 本格化되는 것은 1990年代末 咸安 城山山城에서 木簡이 多數 出土되면서부터였다. 日本과 中國의 分類 方式도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 尹善泰는 日本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가 採用한 木簡의 形態分類(①~⑤)와 簡·札·牘 및 兩行·檄·契 等 中國 簡牘의 分類方式을 일부 紹介하였다.<sup>27)</sup>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은 內容에 基盤하여 A/B/C/D形 등으로 分類하였고, 形態에 대해서는 ‘短冊形’(①~③에 해당) 等 日本의 用語를 一部 活用하였다. 部分 形態의 呼稱으로서 ‘切入部’, ‘尖形’, ‘圭頭’ 等도 받아들이고 있음이 確認된다.

1999年 11月 韓國古代史學會와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는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內容과 性格’를 主題로 하는 國際學術會議를 開催하였고, 그 成果物이 2000年 『韓國古代史研究』 19에 收錄되었다. 中國 簡牘의 形態로서 簡·牘·簽牌(楬)·封檢·封泥匣의 區分을 提示하고,<sup>28)</sup> 城山山城 木簡 중 16枚가 一端의 左右側에 三角形 홈이 파였거나 끝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形態上 木楬(簽牌)에 該當한다고 보았다.<sup>29)</sup> 아울러 城山山城 木簡의 形態에 따른 分類로서 下部의 左右 홈 / 下部에 구멍 / 下部에 홈·구멍 모두 없음 / 下部缺損으로 인해 形狀不明 等 4分한 見解와,<sup>30)</sup> 木簡 下端部에 홈이 있는 것과 구멍이 있는 것으로 2分한 見解가 나왔다.<sup>31)</sup> 단, 이들에 形態別로 特別한 呼稱을 附與하지는 않았다.

이후 ‘簡’·‘牘’·‘觚’·‘檢’·‘楬’·‘符’·‘券’·‘契’·‘致’·‘傳’·‘柿’·‘契’ 등 中國 簡牘의 用語들이 더 具體적으로 整理·紹介되면서,<sup>32)</sup> ‘韓國 木簡’의 性格을 把握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韓國 木簡’의 形態別 呼稱으로 그대로 受容되기는 어려웠다. 이들 呼稱이 形態만을 基準定해진 것이 아니라 形態와 用途가 뒤섞여 있으며,<sup>33)</sup> 서로 明確히 區別하여 特定하기 어려운 경우도 存在하기 때문이다.

例컨대 ‘楬’의 경우 “머리 부분에 동그스름한 모양을 붙여 사선의 격자문양을 쓰던가”, “그 문양을 검게 칠하고 끈을 넣는 구멍을 만들거나”, “간의 상단에서 조금 아래 부분에 좌우로刻을 넣어 끈을 걸도록” 하기도 했다고 하여, 多樣한 形態를 提示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격표나 꼬리표로 사용했던 것”이라는 用途가 特定되었다.<sup>34)</sup> 여러 形態 中 左右에 묶기 위한 홈이 있다는 점에서는 ‘韓國 木簡’ 中 비슷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나, 이들을 모두 ‘木楬’로 보아도 좋을지, 그 中에서 付札·荷札의 用途가 確認되는 것들만을 ‘木楬’이라 불러야 할지, 內容을 통해 꼬리표로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나 形態가 위와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에 ‘韓國 木簡’ 中 一部에 대해서 ‘楬’과의 類似性を 指摘하거나, 그와 같은 用途의 것을 中國에서는 ‘楬’이라고 부른다고 言及하는 것을 넘어, ‘木楬’을 形態別 分類 呼稱으로 사용하는

27) 尹善泰, 1999,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木簡의 用途」, 『震檀學報』 88, pp.4~12.

28) 謝桂華 著/尹在碩 譯, 2000, 「중국에서 출토된 魏晉代 이후의 漢文簡紙文書와 城山山城 출토 木簡」, 『한국고대사연구』 19, p.177.

29) 위의 논문, p.201.

30) 平川 南 著/李鎔賢 譯, 2000, 「日本古代木簡 研究의 現狀과 新視點」, 『한국고대사연구』 19, 【附】咸安 城山山城출토 목간, p.135.

31) 李成市 著/李鎔賢 譯, 2000, 「韓國木簡연구의 現황과 咸安城山山城출토의 木簡」, 『한국고대사연구』 19, p.96.

32) 尹在碩, 2004, 「中國의 竹·木簡」, 『韓國의 古代木簡』,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 富谷至, 2003, 앞의 책(임병덕 옮김, 2005, 앞의 책).

33) 윤선대,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백제문화개발연구원 역사문고\_28)』, 주류성, p.75.

34) 富谷至, 2003, 앞의 책(임병덕 옮김, 2005, 앞의 책, pp.116~117).

경우는 一般的이지 않다.<sup>35)</sup> 2007年 韓國木簡學會 第1會 國際學術大會에서 提案된 韓國古代木簡의 形態分類案에 ‘2-5. 附札木簡(중국에서는 楬, 일본에서는 付札이라고 부름)’이 있었는데,<sup>36)</sup> 이에 대하여 討論者들이 共通的으로 形態가 아닌 用途를 지칭한 것으로서 形態分類로서 適合하지 않다고 指摘하였다.<sup>37)</sup> 形態別 分類에 用途가 섞여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준다.

이러한 問題는 2008年 “東아시아 古代木簡의 形態”를 主題로 열린 韓國木簡學會 第3會 學術大會 中에서도 指摘되었다. 秦漢 簡牘를 書檄謬·律令類·案錄類·符券類·簿籍類·檢牒類의 6種으로 區分하는 것은 形態上 意味와 文書上 意味의 性格 差異가 있어 同一線上에서 論議하기 어렵고, 『急就篇』의 簡·札·署·槩·牘나 『釋名』의 板·札·簡·笏·簿·槩·牘·籍·檄·檢·璽·印·調·符·傳·券·券·契·策·書·示·啓·書·刺·書·題·署에도 形態와 內容, 材質 等の 概念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sup>38)</sup> 대신 中國 古代 簡牘의 3대 基本 形態로서 簡·牘·觚를 提示하였다.<sup>39)</sup>

그런데 이 가운데 簡과 牘의 區分, ‘木牘’이라는 呼稱은 韓國 研究者들 사이에서 ‘中國 簡牘’에 대해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듯하다. 앞서 言及한 1930年代에 ‘木札’로 報告되었던 樂浪의 ‘彩篋塚’ 出土 遺物을 이제는 ‘木牘’으로 稱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2000年代에 들어 北韓에서 發見된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또한,<sup>40)</sup> 손영중이 이를 ‘목간’으로 呼稱하여 南韓에서도 잠시 ‘樂浪 木簡’으로 불렸다가, 寫眞이 確認되어 실제 모습이 알려지자 바로 ‘木牘’으로 正正되었다.<sup>41)</sup>

이렇게 樂浪郡 資料에 대해서는 ‘木牘’의 呼稱을 사용하는 데 반해, 新羅나 百濟의 木簡들 중에는 幅이 3cm 이상에 墨書도 2行 以上 書寫된 것들이 多數 存在함에도, 이들을 ‘木牘’으로 指稱한 事例가 거의 없다. 中國 研究者에 의한 整理에서 觚·木觚나 木楬形 등의 용어는 사용하면서도 牘·木牘은 사용하지 않았음 또한 눈에 띈다.<sup>42)</sup> 正方形에 가깝거나 가로가 더 긴 形態

35) 尹在碩, 2007, 「『中韓簡牘比較研究』 -從中國簡牘의 類別談起- 討論文(1)」,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195의 ‘標籤(木楬)’ 項目에서 “한국 목간 중 가장 많은 수량이 ‘標籤類’에 屬”한다고 한 것이나, 戴衛紅, 2017, 『韓國木簡研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pp.9~12 韓國木簡出土時間·地點·形制一覽表에서 ‘木楬形’을 刑制 區分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 등이 있다.

36) 尹善泰, 2007a, 「韓國古代木簡의 形態와 分類」,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53.

37) 李文基, 2007, 「『韓國古代木簡의 形態와 分類』의 토론문(1)」,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64 및 이성시, 2007, 「윤선태 :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분류』 토론문」,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橋本 繁(하시모토 시게루), 2008, 「윤선태 著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주류성, 2007년)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2號, p.266에서도 切込部가 있다고 반드시 付札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細長形木簡도 付札로 사용된 것이 있다는 점에서 ‘附札形木簡’ 名稱의 부적절함이 지적되었다.

38) 李解民, 2009, 앞의 논문, pp.18~19.

39) 위의 논문, p.18.

40) 北韓의 報告書에서는 木簡을 나무패쪽(혹은 글쓴 나무패쪽), 竹簡을 참대패쪽(혹은 글쓴 참대패쪽)이라 하거나, 단지 나무 조각으로 표현하였다고 한다(尹龍九, 2007, 「새로 발견된 樂浪木簡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한국고대사연구』 46, p.243 각주 5 참조).

한편, 2003년 3월 낙랑토성 서벽 근처의 우물유적에서 ‘4각 단면에 구멍이 나있는 나무 조각’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정봉찬, 2005, 「새로 발굴된 낙랑우물유적과 유물」, 『조선고고연구』 2005-2, p.25(尹龍九, 2007, 앞의 논문, p.243에서 재인용)), 이는 ‘木觚’에 해당하는 호칭일 수 있겠다.

41) 尹龍九, 2009, 「平壤出土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研究」, 『木簡과 文字』 3號, p.268.

42) 戴衛紅, 2017, 앞의 책, pp.9~12 韓國木簡出土時間·地點·形制一覽表.

板形, 棒形, 木楬形, 題簽軸形, 觚形·觚·木觚 및 簽牌, 削屑 등이 形制 區分에서 確認된다. 雙面長

의 木簡을 ‘方形木簡’이나 ‘가로형’ 혹은 ‘橫材木簡’ 등으로 區分하려는 試圖은 있었으나,<sup>43)</sup> 狹義의 簡과 牘을 區分할 必要性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다.<sup>44)</sup> 이는 編綴을 前提로 한 竹簡처럼 아주 細長한 ‘簡’이 發見되지 않은 데 起因한 측면이 있을 것이며, 먼저 簡과 牘의 區分을 받아들이지 않은 日本의 影響도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牘의 概念이 어디까지를 包括하는지 또한 明確하지 않은 面이 있다.<sup>45)</sup>

이처럼 樂浪 遺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도 新羅·百濟의 ‘木簡’들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牘’·‘木牘’과 달리 ‘觚’·‘木觚’는 新羅·百濟의 ‘木簡’들에 대해서도 相對적으로 많이 活用되었다. 韓國에서 많이 發見되는 多角形이나 圓柱形 斷面을 가진 木簡들에 대하여 中國의 ‘觚’에 該當한다는 言及이 비롯하여, 아예 ‘觚’·‘木觚’을 이들의 呼稱으로 사용한 事例들 또한 종종 확인된다.<sup>46)</sup>

‘韓國 木簡’에 ‘觚’가 어느 정도 쉽게 適用될 수 있었던 이유는, 日本에서 木簡 形式分類上 하나의 型式番號를 갖지 못하고 ‘用途未詳’의 065型式에 包含되어야 할 정도로 事例가 적은 該當 形態의 木簡이 韓半島 出土 木簡 中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sup>47)</sup> 日本의 用語에서는 마땅한 것을 찾을 수 없으므로, 適當한 名稱이나 源流를 中國의 木觚에서 찾으려는 試圖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木簡을 부르는 用語로서 ‘木觚’가 자리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觚’와 같은 것이라고 하거나, ‘觚’라고 부르면서도 正式 形態別 呼稱으로는 다른 用語를 提案하거나 使用

- 方形/四面體/六面體 등으로 區分하기도 하였다(p.14).
- 43) 尹善泰, 2007a, 앞의 발표문, pp.53~55 및 2007, 앞의 책, p.77~81에서 ‘2-3. 方形木簡(중국에서는 方이라고 부름)’을 形態分類 中 하나로 제시하였다. 但, ‘方’은 中國에서 簡牘을 만드는 材料나(富谷至, 2003, 앞의 책(임병덕 옮김, 2005, 앞의 책, p.133), ‘觚’의 異稱으로도 使用되고 있어(李解民, 2009, 앞의 논문, p.17), 混同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용현, 2006, 앞의 책, p.8 일러두기의 形態 區分 中 “가로형 : 橫材목간이라고도 한다. 보통은 목간은 세로로 긴데, 그와 반대로 가로로 긴 목간이다”가 있다.  
이재환의 木材 形態 코드番號로는 ‘2’(橫長方形 木板)에 該當한다(이재환, 2019, 「한국 출토 목간의 분류와 정리 및 표준화 방안」, 『木簡과 文字』 23號, p.35).
- 44) 단, 위의 木材 形態 코드番號에는 ‘1’(縱長方形 木板)의 細部區分 中 상대적으로 폭이 더 넓은 ‘11’이 있다(위의 논문, p.34). 한편, 윤선태, 2013, 「목간의 형태와 용도분류에 대한 기초적 제안」, 한국 목간학회 제17회 정기발표회 발표문에서 제시한 型式分類 假案에서는 ‘I: 긴 막대형태의 세장형목간’ 아래 ‘Ia: 길이나 장폭비를 고려한 하위형식’을 두어 下位形式 分類의 可能性을 남겼다.
- 45) 廣義로는 木材 材質의 書寫材料가 모두 ‘木牘’의 概念 속에 수렴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尹善泰, 2004, 앞의 글, p.358). 단, 해당 논고에서는 동시에 엄밀히 말하면 簡보다 폭이 넓은 ‘方形’의 나무판으로서 簡을 포괄할 수 없다고 부연하였다. 中國에서도 居延·敦煌 出土 漢簡을 모두 ‘牘’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馬先醒, 1993, 「簡牘制度之有無及其時代問題-附商王國維 <簡牘檢署考>」, 『國際簡牘學會會刊』 1(후평성(胡平生), 2017, 『『簡牘檢署考』 서론』, 『간독이란 무엇인가?(簡牘檢署考校注)』, 왕귀웨이(王國維) 원저/후평성(胡平生)·마월화(馬月華) 교주/김경호 역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57에서 재인용).
- 46) 尹善泰, 2004, 앞의 글, p.359 ; 이용현, 2006, 앞의 책, p.8 p.359 ; 尹善泰, 2007a, 앞의 발표문 및 2007, 앞의 책 ; 尹在碩, 2007, 앞의 글, p.194 ; 李炳鎬, 2008, 「扶餘 陵山里 出土 木簡의 性格」, 『木簡과 文字』 創刊號, p.76 ; 三上喜孝, 2008, 「일본 고대 목간의 계보 - 한국 출토 목간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 『木簡과 文字』 創刊號 ; 鄭在永, 2008, 「月城垓子 149號 木簡에 나타나는 史讀에 대하여 - 薛聰 當代의 史讀 資料를 중심으로 -」, 『木簡과 文字』 創刊號 ; 李均明, 2008, 「韓中簡牘 비교연구 -중국 간독의 분류설명에 의거하여-」, 『木簡과 文字』 創刊號 ; 戴衛紅, 2017, 앞의 책 등.
- 47) 6~7世紀 ‘韓國 木簡’ 文化를 中國 漢代의 ‘編綴簡文化’와 古代 日本의 ‘短冊形 木簡文化’에 對比되는 ‘多面木簡文化’로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尹善泰, 2007b,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 pp.168~170 ; 2007, 앞의 책, pp.71~74).

하는 경우가 더 흔했다. 斷面이 圓形인 경우를 ‘圓柱形 木簡’으로서 多角形 斷面인 것들과 區分짓기도 하고,<sup>48)</sup> ‘막대形’이나 ‘棒形’ 木簡으로 통칭하기도 한다.<sup>49)</sup> 現在 韓國 學界에서 이들을 指稱하는 데 더 一般的·普遍的으로 使用되고 있는 用語는 ‘多面木簡’으로 보인다.<sup>50)</sup> 이러한 形態의 木簡이 많다는 점을 ‘韓國 木簡’ 文化의 特徵으로 注目하면서 내세운 表現 또한 ‘多面木簡文化’였다.<sup>51)</sup>

사실 ‘多面’은 面數 基準의 呼稱으로서, 細長方形이나 長方形, 長方板形, 板形 등과 나란히 나오기보다 ‘單面’·‘兩面’과 對比되어 使用되는 편이 적당한 면도 있다. 多面形보다 多角形이 形態를 基準으로 할 때 더 어울린다는 지적도 있었다.<sup>52)</sup> 하지만 面數 基準의 呼稱과 外形 基準의 呼稱 中 어느 한 쪽만 남겨둘 必要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막대형·棒形 등의 表現이 結局 가리키는 것은 ‘多面木簡’의 形狀이며, 單獨簡이면서도 單面·兩面을 넘는 書寫面의 數를 가진 점이 가장 중요한 特徵이라 할 수 있으므로, ‘多面木簡’의 呼稱 使用도 그리 問題가 된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막대가 곧 漢字로 棒이므로 外形으로서 막대=棒, 面數로서 ‘多面’이 이들 木簡의 形態를 지칭하는 用語로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고 하겠다.

#### IV. 形態 用語의 ‘統一’ 問題

‘韓國 木簡’의 形態 分類는 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雁鴨池 出土木簡에 대한 平板型/圓筒型/位牌型/雜型의 區分에서 出發하였다.<sup>53)</sup> 1999년에 日本의 木簡 型式分類가 紹介되고, ‘短冊形’ 등 일부 用語들이 導入되어 使用되기 시작한다.<sup>54)</sup> 이후 咸安 城山山城 木簡을 對象으로 下部의 左右 홈 / 下部에 구멍 / 下部에 홈·구멍 모두 없음 / 下部缺損으로 인해 形狀不明 등 4분 하거나,<sup>55)</sup> 木簡 下端부에 홈이 있는 것과 구멍이 있는 것으로 2분하는 등<sup>56)</sup> 形態 分類가 이루어졌음 역시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다.

그 뒤에도 I 下端부에 V字홈이 파여진 것/II 短冊形인 것 - IIa 下端부에 구멍이 있는 것·IIb 구멍이 없는 것/III 破損된 것 - IIIa 上端部만 破損된 것·IIIb 下端部만 破損된 것·IIIc 上下端部 모두 破損된 것의 型式 分類,<sup>57)</sup> A. 홈이 있는 목간·B. 구멍이 있는 목간·C. 상단부 파손 목간·D. 하단부 파손 목간·E. 상/하 파손 목간의 區分,<sup>58)</sup> 단책형(I형) - 하단부에 구멍이

48) 尹善泰, 2007a, 앞의 발표문 및 2007, 앞의 책에서 ‘圓柱形木簡’과 ‘多面木簡’으로, 이경섭, 2013, 앞의 책에서는 ‘圓柱形木簡’과 ‘多面形木簡’을 구분하였다.

49) 이용현, 2006, 앞의 책은 ‘막대형’, 戴衛紅, 2017, 앞의 책 및 金在弘, 2022, 「韓國 古代 木簡의 分類 方案」, 『木簡과 文字』 28號는 ‘棒形’이라 하였다.

50) 尹善泰, 2007a, 앞의 발표문 및 2007, 앞의 책에서는 圓柱形木簡과 多面木簡을 區分하였으나, 윤선태, 2013, 앞의 발표문에서 提示한 形式分類 假案에서는 IV(四面木簡 등의 多面木簡)의 下位 型式으로 IV0(圓柱形木簡)을 包含시켰다.

51) 尹善泰, 2007b, 앞의 논문, pp.168~170(윤선태, 2007, 앞의 책, pp.71~74에 재수록).

52) 金在弘, 2022, 앞의 논문, p.35.

53) 金裕善, 1978, 앞의 논문, p.452.

54) 尹善泰, 1999, 앞의 논문, pp.4~5.

55) 平川 南 著/李鎔賢 譯, 2000, 앞의 논문, p.135.

56) 李成市 著/李鎔賢 譯, 2000, 앞의 논문.

57) 이용현, 2002,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과 6세기 신라의 지방 경영」, 『동원학술논문집』 5(이용현, 2006, 앞의 책, p.388에 재수록).

58) 이경섭, 2005, 「城山山城 출토 荷札木簡의 製作地와 機能」, 『한국고대사연구』 37, p.119.

없는 것(M형)· 하단부에 구멍이 있는 것(N형) / V자형의 홈이 파져 있는 것(II형) - 홈 부분의 하단부가 ‘一’자형으로 마감된 것(①형)·홈 부분의 하단부가 圭頭形(V형)으로 마감된 것(②형)·홈 부분의 하단부가 不定形으로 마감된 것(③) / I·II형 망라 - 상단부가 ‘一’자형인 것(A형)·상단부가 圭頭形인 것(B형)·상단부가 아치형(∩)인 것(C형)·상단부가 기타(D형)·상단부가 파손되어 형상을 알 수 없는 경우(?)의 具體的인 形態 分類가 있었으나,<sup>59)</sup>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에 맞추어진 것으로서 ‘韓國 木簡’의 分類로 一般化를 推究한 것은 아니었다.<sup>60)</sup>

‘韓國 木簡’全體에 適用할 形態 分類로서 처음 提示된 것은 ‘韓國 木簡’에 대한 첫 單行本 著書의 ‘일러두기’에 보이는 竪형 / 片型 / 막대형 / 가로형인 듯하다.<sup>61)</sup> 이후 韓國木簡學會 第1會 國際學術大會에서 韓國古代木簡의 形態分類가 本格的으로 論議되었고,<sup>62)</sup> 個別 研究者들에 의한 形態 分類의 試圖가 이어졌다.<sup>63)</sup> 지금까지 제시된 ‘韓國 古代 木簡’의 代表的 形態 分類案들을 모아보면 <표 1>과 같다.

애초에 日本의 木簡 形式分類는 形態別로 名稱을 붙이기보다 型式番號를 附與하는 方式으로 이루어졌다. 韓國에서도 이를 參照하여, 점차 나름의 型式番號나 code를 부여하는 方式이 推究되기 시작하였다.<sup>64)</sup> 特定한 形態를 나타내거나 用途와 形態를 結合한 呼稱을 使用하는 中國의 方式과는 差異를 보인다.

사실 形態와 用途는 密接한 關聯을 이루지만 반드시 一致하는 樣相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形態가 類似하지만 內容上 用途가 判異하거나, 性格은 同一한데 形態가 差異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된다. 아울러 形態의 要素들 또한 같은 層位에서 區分되는 것들과 서로 組合을 이룰 수 있는 것들로 나뉜다. 斷面의 形態와 平面 形態, 上·下端의 形態 등은 各各 區分되는 形態들이 있으나, 서로 多樣한 方式으로 結合되기도 한다. 때문에 이들에 각각의 呼稱을 부여하기보다는 型式番號로 分類하여 形態를 把握·區分하는 方向性을 擇하는 경우가 많다.

59)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木簡과 文字』 3號, p.57.

60) 個別的인 遺物群을 對象으로 한 形態 分類案으로서 이 밖에도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을 1형(장방형의 목재로 이것은 하부에 구멍을 뚫어 물건을 달 수 있게 제작되었다) / 2형(역시 하부에 구멍을 뚫어 물건을 달 수 있게 제작) / 3형(하부에 접입부를 만든 것) / 4형(상부를 삼각형 형태로 가공한 것) / 5형(상부에 접입부를 만든 것) / 6형(상하부를 도자로 정교하게 다듬어 제작하여 꺾어서 부러뜨린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표면 또한 매우 매끄럽게 제작된 목간들인데, 구리별 목간에서 확인된다. 기타 목간의 경우가 상부는 삼각형으로 가공하고 하부에는 절입부를 넣어 제작한 경우가 있다.)로 區分한 것(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IV 제II권 목간 및 목제품편』, p.270), 太安 海域에서 出水된 高麗時代 木簡을 ㉠꼬리표형(상단부 양쪽에 홈이 있는 목간) / ㉡부착형(한쪽만 홈이 있는 목간) / ㉢갈피형(홈이 없는 평평한 모양의 목간) 등으로 구분하거나(임경희, 2009, 「태안 대섬 고려 목간의 분류와 내용」, 『高麗靑瓷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p.458~459), ㉠홈형 - a.상단부 좌우에 홈·b.상단부 한쪽에 홈·c.상단부에 홈·d.중간부에 홈·e.하단부에 홈·f.상단부에 異形 홈 / ㉡장방형 / ㉢기타 - a.하단부가 뾰족한 모양·b.상단부에 구멍·c.상단부가 斜線으로 분류한 것(한정훈, 2015, 앞의 논문, p.264) 등이 있다.

61) 이용현, 2006, 앞의 책, p.8. 여기에는 日本의 付札·荷札에 해당하는 ‘꼬리표’도 등장하지만, 이것은 形態가 아닌 用途에 기반한 分類이다.

62) 尹善泰, 2007a, 앞의 발표문 ; 윤선태, 2007, 앞의 책.

63) 이경섭, 2013, 「新羅木簡의 출토현황과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試論」, 『신라문화』 42, pp.102~103 (이경섭, 2013, 앞의 책, pp.21~29에 재수록). 이 형태 분류 방식은 이후 이경섭, 2021, 「한국 고대 목간의 용도와 형태 분류」, 『민족문화논총』 77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尹善泰, 2013, 앞의 발표문 ; 戴衛紅, 2017, 앞의 책 ; 이재환, 2019, 앞의 논문 ; 金在弘, 2022, 앞의 논문.

64) 숫자는 객관적인 상징성을 지녀 의견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윤선태, 2013, 앞의 발표문, p.5).

표 1. '韓國 古代 木簡'의 形態 分類案들

이용현 (2006)	尹善泰 (2007)	이경섭 (2013)	戴衛紅 (2017)	윤선태 (2013)	이재환 (2019)	金在弘(2022)	日本 木簡學會	中國	
	1. 編綴簡								
홀형	2-1. 細長形木簡	長方板形木簡	板形	I   Ia	1   A/a	I 형 (長方形)	A/a (直角形)	011 (短冊型)	木簡, 木牘
가로형	2-4. 方形木簡				2		B/b (橫直角形)		方?
							C/c (圭形)		
							F (豐족形)		
				V	f		e' (豐족形)	051	
							D/d (半圓形)		
							E (斜線形)		
							e (斜線形)		
							D(홀형)		
							d(홀형)		
파임형	2-5. 附札形木簡	홀형木簡	木牘形 簽牌	II   III	II a   J, K II b   j, k II c   J', K' III a   H III b   h III c   H'		C(구멍형) c(구멍형)	031~039	木牘?
막대형	2-3. 圓柱形木簡	圓柱形木簡	棒形 觚形	IV	IV 0   40 IV 3   43 IV 4   44 IV 5   45	II 형 (棒形)	1(圓柱形) 2(三角形) 3(四角形) 4(五角形)	065 061	木觚
	2-6. 其他形式木簡	其他形態木簡	題簽軸形, 男根形		6				
	3. 木簡부스러기(削屑)		削屑	VI	9	III 형(부스러기)		091(削屑)	柿, 削衣
					8			081	
						G/g			
						M/m			
						X/x	x		

그런데 '韓國 木簡'의 樣相이 日本 木簡과 差異를 보이므로, 日本의 型式番號를 그대로 들여 올 수는 없었다. 中國이나 日本에서 使用하고 있는 分類方法을 採用하여 '韓國 木簡'을 分類할 경우, '韓國 木簡'의 特長을 제대로 表現할 수 없을 수 있음이 指摘되기도 하였다.<sup>65)</sup> 단, '短冊形'이나 '削屑' 등 각 型式의 形態를 說明하는 데 사용된 用語·呼稱은 一部 受容되거나 影響을 미쳤다.

이러한 用語나 呼稱의 導入에 대해서는 否定的인 見解도 있었다. 韓國의 獨自의인 研究用語의 正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66)</sup> 研究 用語의 '獨自性'이 꼭 必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

65) 橋本 繁(하시모토 시게루), 2008, 앞의 글, pp.265~267.

66) 박중환, 2007, 「『목간 발굴 30년』-목간을 고고한다는 것-토론문(2)」,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

문이 들지만,<sup>67)</sup> 言語·文化的 差異에 따른 用語·呼稱 選擇의 差異는 考慮해야 할 부분이다. 韓國人 研究者들에게는 낯설거나 어려운 用語들이 存在한다. 日本 木簡學會의 型式分類에서 形態 說明에 보이는 小形矩形이나 羽子板 등은 韓國 研究者들에 의해서는 아예 言及되지 않고 있다.

形態와 用途가 結合된 用語·呼稱 中 하나라 할 수 있을 ‘題籤軸’ 혹은 ‘題簽軸’도 원래 낯선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日本에서만 特別히 사용되는 用語로 보인다고 指摘하면서도 代替할 적절한 單語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受容하였으며,<sup>68)</sup> 이제는 비교적 通用되고 있다. 形態 分類 項目으로 설정된 日本의 型式番號 091에 該當하는 것은 ‘削屑’이라고 불리는데, 이 또한 韓國 語 話者에게 익숙한 單語가 아니었다.<sup>69)</sup> 中國의 경우 文獻에 보이는 ‘柿’에 해당하며, ‘削衣’로 부른다고 알려졌다.<sup>70)</sup> 이에 대해서 ‘목간 깎은 부스러기’를 거쳐,<sup>71)</sup> ‘목간부스러기’라는 용어가 제안되었다.<sup>72)</sup> ‘屑’이 韓國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글자라고 하여 ‘削片’으로 代替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으나,<sup>73)</sup> ‘削屑’은 韓國에서도 어느 정도 用語로서 자리를 잡은 듯하며,<sup>74)</sup> ‘屑’字 또한 韓國의 人名用 基本 漢字에 包含되어 있으므로 使用에 어려움이 없다. 단, ‘削屑’을 ‘목간 부스러기’로 說明하는 것처럼 ‘목간 부스러기’ 또한 使用例가 적지 않다. 韓國어 표현으로서 ‘목간 부스러기’와 한자어 ‘삭설’이 함께 통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形態 部分의 呼稱으로서 日本에서 ‘切込み’나 ‘切り込み’로 부르는 것 또한 히라가나까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切込’·‘切込部’로 사용하거나, 韓國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込’字를 ‘入’으로 바꾸어 ‘切入部’로 쓰는 경우들이 있었으며,<sup>75)</sup> ‘缺入部’라는 표현도 나왔다.<sup>76)</sup> 역시 日本式 呼稱에 대한 代替가 필요하다는 認識 下에 ‘V字홈’이나 ‘V字形의 홈’이라는 표현도 사용된 바 있고, ‘삼각형홈’·‘여기홈’이라는 표현도 함께 나타났다.<sup>77)</sup> 단, 木簡에 만들어진 ‘홈’의 形態가 반드시 ‘V’字나 삼각형 형태는 아니며, ‘여기’ 등으로 그 用途를 미리 特定할 필요도 없을 듯하다. ‘파임’이라는 用語가 提案되기도 하였으나,<sup>78)</sup> 이후 ‘홈’이라는 표현이 더 널리 퍼졌

아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122.

朱甫暉, 2008,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木簡과 文字』 創刊號, p.41에서는 日本과 비슷한 양상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木簡 關聯 모든 用語를 아무런 考慮 없이 日本式으로 따라가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橋本 繁(하시모토 시게루), 2008, 앞의 글, p.265에서도 “한국목간에 한국목간 독자적인 분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함을 인정하였다.

67) 中國에서도 ‘簡’·‘木簡’·‘漢簡’의 表現이 ‘日本 學界의 影響’임을 지적하고 否定的으로 보는 주장이 일부 있었지만, “설령 日本의 方式을 借用하더라도 괜찮다”는 인식 또한 있는 듯하다(후평성(胡平生), 2017, 앞의 글, pp.57~59).

68) 朱甫暉, 2008, 앞의 논문, pp.41~42.

69) ‘瑣屑’로 쓰거나(이용현, 2006, 앞의 글, p.104), ‘削瑣’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목간 - 소장품조사자료집』, p.40).

70) 윤재석 편저, 2022b, 『중국목간총람(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자료총서 02)』, 주류성, p.25.

71) 윤선태, 2007, 앞의 발표문, pp.53~56. ‘목감부’로 약칭하기도 하였다.

72) 윤선태, 2007, 앞의 책.

73) 윤재석 편저, 2022b, 앞의 책, p.25.

7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 II』, p.15에서 提示한 木簡 細部 名稱에 대한 統一案 中에도 項目名이 ‘삭설’로 등장한다. 단, 이를 ‘목간 부스러기’라고 說明하고 있다.

75) 尹善泰, 1999, 앞의 논문, pp.4~12.

76) 윤선태, 2007, 앞의 책, p.75.

77) 朴鍾益, 2000, 「咸安 城山山城 發掘調査와 木簡」, 『한국고대사연구』 19 등.

78) 이용현, 2006, 앞의 책, p.8.

다.<sup>79)</sup>

그런데 韓國 學界 內部的으로 統一이 必要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木簡’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基本的인 形態에 대한 呼稱이다. 비교적 좁은 幅에 세로로 긴 板形이 그것이다. 日本의 011型式에 해당하는 ‘短冊型’이라는 用語가 受容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短冊’·‘短冊’은 韓國의 言語·文化的 慣習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서, 그것으로 特定 木簡의 形態를 설명하기 어렵다. 漢字의 意味가 ‘깎은 가루(부스러기)’인 ‘削屑’ 등과는 다른 경우이다. 이에 ‘笏形’이 代替語로 제안되기도 하였다.<sup>80)</sup> 하지만 日本의 ‘短冊型’에 側面의 구멍이 뚫린 것은 포함되나 ‘홈’이 파인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홈이나 圭頭·尖尾 등이 加해질 수도 있음을 상정하면서 그 基盤이 되는 좁고 긴 形態를 지칭하고자 한다면 다른 단어를 찾는 것이 적합하다.

현재 ‘細長形’·‘長方板形’·‘板形’·‘縱長方形’·‘長方形’ 등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 나와 있다(표 1 참조). 대체로 意味는 비슷하나, 具體的으로는 가리키는 대상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混亂의 防止와 便宜를 위해서도 統一이 필요하다. 예컨대 그것들과 똑같은 形態이지만 墨痕은 없는 것들이 發見되고 있다. 이들을 아예 ‘木簡’에 포함시켜 정리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墨書가 있어야 木簡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中國의 용어 ‘槩’이 簡牘의 한 形態로 紹介된 바 있는데, 木簡을 만들기 위한 材料라는 면에서 木簡의 範疇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아울러 ‘槩’이 3尺 길이의 원판으로서 여러 개의 木簡(牘)을 만드는 재료라면,<sup>81)</sup> 형태적으로도 완성된 목간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木簡과 形態가 同一하나 墨書가 없는 것을 지칭하는 데는 사용하기 어렵다.

墨書는 없지만 ‘木簡’과의 形態의 類似性 때문에 그 聯關域을 어떻게든 表現하고자 하여, 發掘報告書 등에서 이를 ‘木簡形 木製品’, ‘木簡形 木器’ 등으로 命名하기도 한다.<sup>82)</sup> 그러나 이러한 表現이 成立하기 위해서는 ‘木簡’이 形態로 規定되어야 하는데, 현재 ‘木簡’은 形態를 통해 定義하지 않는 것이 一般的이므로 적절하지 않음이 지적된 바 있다.<sup>83)</sup> 多面木簡의 경우 ‘막대(奉)’ 形態의 特性上 墨痕 없이 木簡 與否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木簡形 木製品’·‘木簡形 木器’로 提示되는 것들은 대체로 縱長方形 板의 ‘典型的’ ‘木簡’ 形態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形態에 대한 呼稱이 確定된다면, 그것을 앞에 붙여 예를 들어 ‘縱長方形木簡形 木製品(木器)’ 등의 表現은 成立할 수 있다. 或은 ‘典型的’인 形態의 木簡을 ‘狹義의 木簡’으로 지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狹義의) 木簡形 木製品(木器)’ 역시 가능한 表現이 된다. 단, 廣義/狹義로 區分되는 同一한 呼稱의 사용은 混亂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역시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호칭 중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79) 이경섭, 2013, 앞의 책 ; 윤선태, 2013, 앞의 발표문 ; 이재환, 2019, 앞의 논문 ; 金在弘, 2022, 앞의 논문.

80) 이용현, 2006, 앞의 책, p.6. 여기서 “短冊이란 일본어로笏을 일컫는다”고 하였는데, 短冊(たんざく)와 笏이 同義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81) 大庭脩 編著, 1998, 앞의 책, p.22 ; 尹在碩, 2004, 앞의 글, p.392.

82) ‘木簡類’라는 表現으로 이들을 지칭한 경우도 있으나(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月城垓子 發掘調查報告書 II-고찰-』, p.137), ‘木簡類’는 원래 雁鴨池 發掘調查報告書에서 墨書가 있는 木簡 自體를 가리키던 表現이므로(李基東, 1978, 앞의 글), 混亂을 야기할 수 있다.

83) 이재환, 2019, 앞의 논문, pp.19~22.

##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韓國과 中國, 日本 學界에서 使用하는 形態別 呼稱 表現에는 1:1 對應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差異가 존재한다. 特히 日本과 韓國은 形態 分類와 用途別 分類를 區分하여, 形態 分類는 呼稱보다 나름의 型式番號나 code化를 推究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의 用語나 短一한 型式番號 體系로 統合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큰 틀의 形態別 및 形態 部位 呼稱·用語는 統一이 必要하며 가능할 수 있다. 단, 현재는 韓國 內에서의 ‘統一’도 요원한 상태이다. 사실 研究者들로 하여금 用語 使用을 統一하도록 強制하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木簡 研究를 主導하는 特定 學會나 機關에서 自體的으로 使用할 凡例를 確定하여, 該當 主體의 學術會議나 刊行物에 使用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그 바깥 영역에서도 굳이 다른 凡例를 만들 이유를 갖지 않는 이들은 만들어진 凡例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標準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계속하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韓國木簡學會에도 그러한 凡例는 아직 없다. 아마도 이는 ‘누가 어떻게’ 그것을 정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凡例의 作成을 實行할 時期가 된 듯하다.

## [참고문헌]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IV 제Ⅱ권 목간 및 목제품편』.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 Ⅱ』.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月城核子 發掘調査報告書 Ⅱ-고찰-』.
- 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목간 - 소장품조사자료집』.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4, 『韓國의 古代木簡』.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편, 2010, 『태안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 권인한·김경호·이승률 책임 편집, 2011,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동아시아문명총서 0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8,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4, 『新安海底遺物 (資料編Ⅱ)』.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5, 『新安海底遺物 (資料編Ⅲ)』.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8, 『新安海底遺物 (綜合編)』.
- 문화재청·국립해양유물전시관·사단법인 바다문화회, 2006, 『新安船』.
-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高麗靑瓷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백제문화개발연구원 역사문고\_28)』, 주류성.
- 윤재석 편저, 2022a, 『한국목간총람(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자료총서 01)』,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 윤재석 편저, 2022b, 『중국목간총람(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자료총서 02)』, 주류성.
-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 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 戴衛紅, 2017, 『韓國木簡研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왕귀웨이(王國維) 원저/후핑성(胡平生)·마웨화(馬月華) 교주/김경호 역주, 2017, 『간독이란 무엇인가?(簡牘檢署考校注)』,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大庭脩 編著, 1998, 『木簡 【古代からのメッセージ】』, 大修館書店.
- 富谷至, 2003, 『木簡·竹簡の語る中国古代』, 岩波書店(임병덕 옮김, 2005, 『목간과 죽간으로 본 중국 고대 문화사』, 사계절).
- 日本木簡學會 엮음/橋本繁·이동주 옮김, 『목간에서 고대가 보인다』,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편, 주류성
- 朝鮮古蹟研究會, 1934, 『樂浪彩篋冢(古蹟調査報告 第一)』
- 김병준, 2009, 「중국 출토 자료의 해독 원리와 실제」, 문자의 문화사 강좌 2 강의자료.
- 金在弘, 2022, 「韓國 古代 木簡의 分類 方案」, 『木簡과 文字』 28號.
- 朴鍾益, 2000, 「咸安 城山山城 發掘調査와 木簡」, 『한국고대사연구』 19.
- 박중환, 2007, 「「목간 발굴 30년」-목간을 고고한다는 것-토론문(2)」,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신은제, 2012, 「마도 1·2호선 出水 목간·죽찰에 기재된 곡물의 성격과 지대수취」, 『역사와 경계』 84.
- 안경숙, 2013, 「평양 석암리 194호 출토 竹簡 고찰」, 『木簡과 文字』 10.

- 尹善泰, 1999,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木簡의 用途」, 『震檀學報』 88.
- 尹善泰, 2007a, 「韓國古代木簡의 形態와 分類」,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尹善泰, 2007b,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
- 윤선태, 2013, 「목간의 형태와 용도분류에 대한 기초적 제안」, 한국목간학회 제17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 尹龍九, 2007, 「새로 발견된 樂浪木簡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한국고대사연구』 46.
- 尹龍九, 2009, 「平壤出土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研究」, 『木簡과 文字』 3號.
- 윤용혁, 2013, 「고려의 뱃길과 섬, 최근의 연구 동향」, 『島嶼文化』 제42집.
- 윤용희·김응호·차미영, 2016, 「마도1호선에서 출수된 죽찰의 보존처리」, 『保存科學研究』 37.
- 이경섭, 2005, 「城山山城 출토 荷札木簡의 製作地와 機能」, 『한국고대사연구』 37.
- 이경섭, 2013, 「新羅木簡의 출토현황과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試論」, 『신라문화』 42.
- 이경섭, 2021, 「한국 고대 목간의 용도와 형태 분류」, 『민족문화논총』 77.
- 尹在碩, 2007, 「「中韓簡牘比較研究」 -從中國簡牘的類別談起- 討論文(1)」,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李文基, 2007, 「「韓國古代木簡의 形態와 分類」의 토론문(1)」,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李炳鎬, 2008, 「扶餘 陵山里 出土 木簡의 性格」, 『木簡과 文字』 創刊號.
- 이용현, 2002,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과 6세기 신라의 지방 경영」, 『동원학술논문집』 5.
- 이용현, 2007, 「목간 발굴 30년 -목간을 고고학한다는 것-」,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이재환, 2019, 「한국 출토 목간의 분류와 정리 및 표준화 방안」, 『木簡과 文字』 23號.
- 李鐘玟, 2011, 「泰安 馬島 해저출토품으로 본 고려 중기 청자의 편년문제」, 『이화사학연구』 제 42집.
- 임경희, 2010, 「마도2호선 발굴 목간의 판독과 분류」, 『木簡과 文字』 6號.
- 임경희, 2011, 「마도3호선 목간의 현황과 판독」, 『木簡과 文字』 8號.
- 임경희·최연식, 2010, 「태안 마도 수중 출토 목간 판독과 내용」, 『木簡과 文字』 5號.
-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木簡과 文字』 3號.
- 鄭在永, 2008, 「月城垓子 149號 木簡에 나타나는 吏讀에 대하여 - 薛聰 當대의 吏讀 資料를 중심으로 -」, 『木簡과 文字』 創刊號.
- 朱甫墩, 2008,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木簡과 文字』 創刊號.
- 한정훈, 2015, 「동아시아 중세 목간의 연구현황과 형태 비교」, 『사학연구』 제119.
- 謝桂華 著/尹在碩 譯, 2000, 「중국에서 출토된 魏晉代 이후의 漢文簡紙文書와 城山山城 출토 木簡」, 『한국고대사연구』 19.
- 李均明, 2008, 「韓中簡牘 比較연구 - 중국 간독의 분류설명에 의거하여-」, 『木簡과 文字』 創刊號.
- 李解民, 2009, 「中國 日用類簡牘의 형태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木簡과 文字』 3號.

- 岡内三眞, 1987, 「新案沈船出土の木簡」,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上)』, 岡崎敬先生退官記念事業會.
- 橋本 繁(하시모토 시게루), 2008, 「윤선태 箸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주류성, 2007년)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2號.
- 三上喜孝, 2008, 「일본 고대 목간의 계보 - 한국 출토 목간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 『木簡과 文字』 創刊號.
- 西谷正, 1985, 「新安海底發見の木簡について」, 『九州文化史研究紀要』 第30號.
- 李成市 著/李鎔賢 譯, 2000, 「韓國木簡연구의 현황과 咸安城山山城출토의 木簡」, 『한국고대사연구』 19.
- 이성시, 2007, 「윤선태 :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분류」 토론문」,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平川 南 著/李鎔賢 譯, 2000, 「日本古代木簡 研究의 現狀과 新視點」, 『한국고대사연구』 19.

# 일본 고대 목간의 형식분류와 기능적 분류

---

三上喜孝(國立歷史民俗博物館)



# 일본 고대 목간의 형식분류와 기능적 분류

三上喜孝(國立歷史民俗博物館)

---

## 〈목차〉

- I. 머리말
  - II. 출토사례 증가에 따른 형식번호의 추가 - 봉함(封緘)목간-
  - III. 부찰목간의 형식과 그 기능
  - IV. 각주상(角柱狀)의 목간
  - V. 맺음말
- 

### I. 머리말

본 보고는 일본 고대목간의 형식분류와 기능적 분류의 현황에 관해서 소개하여 그것을 동아시아 목간 문화 속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간 사례는 7세기 전반 쯤의 것이다. 7세기는 일본 고대국가가 중앙집권적인 관료제국가를 지향한 시기이며 7세기 후반에는 중국의 율령제도를 도입한 율령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관료제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문자를 통한 기록이나 명령이다. 목간의 사용은 국가체제 정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고대목간은 8-9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10세기 이후에는 이용이 줄어들었다. 율령국가의 성쇠와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율령국가는 문서행정을 주체로 하는 관료제국가이며 거기서는 다양한 행정문서가 작성되었다. 그 기반이 된 것이 목간이다. 목간은 종이에 비해 견고하다는 특징이 있고, 정보 내용이나 분량에 맞추어서 형태나 크기를 가공할 수 있으니 일상적인 정무에서 쓰기 편한 정보전달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목간에는 다양한 기능이 부여되어 그에 따라 여러 형태로 만들어졌다. 일본 고대목간의 특징적인 형태로는 ①短冊(글씨를 쓰기 위한 조봇한 장방형 종이-옹긴이)型, ②短冊型 재(材)의 상하 양단 또는 일단에 홈(切込)을 판 것, ③재의 일단을 칼끝 모양(劍先型)으로 뾰족하게 만든 것 등이 있다. 이 이외에 목제품에 묵서한 것이나 목간 표면에서 깎아낸 박편(削屑)에 남아 있는 묵서도 목간이다.

일본 목간의 분류로 이른바 “형식번호”가 있다. 이는 목간의 형태적 특징에 주목하여 분류한 것이다. 목간의 제일의적인 분류는 이 “형식번호”로 분류된다. 내용에 따른 분류 말고 형태적 특징으로 인한 분류를 제일로 한 것은 목간을 고고자료로 본다는 일본 목간 연구의 자세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목간학회 등에서 채용하고 있는 형식번호는 아래와 같다.

011형식 短冊型

015형식 短冊型으로 측면에 구멍을 뚫은 것

- 019형식 일단이 방두(方頭)이고 다른 일단은 파손, 부식으로 원형을 잃은 것
- 021형식 소형 구형(矩形)인 것
- 022형식 소형 구형인 재(材)의 일단을 규두(圭頭)로 한 것
- 031형식 장방형 재의 양단 좌우에 홈을 판 것
- 032형식 장방형 재의 일단(一端) 좌우에 홈을 판 것
- 033형식 장방형 재의 일단에 홈을 파고 다른 일단을 뾰족하게 한 것
- 039형식 장방형 재의 일단 좌우에 홈을 팠지만 다른 일단은 파손, 부식 등으로 원형을 잃은 것
- 041형식 장방형 재의 일단 좌우를 깎아 羽子板 자루 모양으로 만든 것
- 043형식 장방형 재의 일단 좌우를 깎아 羽子板 자루 모양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 좌우에 홈을 판 것
- 049형식 장방형 재의 일단 좌우를 깎아서 羽子板 자루 모양으로 만드는데 다른 일단은 파손, 부식 등으로 원형을 잃은 것
- 051형식 장방형 재의 일단을 뾰족하게 만든 것
- 059형식 장방형 재의 일단을 뾰족하게 만들고 다른 일단은 파손, 부식 등으로 원형을 잃은 것
- 061형식 용도가 명백한 목제품에 목서가 있는 것
- 065형식 용도를 알 수 없는 목제품에 목서가 있는 것
- 081형식 파손, 부식 등으로 원형을 알 수 없는 것
- 091형식 削屑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를 검토한다. 크게 나눠 a문서목간(文書木簡), b부찰목간(付札木簡), c기타 로 분류된다. “문서목간”은 다시 발신인과 수신인이 명백한 협의의 “문서”와 물품 출납 등을 기록한 “기록(장부)”으로 나눌 수 있고 “부찰”은 稅 등을 공진 할 때 매다는 “공진물하찰(貢進物荷札)”과 물품관리용으로 물건에 매달리는 “물품부찰(物品付札)”로 나눌 수 있다. “기타”로는 나무 조각에 전적(典籍) 일부를 서사하거나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써서 글자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습서(習書)”나 주술의 글자나 기호를 쓴 “주부(呪符)”같은 목간이 포함된다.

종류	내용	형태적 특징
문서목간	협의를 문서목간(발신인과 수신인이 명백한 목간) 기록간(장부 등)	①短冊形
부찰목간	공진물하찰목간(공진물에 매달리는 하찰) 물품관리용부찰(물품의 정리 보관용)	②상단이나 하단 좌우에 홈이 있다 ③재 일단을 칼끝 모양으로 뾰족하게 만든다
기타	습서목간 주부목간(부적찰) 등	

목간의 형태는 내용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문서목간”은 ①의 형태가 대부분이고 “부찰”은 ②③형태에 대응된다. “부찰”은 끈을 써서 물품에 매달기 위해 短冊型 재에 홈을 파서 끈을 걸기 쉽게 하거나 재 일단을 칼끝 모양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서 끼기 쉽게 한다. 문서는 그러한 가공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또는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규격성이 높은 短冊型 목간으로 만들어졌다.

목간은 출토된 유구 조건으로 많은 경우에 불완전한 형태이거나 목서가 잘 남아있지 않은데 목간의 형태와 내용이 대응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서목간인지 아니면 부찰목간인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목간 내용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다. 일본 목간연구는 오랫동안 축적된 형태나 기능 분류작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간의 형식 분류는 기재내용 검토 이전에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에서 검토하는 과제는 일본 고대목간의 형식이나 내용면의 분류 현상을 바탕으로 그것이 동아시아 목간에서 어떤 공통성 또는 차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하 보고자의 관심에 따라 일본 고대목간의 분류와 명칭 문제를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검토하겠다.

## II. 출토사례 증가에 따른 형식번호의 추가 - 봉함(封緘)목간-

일본 목간의 형식번호는 1979년의 목간학회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거의 변함없다. 하지만 목간 출토사례 증가로 새로 설정된 형식번호가 하나만 있다. 그것이 04로부터 시작되는 형식번호이다.

- 041형식 장방형 재의 일단 좌우를 깎아 羽子板 자루 모양으로 만든 것
- 043형식 장방형 재의 일단 좌우를 깎아 羽子板 자루 모양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 좌우에 홈을 판 것
- 049형식 장방형 재의 일단 좌우를 깎아 羽子板 자루 모양으로 만들고 다른 일단은 파손, 부식 등으로 원형을 잃은 것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어떤 유형의 목간을 상정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들은 구체적으로는 “봉함(封緘)목간”이라고 불리는 종이 문서를 봉함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제품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한 목제품 안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글자가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봉함목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형식번호 설명 속에 있는 “羽子板(하고이타)”란 장방형 판자 하부를 깎아 자루 모양으로 만든 것을 뜻한다. 문서를 봉함할 때에는 장방형 판자 부분을 세로 방향으로 쪼개 그 사이에 종이 문서를 끼어넣어 끈으로 맷어서 봉한다. 끈으로 맷을 때에 장방형 판재 좌우에 홈을 판 경우도 있다. 이것이 043형식이다.

그래서 043형식은 일견하면 좌우에 홈을 판 하찰목간과 형태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하부가 자루 모양으로 성형되고 있는 등 다른 특징으로 인하여 하찰목간이 아니라 봉함목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없었던 형식번호를 새로 추가하게 된 것일까. 그 계기가 된 것이 1994년에 니이가타현(新潟縣)에서 열린 목간학회 특별연구집회였다. 니이가타현의 하치만바야시(八幡林)유적은 8세기 전반부터 9세기에 걸친 지방관아 유적으로 추정되는데 그 유적에서 지방관아의 실태를 보여주는 수많은 목간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징적이었던 것이 봉함목간이다. “羽子板” 모양 판자에 “上郡殿門” “上大領殿門” 같이 군 장관에게 보낸다는 뜻의 進上文言이 적혀 있어 이것을 통해 지방관아에서 봉함목간을 사용한 종이문서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에 주목한 것이 사토 마코토(佐藤信) 씨였다.<sup>1)</sup> 사토 씨는 비슷한 형태의 목간을 집성하여 헤이조쿄(平城京)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새로운 목간 형식분류를 제창한 것이다.

『木簡研究』 17호(1995년)까지는 04로 시작하는 형식번호는 범례에 없었지만 18호(1996년)부터 04로 시작하는 형식번호가 정식으로 채용되었다.

이 04로 시작하는 형식번호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sup>2)</sup> 대부분이 봉함목간을 상정한다고 할 수 있다. 보통, 목간의 형식번호와 그 목간의 용도나 기능은 따로 생각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 04로부터 시작하는 형식번호에 관해서는 그 형식과 목간의 용도가 거의 일치한다. 그런 뜻으로 03로 시작하는 형식번호를 가지는 목간의 대부분이 부찰목간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발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생각하면 봉함을 “용도가 명확한 목제품”으로 간주하여 거기에 목서가 있다고 보고 061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릴 것이다.

예를 들면 특징적인 형태의 목간으로 “제침축(題箋軸)”이라는 것이 있다. 문서를 감기 위해 축 상부를 폭이 넓은 장방형으로 만들고 거기에 문서 정보를 쓰는 “제침축” 목간이 각지에서 출토되었다. 많은 경우 긴 축 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기 때문에 축 상부에 있는 작은 장방형 부분만이 출토되는데 제침축을 염두에 둔 형식번호를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현재 형식분류로는 061형식 즉 “용도가 명확한 나무 제품에 목서된 것”으로 파악된다. 목간 형태를 어디까지 “형식”으로 인식할 것인지, 또는 목간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목간으로 보는지, 나무 제품의 목서로 보는지 등)는 엄격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 Ⅲ. 부찰목간의 형식과 그 기능

다음에 03로 시작하는 형식번호에 포함되는 부찰목간에 대해 검토한다.

상단부 또는 하단부에 좌우에서 홈을 판 부찰목간은 중국 진간(晉簡)에도 보이고 한국에서는 성산산성목간에 대표되는 6세기대 목간에 이미 확인된다. 일본열도에서는 목간이 처음 시작되는 7세기 단계에 널리 사용되었고 목간의 사용과 동시에 부찰로 사용되기 시작된 것이 의심의 여

1) 佐藤信「封緘木簡考」『日本古代の宮都と木簡』吉川弘文館, 1997(논문이 처음 발표된 건 1995).

2) 미야기현(宮城縣) 센다이시(仙台市) 고오리야마(郡山)유적 출토 목간은 장방형 하부를 자루 모양으로 만든 형태로 04로 시작하는 형식이지만 그 용도는 사경용(寫經用) 자로 추정된다.

지가 없다. 일본에서는 고대목간만이 아니라 근세 에도(江戸)시대에 이르기까지 1000년 이상 계속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하찰목간이 널리 사용되었다. 하찰로 기능하기 위해 극히 유효한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좌우에서 흙을 판다”는 특징적인 형태를 가진 부찰(하찰)목간에 관해서 최근에는 더 미세한 형태에 주목하여 연구되고 있다. 다음에 최근의 연구를 소개하여 부찰(하찰)목간 연구의 가능성을 추구해 본다.

부찰(하찰)목간의 형태적특징은 좌우 흙 이외에 단부를 直頭(方頭) 모양, 尖頭 모양으로 성형한 것이나 하단부를 칼끝 모양으로 성형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적인 차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논이 있는 부분인데 상세히 분석한 도모다 나나미(友田那々美) 씨에 따르면 단부 형태는 목간을 만든 사람의 개성에 따른 것이 크고 하찰 기능과 본질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라고 한다.<sup>3)</sup>

도모다 씨는 또한 하단부를 칼끝 모양으로 성형한 하찰목간이 공진물인 쌀, 소금의 하찰로 특화된 형태인 것을 지적했다. 다만, 칼끝 모양으로 성형한 것의 의미를 섬 등 짐에 매달린 새끼 사이에 콧기 쉽도록 한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되었던 것에 대해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하나의 가능성으로 쌀이나 소금 같은 공진물 안에 넣기 위하여 하단을 뾰족하게 만들고 콧기 쉽도록 한 것으로 추정했다. 즉 물품 바깥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물품 안에 넣는 것을 상정한 것이다.

이른바 하찰목간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물품 바깥쪽에 매달리고 글자 그대로 하찰의 역할을 한 것과 쌀 가마나나 소금 바구니 속에 넣고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견해가 근년에 주장되어 있다.<sup>4)</sup> 이는 종래 하찰목간 연구에 없었던 관점이며 계승해야 할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출토 목간과 관련해서는 성산산성 출토 하찰 목간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산산성목간에는 내용이 같은 하찰 목간이 많이 발견되는데 앞으로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공통적인 사용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또 재의 좌우에 흙이 있는 “부찰목간”에는 이른바 공진물에 매달린 “하찰목간”과 “물품관리용 부찰” 2가지가 있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에도 되돌아가야 한다. 한국출토목간의 사례로는 성산산성 출토 부찰 목간은 대부분이 각지에서 산성으로 운반된 “공진물부찰” 즉 “하찰”이고,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부찰목간은 발효식품 등의 용기에 매달린 “물품관리용 부찰”이다. 이는 일본의 부찰목간이 상정하고 있는 기능분류와 공통성이 보인다. 이들은 형식번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성질이며 형식분류와 더불어 용도나 기능 분류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IV. 각주상(角柱狀)의 목간

일본 고대목간과 한국 출토 목간의 형태 비교를 생각하는데 현자한 차이가 보이는 것은 한국에서는 사각주 4면에 문서 또는 기록을 쓴 각주상 목간이 많다는 점이다. 원래 중국에서도 각

3) 友田那々美「古代荷札の平面形態に関する考察」『木簡研究』25、2003.

4) 平川南「木簡と農業」『古代地方木簡の研究』吉川弘文館、2003. 鈴木景二「古代の俵の札のはなし」『木簡研究』26、2004. 馬場基「荷札と荷物語るもの」『日本古代木簡論』吉川弘文館、2018(2008).

주상 목간은 출토 사례가 있고 그들은 “고(觚)”라고 불린다.

한국의 각주상 목간은 주로 문서목간이나 기록간, 그리고 논어를 서사한 목간으로 이용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문서목간]

○함안 성산산성 출토 4면목간\*

- 三月中眞乃滅村主懼怖白
- □城在弥即尔智大舍下智前去白之
- 即白先節本日代法稚然
- 伊毛穰及伐尺采言□法卅代□今卅日食去白之

전체 내용은 미상이지만 제1면에 이 목간을 보낸 발신인 “眞乃滅村主”가 명기되고 제2면에 이 목간을 받는 수신인이며 대사(大舍) 관위를 가지는 관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목간에는 “白”자가 반복해서 사용된다. 제1면 마지막에는 “懼怖白”이라고 해서 “두려워하면서 아뢰니다”라는 뜻일 것이다. 제2면 마지막에는 “前去白之”이라고 하여 “대사님 앞에 아뢰니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당연히 생각된다. 이들 표현은 일본 7세기 목간에 특징적인 “某 앞(前)에 아뢰다(白)”라는 기재양식을 가진 “前白木簡”과 공통되어 이 목간이 문서목간임을 뜻한다.

문서를 쓴 각주상 목간은 이 이외에 경주 월성해자, 경기도 하남시 이성산성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 [기록간]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목간

- 支藥兒食米記 初日食四斗 二日食米四斗小升一 三日食米四斗×
- 五日食米三斗大升 六日食米三斗大二 七日食三斗大升二 九日食米四斗大×
- □道使□□次如逢使猪耳其耳其身如黑也 道使□□弹耶方牟氏牟祿祿耶×
- ×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위아래 구꾸로 되어 있음)

사각주 4면에 기재가 있고 일부 습서로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약아(支藥兒)의 식미 지급을 매일 기록한 목간으로 생각된다.

### [논어목간]

○김해시 봉황동지구 출토 목간

- ×不欲人之加諸我吾亦欲无加諸人子×
- ×文也子謂子產有君子道四焉其×
- ×已□□□色旧令尹之政必以告新×
- ×違之何如子曰清矣□仁□□曰未知×

(209)×19×19

○인천광역시 계상산성 출토 목간

- 賤君子 [            ]
- 吾斯之未能信子□

- □不知其仁也求也
- [                    ]
- [            ] 子曰吾

(138) × 18.5

○충북 부여군 쌍북리 출토 목간  
 □子曰学而時習之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人不知而不愠。不亦□〔君〕  
 子乎有子曰其為人也

각주상 4면에 문서 또는 기록을 쓴 목간은 일본 고대목간에는 거의 없고 한반도에 특징적인 형태이다. 고대일본의 경우 문서목간이나 기록간은 대부분이 장방형 판자상 재의 앞면 또는 앞 뒤 양면에 쓴 것이며 논어의 습서목간에 관해서도 그렇다.

그럼 왜 한국에서는 각주상 목간이 널리 사용되었을까. 그 배경으로 3가지 가능성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한반도 출토 목간의 재는 소나무 가지를 이용하는 것이 많아 봉상 가지를 각주로 만들고 글자를 효율적으로 4면에 배치했다고 생각된다. 즉 한반도의 식생(植生)이나 목간의 수종(樹種)에 규정된 가능성이다.

둘째, 중국의 冊書(編綴簡)의 영향을 상정하는 것이다. 각주상 목간은 폭이 좁은 면에 각 1행씩 글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글자가 있는 면을 전개하면 마치 책서(편철간)와 같이 된다. 각주상 목간을 발상한 원점에는 중국의 책서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셋째, 한반도 목간문화가 비석문화의 영향을 받은 가능성이다. 광개토태왕비를 비롯하여 고구려나 신라 비석에는 다면체로 성형한 석재 각면에 글자를 새긴 사례가 많다. 각주상 목간도 그러한 한반도 비석 양식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을까.

중국의 “고(觚)”와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한반도 출토 각주상 목간은 그와 다른 기능이 있는 점이나 다음에 설명하는 일본 고대목간과도 다른 점은 한중일의 목간(간독문화)의 비교연구를 하는데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다음에 고대일본의 각주상 목간에 대해 검토한다. 고대일본에서는 문서목간이나 기록간이 각주상 목재에 쓰이는 것은 초기 단계부터 거의 없다. 장방형 판자상의 한 면 또는 양면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출토목간과 공통되는 것으로는 도쿠시마현(德島縣) 간논지(觀音寺)유적 출토 “논어목간”이 사각주상 목재를 이용해서 논어를 서사하는데 이는 한반도 논어목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도쿠시마현(德島縣) 간논지(觀音寺)유적 출토 목간

- □□依□□乎□止□所中□□□
- 子曰 学而習時不孤□乎□自朋遠方來亦時樂乎人不□亦不愠
- □□□□乎
- [            ] 用作必□□□□□人 [            ] □□□

(635) × 29 × 19 081형식

문서목간에 해당하는 각주상 목간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간도 있다.

○가고시마현(鹿兒島縣) 교텐(京田)유적 출토 목간

- 告知諸田刀□〔祢?〕等 勘取□田二段九条三里一曾□□ (第一面)
- 右件水田□□□□子□〔息?〕□□□□□□□□ (第二面)
- 嘉祥三年三月十四日 大領薩麻公 (第三面)
- 擬小領 (第四面)

(400) × 26 × 28 081형식

모두에 ‘告知’로 있듯이 이 목간은 논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하단을 뾰족하게 만들었으니 애초부터 땅에 꽂아 세워놓은 말뚝으로 사용되었는데 상단에도 뾰족하게 만든 흔적이 있으므로 나중에 위아래를 거꾸로 해서 다시 말뚝으로 전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테현(岩手縣) 도노우에(道上)유적 출토 목간

- 禁制田參段之事 字垂楊池□〔側?〕
- 右田公子廣守丸進田也而□□酒□□
- 件田由被犯行者□□役主 ◇ 之契狀□〔并?〕
- 白于禁制如件
- [       ]
- 永□二□二□

463 × 44 × 42 061형식

이것도 교텐유적 출토 목간과 같이 하단을 뾰족하게 만든 것이며 땅에 꽂아 말뚝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역시 논의 권리에 관한 것이며 땅 영유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 말뚝을 세워 거기에 땅 권리를 주장한 문언을 쓰는 것이 널리 있었던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시카와현(石川縣) 사시에(指江)B유적 출토 목간

- 大國別社□ [   ] 略=祓集厄第 [   ] 佐□阿加□ [   ] 田 [   ] 穂根

857 × 30 × 24 011형식

장대한 목간이며 형태로 봐서 땅에 세워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大國別社” “祓集厄” 같은 내용으로 경계 제사와 관련된 목간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 사례로 공통되는 점이 각주상 목재에 글자를 쓰는 경우 고대일본에서는 땅의 권리나 경계를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말뚝 같은 목제품에 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는 점이다. 한국에서 최근에 출토된 경산시 소월리 출토 목간이 이와 비슷하다고도 생각되는데<sup>5)</sup> 고대 일본에서는 각주상 목간이 극히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기서는 확인해 두고 싶다.

5) 橋本繁「慶山・所月里木簡の性格」慶北大学校人文学院HK+事業団・国立歴史民俗博物館共同学術大会 『고대한국과 일본의 문자문화와 서사자료』2022년 2월 23일.

그런데 보고자가 조사한 사례로 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각주상 목간도 있다. 그것이 아키타현(秋田縣) 아키타성(秋田城)터에서 출토된 十干十二支를 나열한 목간이다.

○아키타현(秋田縣) 아키타성(秋田城)터 출토 목간(●는 구멍)

- □□●□□●丙寅●丁卯●戊辰●□□●庚□●□□●壬□●□酉●
- □□●乙□●□子●□□●□□●己□●庚□●辛巳●壬午◇癸未
- □□●□□●丙戌●丁□●□子●己丑●庚寅●辛卯●壬辰●□□
- □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 壬寅 癸□
- □□ 乙□ □午 丁未 戊申 □□ □□ □□ 癸□
- □□ □卯 □□ □□ □□ 己未 庚申 □酉 壬戌
- □□ □□ □□ □□ 戊辰 □□ 庚□ □□ 壬申 □酉

277×27×27 065형식

이 목간은 각주상 목간 7면에 “甲子”부터 “癸亥”까지 六十干支를 쓰고 간지 아래에는 가는 막대기를 꽂는 구멍이 뚫려 있다. 이는 날짜가 바뀔 때마다 그날 간지 아래 구멍 부분에 막대기를 꽂아 그날의 간지를 알기 위한 도구였다고 추정된다.<sup>6)</sup> 그런데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시작품이나 미제품의 가능성이 있다.

이와 비슷한 목간은 19세기 초에 스가에 마스미(菅江真澄)라는 기행가(紀行家)가 아키타를 방문했을 때 화산 분화로 매몰된 헤이안(平安)시대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소개하였으며 형태는 이와 거의 같다.

각주상 각면에 간지를 쓴 사례는 중국의 고(觚)에도 사례가 있고 그것과 유사하지만 이 목간이 중국의 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 일본 고대 각주상 목간을 검토해 봤는데 이들을 형식번호라는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면 011형식(短冊型), 065형식(용도를 알 수 없는 목제품에 목서가 있는 것), 081형식(파손, 부식 등으로 원형을 알 수 없는 것) 등 그 형식번호는 제각각이다. 비슷한 형태의 각주상 목간이라고 해도 그것이 목간의 기능에 따라 그런 형태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목제품에 목서한 것으로 봐야하는지로 형식번호에 차이가 난다. 이렇듯이 목간의 형태로 형식번호를 매기는 작업은 조사담당자의 해석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한 뒤에 목간의 분류나 형식에 관해서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목간에 관해서도 의논해 나가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 일본 고대목간에서 봉함(封緘)목간, 부찰(付札)목간, 각주상(角柱狀)목간 같은 사례를 들면서 형식분류와 기능적 분류에 관한 과제를 고찰해왔다.

지금까지 검토해왔듯이 일본 목간의 형식분류는 목간 내용과는 별개로 목간의 원형이나 현재

6) 三上喜孝「古代地方社会における曆—その受容と活用をめぐる—」『日本古代の文字と地方社会』吉川弘文館, 2013(처음 발표된 건 2001).

형태에 특화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06으로 시작되는 “목제품에 목서가 있는 것”이라는 형식은 엄밀하게 하면 그 목서 내용이 목제품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목제품을 목간으로 전용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 성격이 매우 달라진다. 일의적인 형식분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사담당자나 연구자가 개별 사례를 통해서 목간 관찰이나 분석을 해야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동아시아에서 목간 형식분류를 통일하려고 하는 시도에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다.

はじめに

本報告では、日本古代木簡の型式分類や機能的分類の現状について紹介し、それを東アジアの木簡文化の中でどのようにとらえるべきかについて、若干の考察を試みる。

現在のところ、日本における木簡の最古の事例は7世紀前半頃のものである。7世紀は、日本の古代国家が次第に中央集権的な官僚制国家を目指した時期で、7世紀後半には中国の律令制度を取り入れた律令体制が築かれた。こうした官僚制国家に不可欠なのは文字による記録や命令である。木簡の使用は、国家体制の整備と不可分の関係にあるとみてよい。実際、日本の古代木簡は8世紀～9世紀に最も多く使われ、10世紀以降はその利用が少なくなる。律令国家の盛衰と呼応しているのである。

律令国家は文書行政を主体とする官僚制国家であり、そこではさまざまな行政文書が作成されていた。その基盤となったのが、木簡である。木簡は、紙と比べて木は堅牢であるという特徴を持ち、情報の内容や分量に合わせて形状や大きさを加工できることから、日常的な政務において使い勝手のよい情報伝達手段として重宝された。そのため、木簡にはさまざまな機能が付与され、それに応じて形態も工夫されていたのである。

日本の古代木簡の特徴的な形態としては、①短冊型、②短冊型の材の上・下両端あるいは一端に切り込みを入れたもの、③材の一端を剣先形に尖らせたもの、などがある。その他、木製品に墨書したのものや、木簡の表面から削り取られた薄片（削屑）に残っている墨書も、木簡である。

日本の木簡の分類として、いわゆる「型式番号」がある。これは、木簡の形態的特徴に注目して分類したものである。木簡の第一義的な分類はこの「型式番号」によって行われる。内容による分類ではなく、形態的特徴による分類を第一としたことは、木簡を考古資料として取り扱うという、日本の木簡研究の姿勢を表明したものと見える。

日本の木簡学会等で採用している型式番号は、およそ以下の通りである。

011型式 短冊型。

015型式 短冊型で、側面に孔を穿ったもの。

019型式 一端が方頭で他端は折損・腐蝕で原形が失われたもの。

021型式 小型矩形のもの。

022型式 小型矩形の材の一端を圭頭にしたもの。

031型式 長方形の材の両端の左右に切り込みを入れたもの。

032型式 長方形の材の一端の左右に切り込みを入れたもの。

033型式 長方形の材の一端に切り込みを入れ、他端を尖らせたもの。

039型式 長方形の材の一端に左右に切り込みがあるが、他端は折損・腐蝕などによって原形の失われたもの。

041型式 長方形の材の一端の左右を削り羽子板の柄状につくったもの。

043型式 長方形の材の一端の左右を削り羽子板の柄状に作り、残りの部分の左右に切

り込みを入れたもの。

049型式 長方形の材の一端の左右を削り羽子板の柄状にしているが、他端は折損・腐蝕などによって原形の失われたもの。

051型式 長方形の材の一端を尖らせたもの。

059型式 長方形の材の一端を尖らせているが、他端は折損。

061型式 用途の明瞭な木製品に墨書のあるもの。

065型式 用途未詳の木製品に墨書のあるもの。

081型式 折損・腐蝕その他によって原形の判明しないもの。

091型式 削屑。

次に、内容に即した分類をみると、大きく分けて、a文書木簡、b付札木簡、cその他、に分けられる。「文書木簡」はさらに、差出人と宛先が明確な狭義の「文書」と、物品の出納などを記録した「記録（帳簿）」に分けることができ、「付札」は、税などを貢進する際にモノ付けられる「貢進物荷札」と、物品管理用にモノに付けられる「物品付札」と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その他」には、木片に典籍の一部を書き写したり、同じ文字をくり返し書いて文字の練習をしたとみられる「習書」や、まじないの文字や記号を書いた「呪符」といった木簡が含まれる。

種類	内容	形態的特徴
文書木簡	狭義の文書木簡（差出と宛先が明確な木簡） 記録簡（帳簿など）	① 短冊形
付札木簡	貢進物荷札木簡（貢進物に付けられる荷札） 物品管理用付札（物品の整理・保管用）	② 上端や下端の左右に切り込みがある。 ③ 材の一端を剣先形に尖
その他	習書木簡 呪符木簡（まじない札） など	

木簡の形状は、内容と関係している場合が多い。「文書木簡」は①の形状がほとんどで、「付札」は②③の形状に対応する。「付札」は、紐を用いて物品に装着する必要があるため、短冊型の材に切り込みを入れ、紐を引っ掛けやすくしたり、材の一端を剣先形に尖らせ、差し込みやすくするのである。文書の場合はそのような加工は必要なく、むしろ必要な情報を正確に相手に伝える（あるいは記録にとどめる）必要があるために、規格性の高い短冊型の木簡が作られるのである。

木簡は、出土した遺構の条件によって、多くの場合、不完全な形であったり、墨の残りがあまりよくなかったりするが、木簡の形状と内容が対応しているおかげで、これが文書木簡なのか、あるいは付札木簡なのか、といった推定が可能となる。これにより、木簡の内容をある程度復原することができる。日本の木簡研究は、長年培ってきた形状や機能の分類作業

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といえよう。その意味で、木簡の型式分類は、記載内容の検討以前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重要な作業といえる。

本報告で与えられた課題は、日本の古代木簡の、型式上や内容面での分類の現状をふまえて、それが東アジアの木簡の中で、それがどのような共通性あるいは差異性を持っているかを検討することにある。以下では、報告者の関心にもとづき、日本古代木簡における分類と名称の問題を、いくつかの具体例をあげながら報告したい。

## 1. 出土事例の増加による型式番号の追加 —封緘木簡—

日本の木簡の型式番号は、1979年の木簡学会設立当初から現在に至るまで、基本的にはほとんど変わっていない。しかし木簡の出土事例の増加にともない、新たに設定された型式番号が一つだけある。それが、04から始まる型式番号である。

041型式 長方形の材の一端の左右を削り羽子板の柄状につくったもの。

043型式 長方形の材の一端の左右を削り羽子板の柄状に作り、残りの部分の左右に切り込みを入れたもの。

049型式 長方形の材の一端の左右を削り羽子板の柄状にしているが、他端は折損・腐蝕などによって原形の失われたもの。

この記述だけでは、どのようなタイプの木簡を想定しているかはなかなか理解が難しいが、これらは、具体的には、「封緘木簡」と呼ばれる、紙の文書を封緘する際に用いられる木製品のことを想定している。その木製品の中に、あるていどの比率で文字が記されているものがあり、それを封緘木簡として分類しているのである。

型式番号の説明の中にある「羽子板」とは、長方形の形をした板の下方を削り、柄状に成形した板のことである。文書を封緘する際には、長方形の板の部分を縦に裂き、その間に紙の文書を入れて紐で結んで封をする。紐で結ぶ際に、紐を引っかけるために長方形の板材の左右から切り込みを入れることがある。これが043形式である。

そのため、043型式は、一見すると、左右から切り込みを入れるタイプの荷札木簡とも形態的には類似するが、下方が柄状に成形されていることなど、それ以外の特徴により、荷札木簡ではなく、封緘木簡に分類できるである。

では、なぜこのような形で、これまでになかった型式番号が新たに加えられたのだろうか。そのきっかけとなったのは、1994年に新潟県で開催された木簡学会特別研究集会である。新潟県の八幡林遺跡は、8世紀前半から9世紀にかけての地方官衙の遺跡とされているが、その遺跡から、地方官衙の実態を示す数々の木簡が出土したのである。その中であってひととき特徴的だったものが、封緘木簡である。「羽子板」状の板に「上郡殿門」「上大領殿門」など、郡の長官に宛てる意味の進上文言が書かれており、これらから、地方官衙において、封緘木簡を用いた紙の文書がやりとりされ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のである。

この点に注目したのが、佐藤信氏である<sup>1</sup>。佐藤氏は、同様の形態をもつ木簡を集成し、平城京をはじめ、出土事例が各地におよんでいることを指摘し、新たな木簡の型式分類を提

---

<sup>1</sup> 佐藤信「封緘木簡考」『日本古代の宮都と木簡』吉川弘文館、1997年、初出は1995年。

唱したのである。

『木簡研究』17号（1995年）までは、04で始まる型式番号は凡例には存在しないが、18号（1996年）に至り、04で始まる型式番号が正式に採用されるに至ったのである。

この04で始まる型式番号は、一部の例外を除き<sup>2</sup>、そのほとんどが封緘木簡を想定しているとみてよいであろう。通常、木簡の型式番号と、その木簡の用途や機能は、別に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多いが、この04から始まる型式番号については、その型式と木簡の用途がほぼ一致している。その意味では、03から始まる型式番号をもつ木簡の多くが、付札木簡であると想定できることもやや近い発想を示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

ただ、より厳密に考えると、封緘を「用途の明瞭な木製品」とみなし、そこに墨書があるということで、061型式に分類できる可能性もあるが、これについては、解釈が分かれるところではないだろうか。

たとえば、特徴的な形状をもつ木簡のひとつに、「題箋軸」というものがある。文書を巻くための軸の上部を幅広の長方形に成形し、そこに文書の情報を書き込む「題箋軸」の木簡が、各地から出土している。多くの場合、細長い軸の部分がかけた状態で出土しているため、軸の上部にある、小型の長方形の部分だけが出土するケースが多いが、題箋軸を念頭に置いた型式番号を設定することも不可能ではない。だが現状の型式分類では、061型式、すなわち「用途の明瞭な木製品に墨書されたもの」として把握されている。木簡の形態をどこまで「型式」として認識するか、あるいは、木簡の属性をどうとらえるか（木簡としてとらえるか、木製品の墨書としてとらえるか、など）は、突き詰めて考えると、実はかなり難しい問題であることが、これらの事例からわかる。

## 2 付札木簡の型式とその機能

次に、03から始まる型式番号に含まれる付札木簡について考えたい。

上端部、または下端部に左右から切り込みが入っている付札木簡は、古くは中国の晋簡にみられ、韓国では、城山山城木簡に代表される6世紀代の木簡にすでに確認される。日本列島では、木簡の初現時期である7世紀の段階で広く使用されており、木簡の使用と同時に付札としての使用が始まったことは疑いないであろう。日本では、古代木簡のみならず、近世の江戸時代に至るまで、実に1000年以上にわたって、同様の形態を持つ荷札木簡が広く使用され続けた。荷札の機能を果たす上で、きわめて有効な形態であったことがうかがえる。

「左右から切り込みが入る」という特徴的な形態をもつ付札（荷札）木簡について、近年ではさらに細かな形態に注目した研究が行われている。以下では、近年の研究を紹介し、付札（荷札）木簡研究の可能性をさぐってみたい。

付札（荷札）木簡の形態的特徴は、左右からの切り込みの他に、端部を直頭（方頭）状、尖頭状に成形したものや、さらには下端部を剣先状に成形したものなどがみられる。

このような形態上の違いにどのような意味があるのかについては、議論が分かれるところだが、詳細に分析した友田那々美氏によれば、端部の形状は木簡の製作者の個性によると

---

<sup>2</sup> 宮城県仙台市の郡山遺跡出土の木簡は、長方形の下部を柄状に成形した形で、04から始まる型式に属するが、その用途は写経用定規と考えられている。

ころが大きく、荷札の機能との本質的な関連をもたない要素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sup>3</sup>〔友田那々美2003〕。

また友田氏は、下端部を剣先状に成形した荷札木簡が、貢進物の米・塩の荷札として特化した形態であることを指摘する。ただし、剣先形に成形されていることの意味を、俵などの荷にかけた縄の間への挟み込みやすさを考慮したもの、とこれまで漠然と考えられてきたことに対して、再検討の余地があるとし、ひとつの可能性として、砂粒状の米や塩といった貢進物そのものの中に入れるために、下端を尖らせて差し込みやすくさせたのではないかと推定している。すなわち、物品の外側に装着させるのではなく、物品の中に入れることを想定したのである。

いわゆる荷札木簡といわれるものの中に、物品の外側にくくりつけて、文字どおり荷札の役割を果たしたものと、米俵や塩籠などの中に入れて、品質を保証する役割を果たしたものがある、とする見解が、近年主張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sup>4</sup>。これは、従来の荷札木簡研究にはなかった視点であり、継承すべき視角といえるだろう。

とくに韓国出土木簡との関連でいえば、城山山城出土の荷札木簡についても、同様の視角から再検討を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城山山城木簡の中には、しばしば同文の荷札木簡の存在が確認されるが、今後、半島と列島で共通の使用法が認めら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指摘しておきたい。

また、材の左右に切り込みが入る「付札木簡」の中には、いわゆる貢進物に付けられた「荷札木簡」と、「物品管理用の付札」の2種が存在するという、最も基本的な分類にも立ち返ら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出土木簡の事例でいえば、城山山城出土の付札木簡は、そのほとんどが各地から山城に運ばれた「貢進物付札」すなわち「荷札」であるし、慶州の雁鴨池から出土した付札木簡は、発酵食品などの容器に付けられた「物品管理用の付札」である。この点は、日本の付札木簡が想定している機能分類との共通性がみられる。これらは、型式番号からだけではわからない性質であり、型式分類と合わせて、用途や機能の分類を行うことの重要性を示している。

### 3. 角柱状の木簡

日本の古代木簡と韓国出土木簡との形状の比較について考える上で、顕著な差異がみられるのは、韓国では四角柱の四面に、文書もしくは記録を書き付けた角柱状の木簡が数多くみられることである。もとは中国でも角柱状の木簡は出土例があり、それらは「觚」と呼ばれている。

韓国の角柱状の木簡は、おもに文書木簡や記録簡、さらには論語を書写した木簡として利用される場合が多い。一例を挙げると、次のようなものがある。

---

<sup>3</sup> 友田那々美「古代荷札の平面形態に関する考察」『木簡研究』25、2003年。

<sup>4</sup> 平川南2003「木簡と農業」『古代地方木簡の研究』吉川弘文館、2003年、鈴木景二「古代の俵の札のはなし」『木簡研究』26、2004年、馬場基「荷札と荷物の語るもの」『日本古代木簡論』吉川弘文館、2018年、初出は2008年。

〔文書木簡〕

○咸安郡・城山山城出土四面木簡\*

- ・三月中眞乃滅村主懼怖白
- ・□城在弥即尔智大舍下智前去白之
- ・即白先節本日代法稚然
- ・伊毛穰及伐尺采言□法卅代□今卅日食去白之

全体の内容は未詳だが、第一面に、この木簡の発信者である「眞乃滅村主」が記され、第2面にこの木簡の受信者である、大舎の官位をもつ役人の名が記されている。

この木簡では、「白」の文字が繰り返し使われている。第1面文末には「懼怖白」とあり、「恐れながら申し上げます」という意味であろう。第2面文末に「前去白之」とあり、「大舎様の前に申し上げます」という意味の可能性が当然考えられる。これらの表現は、日本の7世紀の木簡に特徴的な「某の前に白す」という記載様式をもつ「前白木簡」と共通しており、この木簡が文書木簡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文書が記された角柱状の木簡はこのほかに、慶州の月城塚字、京畿道河南市の二聖山城などからも出土している。

〔記録簡〕

○扶余・陵山里寺址出土木簡

- ・支薬児食米記 初日食四斗 二日食米四斗小升一 三日食米四斗×
- ・五日食米三斗大升 六日食米三斗大二 七日食三斗大升二 九日食米四斗大×
- ・□道使□□次如逢使猪耳其耳其身如黒也 道使□□弹耶方牟氏牟祓祓耶×
- ・×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 (天地逆)

四角柱の四面に記載があり、一部習書らしき部分があるが、「支薬児」の日々の食米支給を記録した木簡であると考えられる。

〔論語木簡〕

○韓国・金海市鳳凰洞地区出土木簡

- ・×不欲人之加諸我吾亦欲无加諸人子×
- ・×文也子謂子産有君子道四焉其×
- ・×已□□□色旧令尹之政必以告新×
- ・×違之何如子曰清矣□仁□□日未知×

(209) × 19 × 19

○韓国・仁川広域市桂陽山城出土木簡

- ・賤君子 [ ]
- ・吾斯之未能信子□
- ・□不知其仁也求也
- ・ [ ]
- ・ [ ] 子曰吾

(138) × 18.5

○韓国・忠清北道扶余郡双北里出土木簡

- 子曰学而時習之不亦説□〔乎〕
-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 人不知而不愠。不亦□〔君〕
- 子乎有子曰其為人也

角柱状の四面に文書または記録を書き付けた木簡は、日本古代木簡ではほとんど見られず、韓半島に特徴的な形態である。古代日本の場合、文書木簡や記録簡は、そのほとんどが

長方形の板状の材の表面または表裏両面に記すことが多く、論語テキストの習書木簡についても同様である。

ではなぜ、韓国では、角柱状の木簡が広く用いられていたのでしょうか。その背景として、3点の可能性を指摘しておきたい。

第一に、韓半島出土の木簡の材は、松の木の枝を用いることが多く、棒状の枝を角柱に成形し、文字を効率よく四面に配置したことが考えられる。すなわち、韓半島の植生や木簡の樹種に規定された可能性である。

第二に、中国の冊書（編綴簡）の影響を見る考え方である。角柱状の木簡は、幅の狭い面にそれぞれ1行ずつ文字を配置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が、この文字の書かれた面を展開すると、あたかも冊書（編綴簡）の様相を呈する。角柱状の木簡の発想の原点には、中国の冊書の影響があるとも考えることもできる。

第三に、韓半島の木簡文化が石碑文化の影響を受けているという可能性である。広開土王碑をはじめとして、高句麗や新羅の石碑には多面体に成形した石材の各面に文字を刻んだ事例が多い。角柱状の木簡も、そうした韓半島の石碑の様式の影響を受けている可能性はないだろうか。

中国の「觚」とは形態が似ているものの、韓半島出土の角柱状の木簡はそれとは別の機能を付与されている点や、次に述べる日本の古代木簡とも異なる点は、日・中・韓の木簡（簡牘文化）の比較研究を進める上で、格好の素材となるだろう。

次に、古代日本における角柱状の木簡についてみていきたい。そもそも古代日本においては、文書木簡や記録簡が角柱状の木材に書かれることは、初期の段階からほとんどみられない。長方形の板状の片面あるいは両面に記されるのが一般的である。わずかに韓国出土木簡と共通するものとしては、徳島県観音寺遺跡出土の「論語木簡」が、四角柱状の木材を用いて論語が記されており、これは韓半島の論語木簡の影響を受けた可能性がある。

#### ○徳島県観音寺遺跡出土木簡

- ・ □□依□□乎□止□所中□□□
- ・ 子曰 学而習時不孤□乎□自朋遠方来亦時樂乎人不□亦不慍
- ・ □□□□乎
- ・ [ ] 用作必□□□□□人 [ ] □□□

(635) × 29 × 19 081 型式

文書木簡に相当する角柱状木簡としては、次のような木簡もある。

#### ○鹿児島県京田遺跡出土木簡

- ・ 告知諸田刀□〔祢カ〕等 勘取□田二段九条三里一曾□□（第一面）
- ・ 右件水田□□□□子□〔息カ〕□□□□□□□□（第二面）
- ・ 嘉祥三年三月十四日 大領薩麻公（第三面）
- ・ 擬小領（第四面）

(400) × 26 × 28 081型式

冒頭に「告知」とあるように、この木簡は水田の権利を示すことを表明する内容で、下端を尖らせていることから当初から土地に突き刺して立てられた杭として使用されたが、上端にも尖らせた痕跡があることから、のちに上下を逆にしてもう一度、杭として転用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

○岩手県道上遺跡出土木簡

禁制田参段之事 字垂楊池□〔側カ〕

右田公子廣守丸進田也而□□酒□□

件田由被犯行者□□役主〈〉之契状□〔并カ〕

白于禁制如件

[ ]

□永□二□二□

463×44×42 061形式

これも、京田遺跡出土木簡と同様、下端を尖らせており、土地に突き刺せて杭として使用したと思われる。内容はやはり水田の権利にかかわるものであり、土地の領有や教会を示すところに杭を立て、そこに土地の権利を主張する文言を書くことが広く行われていた可能性をうかがわせる。

○石川県指江B遺跡出土木簡

大国別社□〔 〕略=祓集厄第〔 〕佐□阿加□〔 〕田〔 〕穂根

857×30×24 011型式

長大な木簡で、形状から考えると地面に立てて境界などの目印として使用したものと思われる。「大国別社」「祓集厄」などの文言から、境界祭祀にかかわる木簡である可能性がある。

これらの事例で共通するのは、角柱状の木材に文字が記される場合、古代日本では土地の権利や境界を視覚的に示す目的で、杭のような木製品に記す場合が多いのではないかとと思われることである。韓国で近年出土した慶山市の所月里出土木簡がこれに近いとも思われるが<sup>5</sup>、古代日本においては、角柱状の木簡がきわめて限定的に使用されていることをここでは確認しておきたい。

しかし、筆者が調査した事例として、これらとはまったく性格を異にする角柱状の木簡も存在する。それが、秋田県の秋田城跡から出土した、十干十二支を羅列した木簡である。

○秋田県秋田城跡出土木簡（●は穿孔）

- ・ □□●□□●丙寅●丁卯●戊辰●□□●庚□□□●壬□●□酉●
- ・ □□●乙□●□子●□□●□□●己□●庚□●辛巳●壬午◇癸未
- ・ □□●□□●丙戌●丁□●□子●己丑●庚寅●辛卯●壬辰●□□
- ・ □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 壬寅 癸□
- ・ □□ 乙□ □午 丁未 戊申 □□ □□ □□ 癸□
- ・ □□ □卯 □□ □□ □□ 己未 庚申 □酉 壬戌
- ・ □□ □□ □□ □□ 戊辰 □□ 庚□ □□ 壬申 □酉

277×27×27 065型式

この木簡は、角柱状木簡の七面に、「甲子」から「癸亥」までの六十干支が書かれ、干支の下

<sup>5</sup> 橋本繁「慶山・所月里木簡の性格」慶北大学校人文学術院 HK+事業団・国立歴史民俗博物館共同学術大会『古代韓国と日本の文字文化と書写材料』、2022年2月23日

には細い棒を差し込む孔があげられている。これは、日が変わるたびにその日の干支の下の孔の部分に棒を差し込み、その日が何の干支かを知るための道具であったと推定される<sup>6</sup>ただし実際に使用されたものかどうかはわからず、試作品や未製品の可能性がある。

同様の木簡は、19世紀初頭に、菅江真澄という紀行家が、秋田を訪れた際に、火山噴火により埋没した平安時代の家屋から発見されたものとして紹介されており、形状はほぼ同じである。

角柱状の各面に干支を書く事例は中国の「觚」に事例があり、それと類似しているが、この木簡が、中国の「觚」の影響を直接的に受けたものであるかどうかは、断定できない。

さて、以上日本古代の角柱状の木簡についておもなものをみてきたが、これらを型式番号という点から見直してみると、011型式（短冊型）、065型式（用途未詳の木製品に墨書のあるもの）、081型式（折損・腐蝕その他によって原形の判明しないもの）など、その型式番号はさまざまである。同じような形状の角柱状の木簡といっても、それが木簡の機能にともなうそのような形に作られたのか、あるいは木製品に墨書したものとみるべきなのかで、型式番号に差異が生ずる。このように木簡の現状の形態から型式番号を付してゆく作業は、調査担当者などの解釈なども入り、実は非常に困難な問題を抱えているのである。まずはそのことを前提にしたうえで、木簡の分類や型式について、東アジア諸地域の木簡についても議論を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おわり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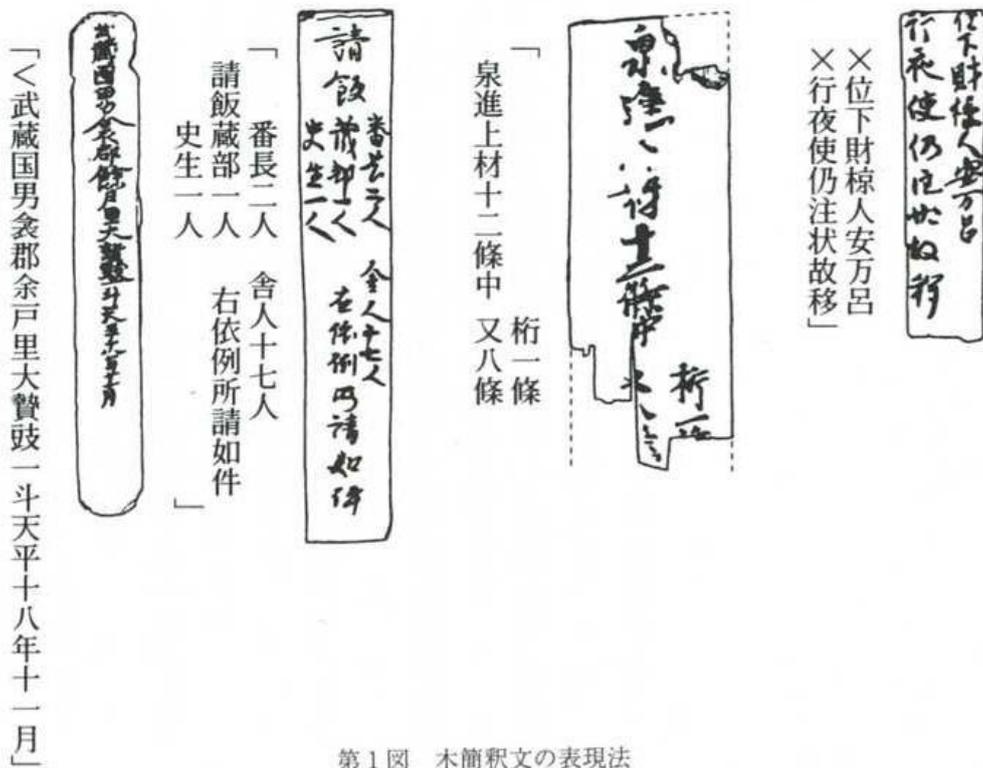
以上、日本古代木簡のうち、封緘木簡、付札木簡、角柱状の木簡といった事例を取り上げながら、型式分類や機能的分類についての課題について考察した。

これまでみてきたように、日本の木簡の型式分類は、木簡の内容からはひとまず切り離して、木簡の原形や現存形状に特化して行われているも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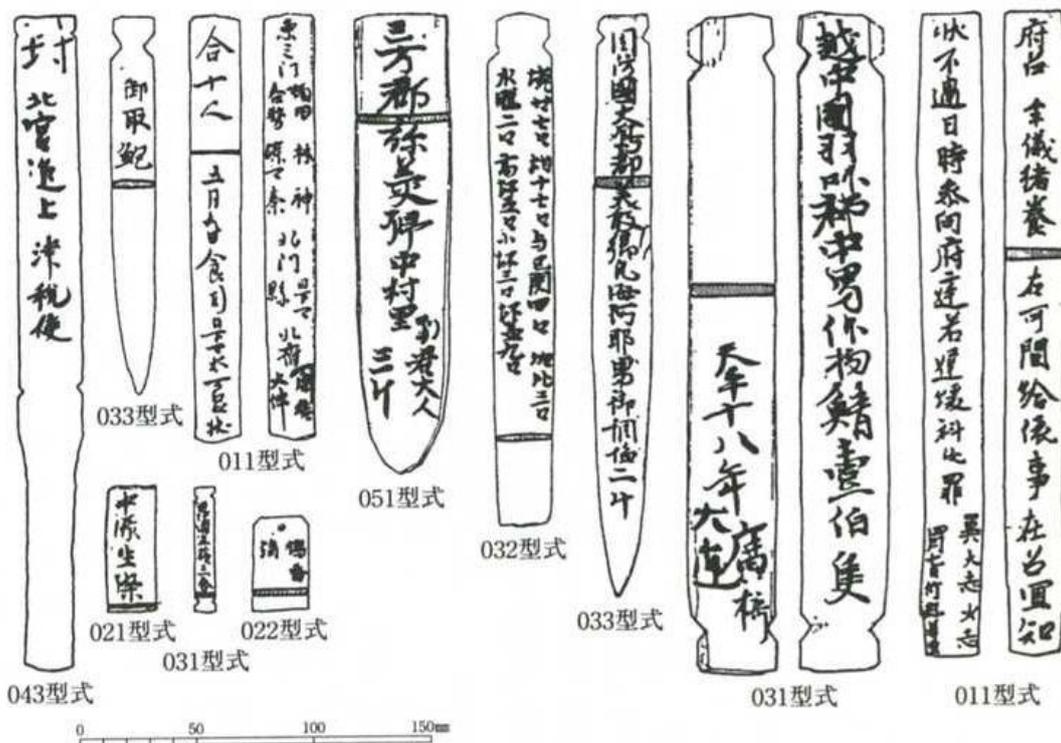
しかし、たとえば06から始まる「木製品に墨書のあるもの」という型式は、厳密に考えれば、その墨書の内容が木製品にともなうものなのか、あるいは木製品を木簡に転用したものなのかによって、ずいぶんとその性格が異なる。一義的な型式分類だけでは限界があり、そこから先は、調査担当者や研究者が、個別の事例に則して木簡の観察や分析を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当然の結論に帰結する。東アジアにおける木簡の型式分類の統一の試みには、そうした困難な問題が立ちはだかっているのである。

---

<sup>6</sup> 三上喜孝「古代地方社会における暦—その受容と活用をめぐって」『日本古代の文字と地方社会』吉川弘文館、2013年、初出は2001年。



第1図 木簡积文の表現法



第2図 木簡の形態分類

## 종합토론

---

좌장 : 김병준(서울대학교)

토론 : 오준석(경북대학교)

윤선태(동국대학교)

市大樹(大阪大學)



# 李迎春, 「20세기 이래의 서북 漢代 관문서 간독 형태에 관한 연구 및 분석」에 대한 토론문

오준석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본고는 중국 서북지역에서 출토된 漢代 簡牘을 중심으로 형태에 따른 簡牘의 명칭과 그 특징을 정리하고, 簡牘의 형태 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글이다. 이 글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중국의 簡牘 문서는 그 형태와 길이, 너비, 두께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런 簡牘 문서의 명칭과 그 사용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簡牘 문서를 그 형태에 따라 簡, 牘, 檢, 觚, 楬, 檄, 符, 傳(過所), 券, 契, 柿 등으로 구분하고, 그 특징과 사용 용도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였다. 또한 檢의 경우 다시 세부적으로 封檢, 封泥匣, 函封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주요 쟁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문제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중국 簡牘 문서의 형태별 분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본고의 분명한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簡과 牘의 구분 문제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簡과 牘의 구분과 관련해 “簡은 대나무로, 牘은 나무로 만든 것”이라는 이해와, 폭이 좁아 1-2행으로 서사할 수 있는 것을 “簡”, 폭이 비교적 넓어 3행 이상으로 서사할 수 있는 것을 “牘”으로 보는 두 가지 구분법을 제시하고, 이 두 가지 관점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대나무를 재료로 한 것은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어 1행으로 서사할 수밖에 없는 문서가 되며, 나무를 재료로 한 것은 그런 제약이 없어 편의에 따라 글자를 여러 행으로 서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대나무도 여러 행으로 서사할 수 있는 “竹牘”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재질에 따라 “簡”과 “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까?

2. 일반 簡牘문서를 흔히 簡과 牘으로 양분하지만 전세 문헌이나 출토 簡牘에 따르면 簡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牒, 札 등이 나오고, 牘보다 더 넓은 판면을 가진 것으로 版(板), 方 등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簡, 牒, 札은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牘, 版, 方을 행수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다.

3. 필자는 檢 중에서 封泥匣이 없는 것을 檢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며 이를 “函封”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표1에서 函封으로 구분한 里耶古城 출토 문서는 아래 부분이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고, 윗 부분이 까맣게 칠해진 것도 있어 형태상으로 볼 때 “楬”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내용만으로 이를 函封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쭙고 싶다.

4. 본고에서는 형태에 따라 簡牘을 簡, 牘, 檢, 觚, 楬, 檄, 符, 傳(過所), 券, 劄, 柿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의 어떤 것은 형태보다는 내용을 고려한 구분 명칭이므로 구분 기준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檄은 특정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한 종류로서, 형태상으로는 觚나 牘 혹은 兩行 등에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이를 형태 상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을까? 또한 傳의 경우 일종의 통행증으로 원본이 과연 어떤 형태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필자가 인용한 것이 傳의 원본 형태가 맞다면 형태상으로는 檢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다.

# 이재환, 「韓半島 發見 木簡의 形態 用語 檢討」에 대한 토론문

윤선태(동국대학교)

1. 발표문은 그간 한반도에서 출토된 ‘문자가 쓰여 있는 서사재료로서의 나무 유물’(이하 ‘木簡’이라 칭함)에 대해 한국 학계에서 이를 보고서나 논문들 속에서 어떻게 명명해왔는지 특히 그 형태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3장까지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형태 관련 용어들을 소개한 것이어서 토론할 내용이 거의 없다. 다만 빠트린 부분이 있어 그것을 보충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보려고 한다. 한편 앞으로 관련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자는 발표자의 제안적 성격에 해당되는 4장도 용어의 ‘통일’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그것을 토론의 단서로 삼아보려 한다. 특히 발표문 중에 나오는 용어에 관한 “韓國木簡學會의 凡例”는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와 관련된 제안을 하면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2. 토론의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발표문이었지만, 3장까지의 서술에서 형태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에도 빠진 부분이 있어 우선 말꼬를 트는 출발로 삼았다. 그것은 바로 목간의 ‘길이’다. 길이는 형태적 요소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목간의 형태적 분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이미 그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시각목간”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져 통용되고 있다. 문제는 길이를 판형이나 다각다면형 등의 형태보다 하위적 요소로 둘 것인지, 아니면 길이를 형태 분류의 중요한 범주로 두어 그 하위에 판형이나 다각다면형을 둘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거 같다.

이 문제는 ‘우리는 왜 목간의 형태를 분류하려고 하는가’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 목적은 당연히 목간학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목간학도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복원에 순기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발표문에도 인용되어 있지만 중국에는 실례로 목서하기 전 다양한 형식의 나무 서사재료들 자체가 이미 개별의 각각의 어휘로 분류되어 사용되었고, 주문 등 물품 목록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종이를 A4, B5 등으로 부르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미지가 그려져 서로 간에 소통의 어휘로도 기능하는 것과 같은 사용례라고 할 수 있다. 과연 한국과 일본의 고대도 그러했을까,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나무 서사재료를 각각의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었을까? 현재 우리의 목간 분류는 이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物名의 다종다기함은 문명의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된다. 그들이 ‘거시기’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면 그들이 분류하려고 한 선이, 요소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우선 고려하면서 목간의 형태 분류에 우리 학계나 연구자는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목간의 형태적 분류에도 용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목간의 길이라는 말꼬에서 용도 등 분류에 관한 질문이 상당히 복잡하게 꼬이고 있지만, 요체는 하나다. 저의 일이관지하는 질문은 발표자는 왜 목간의 형태를 분류하려고 하는가, 발표자의 기준이 역사성을 담지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다. 궁금하다. 또 묻고 싶다. 물론 저도 발표문에 나와 있듯이 우왕좌왕하며(논문만 주의했는데, 발표문도 남는다는 걸 몰랐다.ㅋㅋ^^ 문자로 되면 남는다는 걸 깨달은 좋은 발표문이었다) 분류를 해본 적이 수차 있었지만, 늘 오늘 질문하는 이점을 소홀히하고 있었

던 것 같아 발표자께도, 동시에 저에게도 질문해본다. 이게 해결된다면 소위 문자가 없는 ‘목간형’ 유물이라는 용어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와 아주 작은 문제 두 가지를 물어보려 한다. 큰 문제는 간독(중국), 목간(일본) 등 나무 서사재료를 총칭하는 용어 문제이다. 이점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발표문에 전혀 언급이 없어서 묻고 싶다. 간독과 목간은 각각 해당 지역의 역사성을 담지한 용어라는 점에서 이미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된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간독과 목간이 모두 출토되고 있다. 이를 따로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이를 통칭하는 어떤 학술적 용어가 필요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현재 동아시아 삼국 학계의 ‘나무 서사재료’에 대한 공통 명칭이 탄생할 수도 있다. 작은 문제 중 하나는 학술 용어의 한글화이다. 예를 들어 절입, 결입, 파임, 흠 등이 흠으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소개인데, 어휘가 갖는 소통의 면에서나 정확한 의미전달에 기초한 개념설정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흠’은 ‘옴폭 파인 자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평면에 파인 홀(hole)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어휘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일본에서 목간 측면에 깎아서 들인 부위(소위 절입부)를 가리키는 용어로 적정한지 의문이 든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이와 연관된 것인데, 韓國木簡學會 凡例 작업이다. 논평자는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발표자는 용어의 통일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소통을 위해서도 학회 차원의 제안적 용어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앞으로 목간 유물의 국가적 등록 사업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 이 경우 형태 분류만 할 것인지, 한다면 형태 및 각 요소 부위에 대해서도 통일해야 되는지 등이다. 예를 들면 앞서의 흠, 구멍 등도 그러하고, 1면, A면 등의 문제도 있다. 앞뒷면 우측면 좌측면 등 면 설정에 기준이 있는 표현, 또 기준면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등 연구자 간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점들에 학회 차원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서없는 질문이라 죄송하고 토론자의 소임을 다했는지 또 죄송하다.

# 三上喜孝, 「일본 고대목간의 형식분류와 기능적 분류」에 대한 토론문

市大樹(大阪大學)

미카미 보고는 주로 봉함(封緘)목간, 부찰목간, 각주상(角柱狀)목간을 검토하여 한국목간 등도 시야에 넣으면서 일본 고대목간의 형식분류와 기능적 분류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논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蛇足으로 알지만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 약간 보충하고자 한다.

## 1. 목간 형식분류에 대해

### (1) 목간학회 방식

일본 목간학회에서는 1979년 설립 이래 오랫동안 목간을 15가지 형식번호로 분류하는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방식을 채용해 왔다. 그 후 미카미 보고가 소개하였듯이 1990년대에 들어 봉함목간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3가지 형식번호(041·043·049형식)가 새로 추가되어 현재에 이른다.

모두 18가지 있는 형식번호는 미카미 보고가 말했듯이 목간의 형태적 특징에 주목하여 분류된 것이다. 그런데 순수하게 형태적 특징에만 주목한 분류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여기서는 비교적 알기 쉬운 4가지를 지적해둔다.

- ① 하단 형태는 형식번호에 직결되지만 상단 형태는 그렇지 않다. 부찰을 예로 들면 부찰 중에는 하단을 칼끝 모양으로 뾰족하게 만든 것이 적지 않다. 短冊形 부찰(011형식)이나 상하 양단 좌우에 홈이 있는 부찰(031형식) 등과 구별하기 위해 하단이 칼끝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때로는 圭頭<山形>이어도) 다른 형식번호(051·059·033형식)가 된다. 그런데 상단의 형태(직두형(直頭形), 칼끝 모양, 규두형(圭頭形))의 차이는 형식번호에 반영되지 않는다.<sup>1)</sup> 그 이유로는 부찰 기능을 생각하는데 상단보다 하단 형태 차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② 목간에는 구멍이 있는 것이 있다. 측면에 있는 구멍이면 독자적인 형식번호(015형식)가 있다. 이 형식은 고선(考選)관계 목간에 특징적인 것이며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 독자적인 형식번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고대목간 전체를 보면 구멍은 앞뒤를 뚫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형식번호의 차이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앞뒤를 뚫은 구멍은 목간을 받은 쪽이 만든 이차적인 것일 경우가 많고 목간의 일차적인 기능으로 가공한 측면의 구멍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③ 목제품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형태나 잔존 상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용도가 명료하면 061형식, 용도미상이면 065형식으로 분류된다. 또한, 목제품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미카미 보고에서 지적되었듯이 041·043·049형식인 봉함목간은 용도가 명료한 목제

1) 상하 양단 좌우에 홈이 있는 부찰에 대해서도 하단이 直頭만 있는 것이 아니고 圭頭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형식번호에 양자 구별이 없다.

품이니 061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 ④ 小型 矩形으로 인식될 경우 021·022형식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길이나 폭이 몇 센티 이하면 소형으로 인정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 (2) 새로운 시도

이상과 같은 사례로도 알 수 있듯이 목간학회 방식의 형식번호는 목간의 형태적 특징을 순수하게 추구한 분류가 아니다. 내용을 통한 분류라는 측면도 있다. 미카미 보고에서는 “목간의 형식분류는 기재 내용의 검토 이전에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였고, 이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 작업은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진다.

이에 대해 야마나카 아키라(山中章) 씨가 제창하여<sup>2)</sup> 그것을 일부 개량한 向日市埋藏文化財センター·向日市教育委員会編 『長岡京木簡2』(1993년)가 제시한 형식번호가 있다. 그것은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를 표현하는 기호로 설정되어 상단·상부·하부·하단 순으로 4자리 숫자로 표현된다.

### [평면형]

- [1] 直頭形 상·하단부를 직선적으로 성형 조정한 것. 두부 양단각을 깎은 것을 포함한다.
- [2] 圭頭形 상·하단부 양측면에서 칼을 넣어 규두상으로 한 것.
- [3] 切込形 상·하부에 홈이 있는 것.
- [4] 劍先形 주로 하단부를 뾰족하게 만든 것.

### [성형]

- [0] 측면에 아무 성형도 없는 것.
- [5] 목간을 이차적으로 기물(器物)로 성형한 것. 기물의 용도나 명칭을 알 수 없어도 크게 변형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한다. 완형품은 5555, 파손품은 88을 병용한다.(예를 들어 5588은 하반부가 파손되어 형상을 알 수 없다는 뜻).

### [묵서대상]

- [6] 기물에 묵서한 것. 完形品은 6666, 破損品은 88을 병용(예를 들어 8866은 상반부가 파손되어 기물 전용을 알 수 없다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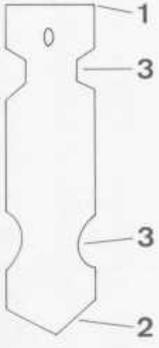
### [잔존상태]

- [8] 파손되어 형태나 조정을 알 수 없는 것.
- [9] 얇게 깎아낸 것.

이들 새로운 형식번호는 목간 형태에 특화된 합리적인 것이다. 그런데, 물론 모든 목간 형태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구멍은 판단재료가 되어 있지 않다. 구멍 양상에 대해서는 목간의 형태·기능·제작기법에 관한 관찰표에서 평면 또는 측면의 구멍으로 표시되게 된다.

2) 山中章「行政運営と木簡」(『日本古代都城の研究』柏書房, 1997. 처음 발표된 건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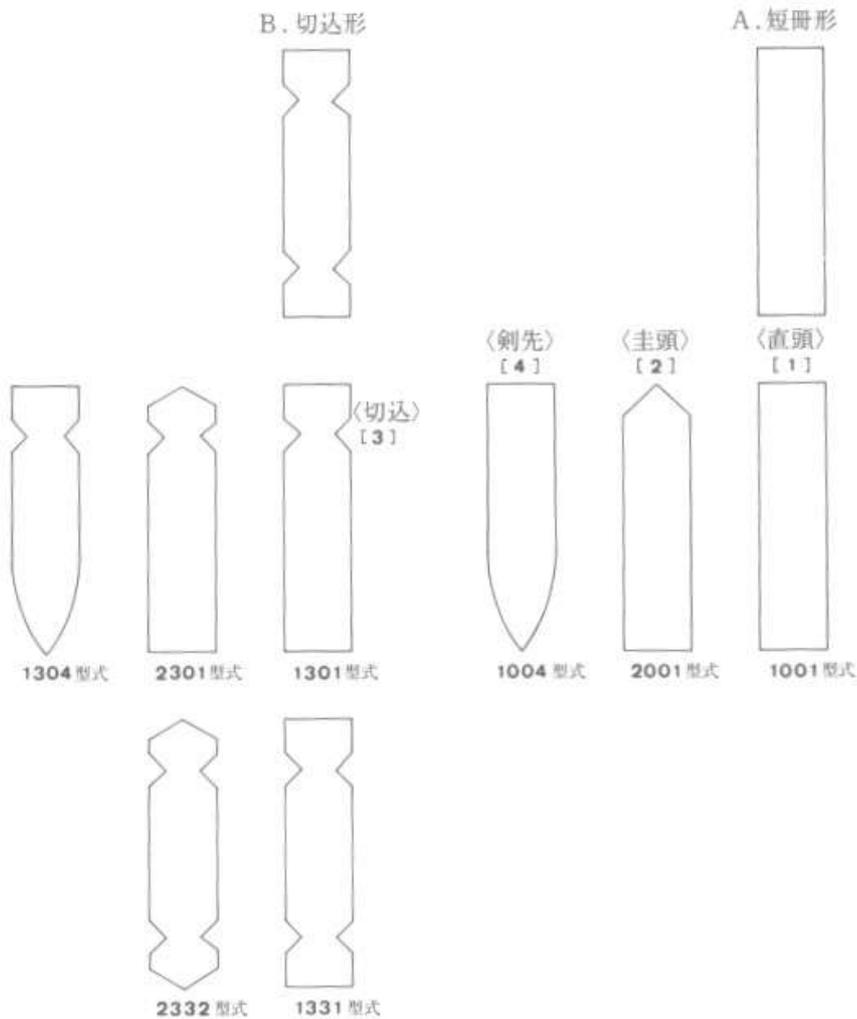
付表一 古代木簡の形態・機能・製作技法観察項目一覧



部位	型式番号	成形・調整手法		A キリ・オリ	B ケズリ		C キリカキ (三角形)	D (台形) キリオトシ	E (半円形) エグリ	平面ケズリ		部位
		穿 孔			a 平面	b 側面				カッタ グラス	ハギ トリ	
		α 平面	β 側面									
上端	①・2・4・8・9			○						○		表 面
上部	0・③・8・9	○						○			○	裏 面
下部	0・③・8・9		○						○		○	右側面
下端	1・②・4・8・9				○					○		左側面

[型式番号] 1直頭形 2圭頭形 3切込形 4剣先形 8破損 9削屑 0成形無

[本書の形態分類の基本形式]



그렇다면 목간의 형태를 자세하게 관찰하여 더 엄밀하고 망라적인 형식번호 체계를 구축해야 하느냐고 하면 그것은 의문스럽다. 일본 고대목간에 관한 지견이 방대하게 축적된 현재, 문서목간, 부찰목간, 기타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 각각이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져 있다. 이러한 기본 정보를 바로 전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형식번호가 바람직하다

고 생각한다.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 분류하려고 하면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져 버릴 우려가 있지 않을까. 형식번호에 관해서는 간단한 구분만 하고 기타 요소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이 간행하는 보고서 등에 기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山中·『長岡京木簡2』 분류에 관해서는 엄밀하기는 하지만 4자리 수로 여러 유형이 제시되는 것으로 간명하지 못하다. 이 분류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 목간 형태를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 목간학회 형식분류는 매우 간편하다. 3자리 수로 표현되는데 최초는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자리 수다. 모두 18가지 유형인데 절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가정의 이야기이지만 상기 ③·④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小型 矩形 021·022형식, 봉함목간에 특화된 041·043·049형식을 없애면 13가지만이 된다. 물론 형식번호를 삭제하는 것은 일정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지는 않겠다(다만 이들 5형식에 한해서는 삭제해도 크게 혼란스럽지 않으리라 느껴진다).

그리고 목간학회 형식분류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일본 고대목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효한 분류가 되어 있다고 실감되는 것이다. 몇 가지 문제점이나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보다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목간학회 형식분류가 유효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일본 고대목간에 한정된다. 다른 국가나 지역 목간의 형식분류에 대해서는 각각 특성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한국 고대목간의 경우 각주상 목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일본의 각주상 목간에 관해서는 미카미 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여러 형식번호로 표현되고 있는 현상이다. 교토히(京田)유적·도노우에(道上)유적·사시에(指江)B 유적에서 출토된 3점은 “標杖(표시의 지팡이)”<sup>3)</sup>에 해당하며 아키타성(秋田城)에서 출토된 1점도 미카미 씨가 성격을 밝혔으니 이들은 061형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간논지(觀音寺)유적에서 출토된 1점에 관해서는 그 성격을 충분히 알 수 없으니 현재처럼 081형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여하튼 일본 각주상 목간은 몇 점 안 되니 독자적인 형식번호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 2. 목간의 내용·기능에 대해

### (1) 목간의 전통적인 분류법

미카미 보고에서 소개되었듯이 일본 고대목간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a 文書木簡(협의를 문서목간, 기록간), b 付札木簡(貢進物荷札木簡, 物品管理用付札), c 기타(習書木簡, 呪符木簡 등)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가운데 a에 관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授受되는 문서와 후일 備忘 證明을 위해 작성되는 기록을 구별하는 전통적인 고문서학에 입각해서 협의의 문서목간과 기록목간으로 구별되었다.

이에 대해 사토 신이치(佐藤進一) 씨가 문서와 기록의 구별을 인정하면서도 “발신자와 수신자의 수수관계는 없지만 예상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능을 하는 서면이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환기했다. 현대의 호적, 御成敗式目, 公事方御定書, 일기 같은 메모, 引付, 事発日記, 問注申詞記, 付札, 調庸墨書銘 등이 그것이며 관리하기 위한 조합, 同定하기 위한 조합으로 사용되

3) 佐々木恵介 「榜示札・制札」(『日本古代の官司と政務』吉川弘文館, 2018. 처음 발표된 건 2004).

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타자에게 작용하는 점으로는 기록보다 문서에 더 가깝고 기능적으로도 문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봤다.<sup>4)</sup>

이러한 “문서와 기록의 사이”에 주목한 사토 씨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기능면에 주목하면서 고문서학의 재구축이 시도되었다. 그것은 목간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 목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찰(광의), 특히 하찰이 문제가 되었다. 원래 문서·기록과 하찰·부찰로는 분류의 차원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새로 하찰을 “문서와 기록의 사이”에 자리매김하는 사토 씨나 “움직이는” 기록으로 파악하는 야마구치 히데오(山口英男) 씨 같은 견해가 나왔다.<sup>5)</sup> 이들은 하찰·부찰의 독자성을 해소하는 시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별고에서<sup>6)</sup> 物品進上木簡(협의의 문서목간에 해당)과 하찰목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양자는 물품을 이동할 때 사용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즉, 물품진상목간은 <진상자+진상문언+품목+수량+운반자+날짜+발급자>를 기본 내용(일부 생략 있음)으로 하는 문서목간(협의)이며 진상물의 다소에 상관없이 한번 운반하는데 한 점씩 작성되어 물품이 진상된 뒤에는 진상물과 완전히 구별되어 이차적으로 기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하찰목간은 <지명+공진자+세목+품목+수량+연월일>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일부 생략 있음) 短冊形도 있지만 흠이니 突端 가공된 것이 많다. 하찰은 세물 짐 1점에 1점씩(하찰 2점 이상의 경우도 일부 있음)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짐이 최종 소비될 때까지 짐에 매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세물이 창고 등에 수납된 후의 하찰목간은 물품정리부찰로서의 성격이 강해진다.

이처럼 부찰·하찰에는 독자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되어 문서(협의)·기록에 해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카미 보고에서 소개되었듯이 현재 하찰 연구에서는 공진물 바깥에 매달린 하찰(外札) 이외에 쌀가마니나 소금 바구니 속에 넣는 하찰(中札)이 있었다는 것이 새로 주목된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바바 하지메(馬場基) 씨의 논고 제목이 “하찰과 짐이 이야기하는 것”인 듯이 짐(공진물)과의 관계를 검토하지 않는 하찰 연구는 있을 수 없다.

## (2) 목간 기능에 주목한 새로운 분류의 시도

일본 고대목간을 a 문서목간, b 부찰목간, c 기타 로 분류하는 건 현재도 유효하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한편으로 봉함, 문서 상자, 제침축 등 종래 목간 분류에 포함하기 어려운 목간도 알려져서 새로 모색해야 할 시기인 것도 사실이다(봉함목간에 새로운 형식번호가 부여된 것은 상술했다).

이런 상황에서 와타나베 아키히로(渡辺晃宏) 씨는 문서목간은 나무의 反復性이라는 특성에, 부찰목간은 나무의 堅牢性이라는 특성에, 습서·낙서목간은 나무의 簡便性이라는 특성에 대응한 용도로 파악하고, 각각 의사전달(意思伝達) 기능, 속성표시(屬性表示) 기능, 문자표기(文字表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목간 이외의 여러 문자매체를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했다.<sup>7)</sup>

4) 佐藤進一「中世史料論」(『日本中世史論集』岩波書店, 1990. 논문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76).

5) 山口英男「文書と木簡」(石上英一編『日本の時代史30 歴史と素材』吉川弘文館, 2004) 등.

6) 市大樹「物品進上状と貢進荷札」(藤田勝久·松原弘宣編『東アジア出土資料と情報伝達』汲古書院, 2011).

7) 渡辺晃宏「文字媒体とその機能」(角谷常子編『古代東アジアの文字文化と社会』臨川書店, 2019).

表1 日本における文字媒体・機能別の資料事例

文字媒体	機能		属性表示		文字表記
	宛先特定	不特定多数宛	専用単体使用	製品記録	
紙	文書		紙箋	—	習書・落書 典籍・聖教
木	文書・帳簿, 呪符	告知札, 看板, 高札など	荷札・付札, 棟札	墨書木製品 (題籤軸, 棒軸, 文書箱, 封緘, キーホルダー木簡, 曲物ほか)	習書・落書, 柿経
		勝示札・禁制など			
石	—	石碑(記念碑・供養碑)	(墓誌)	刻書石製品 (石塔銘など)	—
		石碑(墓碑)			
金属	—		墓誌(板状), 聖武天皇勅書銅版, 法華寺金版	刻書金属製品 (造像銘, 塔相輪・露盤銘, 鐘銘, 墓誌(蔵骨器銘)など)	—
土器・瓦埴	—		(墓誌〈板状〉)	墨書(刻書)土器・瓦埴	習書・落書
繊維製品	—		—	調庸墨書銘	—

이 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문제에 한정하면 속성표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하찰·부찰만이 아니라 각종 묵서 목제품도 포함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 묵서 목제품은 종래 목간 3분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와타나베 씨에 의하면 애초에는 묵서 목제품을 제4의 분류로 자리매김하려고 했지만, 속성을 표시하는 점에서는 부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과 일괄했다고 한다.

이 목간 분류는 기존의 목간 분류법을 기본적으로 계승한 위에 새로 묵서 목제품의 자리매김을 명백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전달 기능, 속성표시 기능, 문자표기 기능이 라는 명칭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와타나베 씨 자신도 각 명칭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은 등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또한, 여기서 와타나베 씨가 제시한 3가지 기능은 고위 차원에서 본 본질적인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개별 목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더 구체적인 기능이 상정되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미카미 보고는 몇 번이나 “기능”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후자가 주로 염두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목간의 개별 기능을 추구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때 목간의 일차적 기능만이 아니라 이차적 기능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창원문서 연구의 제일인자인 스기모토 가즈키(杉本一樹) 씨는 “문서를 주격(主格)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관점”을 <문서> oriented라고 부르고, 한편 “<사람>이 문서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관점”을 <일> oriented라고 불러 후자의 관점에서 “문서의 ‘기능’에 보이는 다양성의 대부분은 문서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일>의 다양성이다”라고 지적했다.<sup>8)</sup> 목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일> oriented로 보는 것이 지극히 유용하고 목간에 다기능성을 주는 것은 목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하겠다.

8) 杉本一樹 a「正倉院文書」, b「古代文書と古文書学」(모두 『日本古代文書の研究』吉川弘文館, 2001. 처음 발표된 것은 각 1994, 1998).

## 三上喜孝「日本古代木簡の型式分類と機能的分類」に対するコメント

2022年9月23日 市 大樹（大阪大学）

三上報告は、主に封緘木簡、付札木簡、角柱状の木簡を取り上げながら、韓国木簡なども視野に入れつつ、日本古代木簡の型式分類と機能的分類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論じたものである。論旨については基本的に賛同するが、蛇足と知りつつ、基本的事項について若干の補足をおきたい。

### 1、木簡の型式分類について

#### (1) 木簡学会方式

日本の木簡学会では、1979年の設立当初から長らくの間、木簡を15の型式番号に分類する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の方式を採用してきた。その後、三上報告で紹介されたように、1990年代に入って封緘木簡の存在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を受けて、3つの型式番号（041・043・049型式）が新たに追加され、現在にいたっている。

全部で18ある型式番号は、三上報告が述べているように、木簡の形態的特徴に注目して分類されたものである。しかし、純粋に形態的特徴のみに注目した分類かといえば、決してそのようなことはない。ここでは比較的わかりやすい4点を指摘しておく。

- ① 下端の形状は型式番号に直結するが、上端の形状はそうになっていない。付札を例にとろう。付札のなかには、下端を剣先形に尖らせたものが少なくない。短冊形の付札（011型式）や上下両端の左右に切り込みのある付札（031型式）などと区別するために、下端が剣先形になっていれば（場合によっては、圭頭〈山形〉であっても）、別の型式番号（051・059・033型式）が与えられる。しかし、上端の形状（直頭形、剣先形、圭頭形）の違いは型式番号に反映されない\*1。その理由としては、付札の機能を考える上では、上端よりも下端の形状の違いの方が重要である、という判断が働いたものと推測される。
- ② 木簡のなかに、穿孔の認められるものがある。側面に施された穿孔であれば、独自の型式番号（015型式）が与えられる。このタイプは考選関係の木簡に特徴的なものであり、それを認識するために独自の形式番号が付けられたのである。しかし、日本古代木簡の全体を見渡すと、穿孔は表裏を貫通させたものの方が多いにもかかわらず、こちらは型式番号の違いとして反映されることはない。その理由としては、表裏を貫通させた穿孔は、木簡を受け取った側による二次的なものであることが多く、木簡の一時的な機能に関わって施された側面の穿孔とは性格が異なる、という判断が働いたものと推測される。
- ③ 木製品と判断された場合、形状や残存状況の違いは特に問題とされず、用途が明瞭であれば061型式、用途が未詳であれば065型式に分類される。また、そもそも木製品とは何かという問題もある。三上報告で指摘されたように、041・043・049型式が与えられている封緘木簡は、用途の明瞭な木製品であるので、061型式でもよい。
- ④ 小型矩形と認識された場合、021・022型式に分類される。しかし、長さや幅が何センチ以下であれば小型と認定されるのか、明示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

## (2) 新たな試み

以上の例示からもわかるように、木簡学会方式の型式番号は、木簡の形態的特徴を純粹に突き詰めた分類では決してない。内容による分類、という側面もあるのである。三上報告では、「木簡の型式分類は、記載内容の検討以前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重要な作業」と位置付けるが、これは正論ではあるものの、実際の作業は同時並行的に進んでいくことが多いように感じている。

これに対して、山中章氏が提唱し\*2、それに一部改良を加えて、向日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向日市教育委員会編『長岡京木簡 2』（1993年）で提示された型式番号がある。それは、以下のような諸要素を表現する記号として設定され、上端・上部・下部・下端の順に4桁の数字で示される。

### 〔平面形〕

- [1] 直頭形 上・下端部を直線的に成形調整したもの。頭部両端角を面取りしたものを含む。
- [2] 圭頭形 上・下端部両側面から刃物を入れ、圭頭状にしたもの。
- [3] 切込形 上・下部に切り込みのあるもの。
- [4] 剣先形 主に下端部を鋭角に尖らせたもの。

### 〔成形〕

- [0] 側面に何等の成形も認められないこと。
- [5] 木簡を二次的に器物に成形すること。器物の形状や名称が不明でも、木簡を大きく変更している場合はこれを含める。完形品は5555、破損品は88を併用した（例えば5588は下半部が破損して形状が不明であることを示す）。

### 〔墨書対象〕

- [6] 器物に墨書するもの。完形品は6666、破損品は88を併用した（例えば8866は、上半部が破損して器物の全容のわからないことを示す）。

### 〔残存状態〕

- [8] 破損して形状や調整が不明の状態。
- [9] 薄く削り取ったも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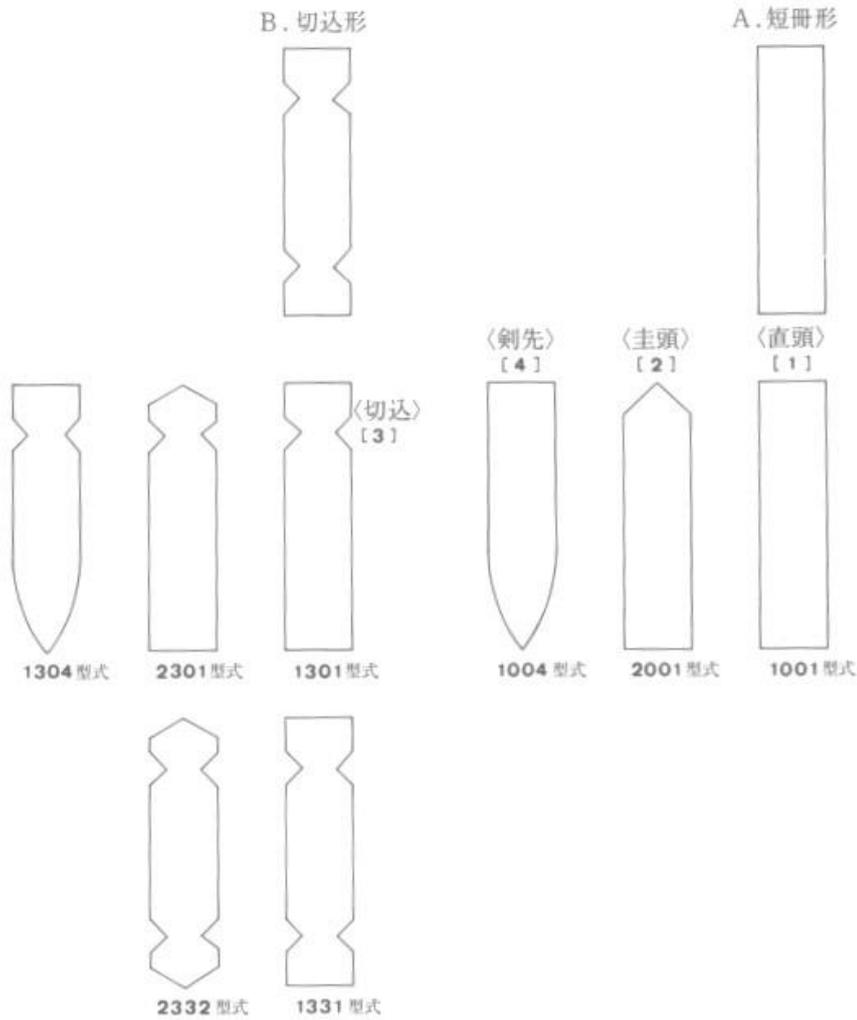
この新たな型式番号は、木簡の形態に特化した合理的なものである。しかし、もちろん、木簡の形態のすべてが反映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たとえば、穿孔の有無は判断材料とはなっていない。穿孔の様相については、木簡の形態・機能・製作技法に関する観察表のなかで、平面ないし側面の穿孔の有無として示されることになる。

付表一 古代木簡の形態・機能・製作技法観察項目一覧

部位	型式番号	成形・調整手法		A キリ・オリ	B ケズリ		C (三 角形) キリ カキ	D (台 形) キリ オリ	E (半 円形) エ グリ	平面ケズリ		部 位
		穿 孔			a 平面	b 側面				カ ット ス	ハ ギ トリ	
		a 平面	β 側面									
上端	①・2・4・8・9			○						○		表 面
上部	0・③・8・9	○					○				○	裏 面
下部	0・③・8・9		○					○			○	右 側 面
下端	1・②・4・8・9				○					○		左 側 面

〔型式番号〕 1直頭形 2圭頭形 3切込形 4剣先形 8破損 9削屑 0成形無

[本書の形態分類の基本形式]



それでは、木簡の形態を細かく突き詰め、より厳密で網羅的な型式番号の体系を構築すべきかといえ、それは大いに疑問である。日本古代木簡に関する知見が膨大に蓄積された現在、文書木簡、付札木簡、その他、に大きく3分類できること、それぞれ形態的特徴をもつことが判明している。こうした基本情報が即座に伝わるような、極力簡単な型式番号が望ましいと考える。あまり細部にこだわりすぎると、かえって本質から遠ざかってしまう恐れがあるのではないか。型式番号については簡単な区分にとどめ、その他の要素については、調査機関の刊行する報告書などに記載すればよいと考える。

山中・『長岡京木簡 2』分類に関しては、たしかに厳密なものであるが、数字4桁によってさまざまなパターンが示されることになり、やや簡明さに欠ける。この分類方法に相当習熟しておかないと、なかなか木簡の形態がイメージできないように思われる。

これに比べて、木簡学会の型式分類はかなり簡易である。数字は3桁で示されているが、最初は「0」で始まるので、実質的に2桁である。全部で18のパターンがあるが、決して多いとはいえないであろう。あくまでも仮定の話ではあるが、上記③・④の問題点を踏まえて、小型矩形の021・022型式、封緘木簡に特化した041・043・049型式をやめれば、13

パターンだけとなる。もちろん、型式番号の削除は一定の混乱をもたらすので、特にそれを強く主張するつもりはない（ただし、この5点に限っていえば、削除してもそれほど大きな混乱をもたらさないのではないかと感じている）。

そして、木簡学会の型式分類で重要だと思われるのが、日本古代木簡の特徴を大雑把につかむ上では、それなりに有効な分類になっている、と実感されることである。たしかに、いくつかの不備や矛盾もあることは否めないが、それを上回るメリットがあると考えられる。

ただし、木簡学会の型式分類が有効なのは、直接的には日本古代木簡に対してである。その他の国家・地域の木簡の型式分類については、それぞれの特性を踏まえて、改めて考える必要が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韓国古代木簡の場合には、角柱状の木簡をどのように位置付けるのかが、大きな課題となってこよう。

日本の角柱状の木簡に関していえば、三上報告でも指摘されたように、さまざまな型式番号が付けられている、という現状がある。京田遺跡・道上遺跡・指江B遺跡出土の3点は「標（しるし）の杖<sup>\*3</sup>」に該当し、秋田城出土の1点も三上氏によって性格が解明されているので、これらは061型式に分類するのがよいように感じる。しかし、観音寺遺跡出土の1点については、その性格が十分にわかっておらず、現状のとおり081型式に分類するのが無難であろう。ともあれ、日本の角柱状の木簡は点数が極めて少なく、あえて独自の形式番号を付ける必要はないと考えている。

## 2、木簡の内容・機能について

### (1) 木簡の伝統的な分類法

三上報告で紹介されたように、日本古代木簡はその内容に即して、a 文書木簡（狭義の文書木簡、記録簡）、b 付札木簡（貢進物荷札木簡、物品管理用付札）、c その他（習書木簡、呪符木簡など）に分けるのが通例である。このうちaに関しては、差出者と受取者の間で授受される文書と、後日の備忘証明のために作成される記録を区別する、伝統的な古文書学に立脚して、狭義の文書木簡と記録木簡に区別された。

これに対して、佐藤進一氏が、文書と記録の区分を認めつつも、「差出者と受取者の授受関係はないけれども、明らかに予想された相手に一定の働きかけをする書面が存在する」ことに注意を促している。現代の戸籍、御成敗式目、公事方御定書、日記風の書付、引付、事発日記、問注申詞記、付札、調庸墨書銘などがそれで、管理のための照合、同定のための照合で使用されるという特徴をもつとする。他者に働きかける点では記録よりも文書に近く、機能的にも文書と密接に関係しあうとみる<sup>\*4</sup>。

この「文書と記録の間」に着目した佐藤氏の問題提起を受けて、機能面に着目しながら、古文書学の再構築を目指す試みがなされた。それは木簡研究にも影響を及ぼし、日本の木簡の相当数を占める付札（広義）、とりわけ荷札が問題となった。もともと、文書・記録と荷札・付札とでは分類の次元が異なる、という問題があった。そこで新たに、荷札を「文書と記録の間」に位置づける佐藤氏や、「動く」記録と捉える山口英男氏のような見方が出てきた<sup>\*5</sup>。これは荷札・付札の独自性を解消する見方につながるものである。

しかし別稿<sup>\*6</sup>で、物品進上木簡（狭義の文書木簡に相当）と荷札木簡を比較検討したところ、両者は物品を移動させる際に用いられる点では共通するが、その具体的な使用法は随分と違うことが判明した。すなわち、物品進上木簡は「進上元+進上文言+品目+数

量+運搬者+日付+発給者」を基本内容（一部省略あり）とする文書木簡（狭義）で、進上物の多少にかかわらず、一回の運搬に対して一点ずつ作成され、物品の進上後には進上物と完全に切り離され、二次的に記録として利用されることが多い。これに対して、荷札木簡は「地名+貢進者+税目+品目+数量+年月日」を基本内容とし（一部省略あり）、短冊形も存在するが、切り込みや突端加工のあるものが多い。荷札は税物の荷物一点につき一点（荷札二点以上の場合も一部存在）ずつ作成されるのが原則で、その荷物が最終消費されるまで、荷物に装着されたままであるのが一般的であった。また、税物が倉庫などに収納された後の荷札木簡は、物品整理付札としての性格が強くなる。

このように付札・荷札には独自の役割があるとみられ、文書（狭義）・記録のなかに解消すべきではないと考える。三上報告で紹介されたように、現在の荷札研究では、貢進物の外側に装着された荷札（外札）のほかに、米俵や塩籠などの中に入れられた荷札（中札）が存在することが、新たに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この問題提起をおこなった馬場基氏の論考の題名が「荷札と荷物が語るもの」であるように、荷物（貢進物）との関係を問わない荷札の研究はあり得ない。

## (2) 木簡の機能に着目した新たな分類の試み

日本古代木簡を、a 文書木簡、b 付札木簡、c その他に分類することは、現在も有効であり、理にかなっていると考える。その一方で、封緘・文書箱・題籤軸など、従来の木簡分類に馴染みにくい木簡も知られるようになり、新たな模索の時期にきているのも事実である（封緘木簡に新たな型式番号が付与されたことは、先述したとおりである）。

こうしたなか渡辺晃宏氏は、文書木簡は木の反復性という特性に、付札木簡は木の堅牢性という特性に、習書・落書木簡は木の簡便性という特性に対応した用途と捉え、順に意思伝達機能、属性表示機能、文字表記機能を果たすものと考えた。そして、木簡以外のさまざまな文字媒体も含めて、次のような表を提示している\*7。

表1 日本における文字媒体・機能別の資料事例

機能 文字媒体	意思伝達		属性表示		文字表記
	宛先特定	不特定多数宛	専用単体使用	製品記録	
紙	文書		紙箋	—	習書・落書 典籍・聖教
木	文書・帳簿、呪符	告知札、看板、高札など	荷札・付札、棟札	墨書木製品 (題籤軸、棒軸、文書箱、封緘、キーホルダー木簡、曲物ほか)	習書・落書、柿経
		勝示札・禁制など			
石	—	石碑(記念碑・供養碑)	(墓誌)	刻書石製品 (石塔銘など)	—
		石碑(墓碑)			
金属	—		墓誌(板状)、 聖武天皇勅書銅版 法華寺金版	刻書金属製品 (造像銘、塔相輪・ 露盤銘、鐘銘、墓誌 (蔵骨器銘)など)	—
土器・瓦埴	—		(墓誌〈板状〉)	墨書(刻書)土器・瓦埴	習書・落書
繊維製品	—		—	調庸墨書銘	—

この表に関してはいくつも注目すべき点があるが、当面の問題に限っていえば、属性表示機能を果たすものとして、荷札・付札のほかに、各種の墨書木製品が組み込まれている点が目を引く。これらの墨書木製品は、従来の木簡の3分類の範疇には含まれない。渡辺氏によると、当初は墨書木製品を第4の分類に位置付けようとしたが、属性を示すという点においては、付札と同一の機能を果たしている\*8ことに気がつき、それと一括するにいたった、とのことである。

この木簡分類は、既存の木簡分類法を基本的に継承した上で、新たに墨書木製品の位置づけを明確にしたものといえる。これまでの木簡研究の成果をほぼそのまま継承することができ、受け入れやすいものとなっている。ただし、意思伝達機能、属性表示機能、文字表記機能という名称が本当に妥当なのか、渡辺氏自身、何度もそれぞれの名称をめぐって揺れ動いていたように、改めて考え直してみる必要性も感じる。

また、ここで渡辺氏によって示された三つの機能は、高位の次元からみた本質的な機能とでもいうべきものである。個々の木簡に即して考えてみると、より具体的な機能が想定される点に注意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三上報告では何度も「機能」という言葉が使用されているが、おそらく後者が主に念頭に置かれていると思う。そうした木簡の個別の機能を追求していくことは、今後ますます重要になると考える。その際、木簡の一次的機能だけでなく、二次的機能などにも目配りする必要が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

正倉院文書研究の第一人者である杉本一樹氏は、「文書を主格と見なして、論を進める立場」を〈文書〉oriented と呼び、一方、「〈ひと〉が文書を使って〈しごと〉をする立場」を〈しごと〉oriented と名付け、後者の立場から、「文書の「機能」にみられる多様性の大部分は、文書を使って行なおうとしている〈しごと〉の多様性であ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9。木簡の理解にあたっては、〈しごと〉oriented の見方は極めて有用であり、木簡に多機能性を与えているのは、木簡を使用する人間の側である点を自覚すべきであろう。

---

\*1また、上下両端の左右に切り込みがある付札についても、下端が直頭であるとは限らず、圭頭になっている場合があるが、型式番号に両者の区別はない。

\*2山中章「行政運営と木簡」（『日本古代都城の研究』柏書房、1997年、初出1992年）。

\*3佐々木恵介「榜示札・制札」（『日本古代の官司と政務』吉川弘文館、2018年、初出2004年）。

\*4佐藤進一「中世史料論」（『日本中世史論集』岩波書店、1990年、初出1976年）。

\*5山口英男「文書と木簡」（石上英一編『日本の時代史30 歴史と素材』吉川弘文館、2004年）など。

\*6市大樹「物品進上状と貢進荷札」（藤田勝久・松原弘宣編『東アジア出土資料と情報伝達』汲古書院、2011年）。

\*7渡辺晃宏「文字媒体とその機能」（角谷常子編『古代東アジアの文字文化と社会』臨川書店、2019年）。

\*8物品そのものに属性を記載する（墨書木製品）か、別のものに属性を記載して物品に取り付ける（付札）か、という違いしかないとする。

\*9杉本一樹 a 「正倉院文書」、同 b 「古代文書と古文書学」（ともに『日本古代文書の研究』吉川弘文館、2001年、初出は順に1994年、1998年）。